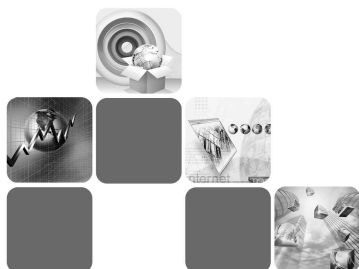


2019-9호

월간 ICT 산업 동향





Contents

I. 수출 동향 1

- | | |
|------------|--------------|
| ① 개요 | ② 반도체 |
| ③ 디스플레이 패널 | ④ 휴대폰 |
| ⑤ D-TV | ⑥ 컴퓨터 및 주변기기 |
| ⑦ SW | |

II. 트레이드 GPS 29

1. EU - 이차전지 30
2. 카메라 모듈 35
3. Ex-Briefing 41

III. 부록 46

1. ICT 생산 통계 47
2. 2019년 8월 ICT산업 수출입 통계(잠정) 48
3. 주요국 ICT 수출입 통계 55
4. ICT 부분별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구매 금액 .. 61
5. ICT 부문별 수출입 금액 및 물량 지수 62





I

수출 동향



I 수출 동향¹⁾

1 개요

- '19.8월 ICT 수출은 152.3억 달러(△24.5%), 수입 88.2억 달러(1.9%↑)를 기록
- (수출) 반도체·디스플레이·휴대폰 등 3대 주력 품목 감소로 전년 동월대비 24.5% 감소돼 10개월 연속 하락('18.11월 △1.7%→'19.2월 △19.2%→5월 △22.6%→8월 △24.5%)
 - 품목별로는 D-TV가 급증한 반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 주요 수출 품목이 부진했으며 국가별로는 베트남·일본을 제외한 중국(홍콩포함)·미국·EU 등 주요국이 감소

표 1-1 주요 ICT 품목별 및 국가별 수출

구 분 (억 달러, %)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D-TV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전 체
전세계	80.9 (△30.5)	21.8 (△26.7)	10.6 (△18.2)	2.6 (109.3)	6.8 (△30.6)	152.3 (△24.5)
중국(홍콩)	49.9 (△35.8)	9.7 (△27.9)	3.7 (△18.2)	0.2 (155.2)	3.0 (△30.2)	73.5 (△32.6)
미국	5.5 (△12.9)	0.2 (△33.6)	2.8 (△31.8)	0.0 (△49.2)	1.9 (△2.4)	14.9 (△14.6)
일본	1.0 (△4.2)	0.2 (17.1)	0.1 (△34.9)	0.0 (△11.5)	0.2 (△33.7)	3.2 (1.8)
EU	2.0 (△20.5)	0.6 (△54.6)	0.3 (△16.1)	0.3 (105.6)	0.7 (△37.5)	8.8 (△15.3)
베트남	10.5 (8.9)	10.2 (△12.0)	2.6 (21.9)	0.3 (471.9)	0.1 (△32.8)	28.2 (1.1)

자료 : IITP, KTSPI

- (수입) 전년 동월대비 1.9% 증가한 88.2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2개월 연속 증가세
 - 컴퓨터 및 주변기기(8.0억 달러, △17.8%), 디스플레이(3.4억 달러, △45.3%) 등은 감소했으나 반도체(39.1억 달러, 1.9%↑), 휴대폰(7.7억 달러, 15.3%↑)은 늘어나며 전체적으로는 상승
- (무역수지) 중국(홍콩포함, 44.2억 달러)·베트남(19.1억 달러)·미국(8.1억 달러)·EU(3.3억 달러) 등 주요국에 대해 흑자 기조를 지속하며 총 64.1억 달러 흑자를 기록

표 1-2 ICT 및 전체 산업 수출입 동향

구 분 (억 달러, %)		2019년		2018년	
		8월P	1~8월P	8월	1~8월
수출	전체 산업	442.0 (△13.6)	3,615.7 (△9.5)	511.8 (8.7)	3,996.6 (6.6)
	ICT	152.3 (△24.5)	1,169.8 (△19.7)	201.7 (15.4)	1,456.8 (17.5)
수입	전체 산업	424.8 (△4.2)	3,384.0 (△4.6)	443.6 (9.4)	3,548.6 (13.2)
	ICT	88.2 (1.9)	721.6 (3.0)	86.6 (0.6)	700.3 (7.0)
무역수지	전체 산업	17.2	231.6	68.2	448.1
	ICT	64.1	448.2	115.1	756.4

자료 : IITP, KTSPI

1) 관세청 통관 기준 통계를 IITP가 ICT 분류체계에 맞게 재가공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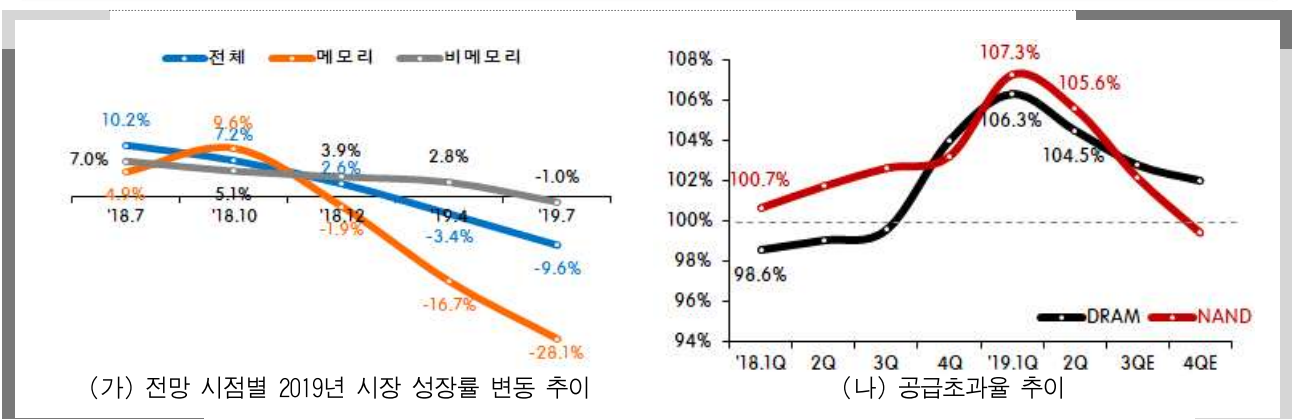
2 반도체

1) 수출 환경

□ '19년 반도체 시장 전망은 하향조정, '20년엔 데이터센터용 메모리 회복 등으로 반등 기대

- (시장 전망) '19년 시장은 비메모리(2,441억 달러, $\Delta 1.0\%$), 메모리(1,171억 달러, $\Delta 28.1\%$)가 동반 하락하며 전체 시장은 4,292억 달러($\Delta 9.6\%$)로 역성장 전망(Gartner, '19.7월)
 - 메모리 수요 감소 및 '18년 기대 이상의 호실적을 달성한 데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19년 반도체 시장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향조정 되면서 '19.7월 전망치 기준으로 9%대의 역성장 예상
 - 특히 메모리 시장은 '18.10월 9.6% 플러스성장을 전망했으나 전년 고성장애 대한 기저 효과, 미·중 무역 분쟁, 전방시장 성장 둔화 등으로 '19.7월 28.1% 하락으로 하향조정
 - 한편, 전체 반도체 시장 성장률은 '20년에 데이터센터·스마트폰 등의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 되면서 성장 반등이 기대
 - ※ 전체 반도체 시장 성장률 추이(% , Gartner, '19.7월) : ('17) 21.9 $\uparrow$ -('18) 12.5 $\uparrow$ -('19E) $\Delta 9.6$ -('20E) 9.6 $\uparrow$
- (수급 전망) 메모리는 '19년 공급초과가 지속되나 낸드→D램 순으로 수급이 안정화될 전망
 - (D램) 전방산업 부진, 높은 재고 수준, 미·중 무역 분쟁 등 리스크 증가로 '19.1분기 가장 높은 공급초과율을 기록했으나 이후 점차 낮아지면서 '20.2분기부터는 공급부족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
 - (낸드플래시) '19.1분기 전방산업 부진으로 높은 수준의 공급초과율(107.3%)을 기록했으나 데이터 센터용 서버용 제품을 중심으로 수급이 개선되면서 '19.4분기 이후에는 공급부족이 예상
 - ※ 하락한 NAND 가격으로 하이퍼스케일러2) 데이터센터 투자가 재개될 것으로 예측(NH투자증권)

그림 1-1 | 전망 시점별 성장률 변동 및 공급초과율 추이



자료 : Gartner, 가로축 시점 기준 / 2019.6.

2) 하이퍼스케일러(hyperscaler)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업체

□ 일부 반도체 공정에 대체 불화수소를 투입하며 반도체 소재에 대한 脫일본 시작

- 일본의 對한국 수출 규제가 시행된 지 한 달 반 만에 국내 반도체 업체는 대체재를 일부 공정에 투입하는데 성공했으며 향후 국산화 비중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
 - 삼성전자는 '19.8월 중순부터 대만·중국산 원료로 만든 반도체 공정용 소재를 일부 반도체 공정에 순차 적용하며 일본산 불화수소 대체를 시작
 - ※ 일본 정부의 對한국 수출 규제로 스텔라, 모리타 제품 수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지자 국내 소재 업체인 솔브레인과 이엔에프테크놀로지는 고객사인 삼성전자와 협력해 대체재를 마련
 - 대체 불화수소 투입은 일본의 수출 규제 시행(7.4일) 후 약 한 달 반의 짧은 기간 내 시작됐으며, 이는 품질 평가 등을 빠르게 진행하고 사전 대응책을 마련했기 때문으로 풀이
 - 한편 SK하이닉스도 이미 상당량의 대체 소재가 납품되며 대체 불화수소 투입이 임박한 것으로 분석
 -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공장은 세계 최대 규모이며, 제품마다 공정도 달라 불화수소 대체는 일부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나 향후 일본 소재 의존도를 줄여나갈 것으로 기대
 - ※ 증설 중인 솔브레인³⁾ 공장도 9월 완공돼 국산 불화수소 생산이 시작되면서 국내 필요 물량을 소화할 것으로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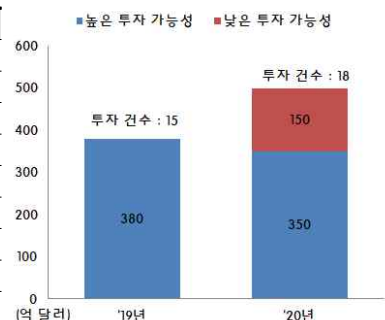
□ 내년 반도체 회복세가 기대되면서 반도체 팹(Fab) 건설 투자 규모도 늘어날 전망

- '20년 신규 팹 투자는 전년대비 30%(120억 달러↑) 증가한 500억 달러로 전망(SEMI, '19.9월)
 - 올해는 총 38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팹 15개가 건설될 전망이며 내년 상반기에 장비 도입이 진행돼 일부는 '20년 중반부터 생산이 시작될 예정
 - '20년에는 18개의 신규 팹 설비 투자가 시작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 중 건설 가능성이 높은 10개 시설의 투자 규모는 최소 350억 달러로 예상

표 1-3 일본 수출규제 관련 주요 일지 및 반도체 팹 투자 전망

일자	내용
'19.7.4일	일본,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 한국 수출규제 발표
8.7일	일본,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한국 제외' 시행령 공포
8일	일본, 對한국 수출규제 대상 품목(불화수소) 1건 허가
19일	일본, 對한국 수출규제 품목(불화수소)의 두 번째 수출 허가
21일	중국에서 한일 외교 정상회담, 입장차 재 확인
22일	청와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
28일	일본, 한국 '백색국가 제외' 시행/한국, 일본 '백색국가 제외' 예고
9.11일	한국, WTO에 '일본 수출규제' 제소
18일	한국, 일본 '백색국가 제외' 시행

(가) 일본 수출규제 관련 주요 일지



(나) 신규 팹 투자 전망

자료 : 언론 자료 취합, SEMI, 2019.9.

3) 솔브레인은 일본 스텔라 불화수소를 수입, 정제한 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공급해 왔지만 중국에서 원료(무수불산)를 가져와 직접 불화수소를 만드는 사업도 진행하면서 기술력 확보해 규모와 품질 면에서 일본산 불화수소 대체가 가능하다는 평가

□ 중국, 미중분쟁과 화웨이 제재 등을 기점으로 반도체 국산화를 위한 투자 확대

- 중국은 '19.7월 2,000억 위안(약 34조 원) 규모의 2기 정부펀드(중국 반도체 산업투자 펀드, CICF) 조성을 마무리하며 반도체 국산화를 위한 투자 기반 마련
 - 2기 펀드는 '18.3월 조성 계획을 발표했으며 '14년 조성을 시작한 1기 펀드(1,387억 위안) 대비 1.5배 커진 규모로 인공지능, 5G, 반도체 등 차세대 분야에 집중 투자될 것으로 예상
 - ※ 1기 펀드는 분야별로 IC제조 67%, IC설계 17%, 패키징테스트 10%, 장비/소재 6% 비중으로 투자했으며 칭화유니(289억 위안), SMIC(210억 위안), 썬안광전(64억 위안), 화홍반도체(59억 위안) 등 업체에 투자
- (3D 낸드플래시) 창장메모리가 64단 양산을 시작했으며 128단으로 직행해 공정 단축을 추진
 - 중국에서 유일하게 낸드플래시를 개발하고 있는 창장메모리(YMTC)는 '15년 3D 낸드 시장 진출을 발표했으며 이후 4년 만에 엑스테킹⁴⁾ 기술을 적용한 64단 낸드플래시 양산에 돌입('19.8월)
 - ※ 64단 수율은 아직 70% 수준으로 낮지만 연말엔 월 2만장 수준의 웨이퍼 투입 예상(삼성증권, '19.8월)
 - 더불어 3D 낸드플래시 생산 단계를 90단을 뛰어넘어 '20년 128단으로 직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계획대로 양산될 경우 중국과 글로벌 반도체 기업 간 격차를 줄이게 될 전망
 - ※ 128단 낸드플래시는 삼성전자가 '19년 양산을 시작하고 SK하이닉스·마이크론도 '20년에 생산을 추진 중인 단계
- (D램) 푸젠진화·허페이창신에 이어 '19.7월 칭화유니그룹이 D램 진출을 선언
 - 푸젠진화는 마이크론과의 특허소송, 미국의 수출금지 조치 등으로 완공된 팹을 아직 가동하지 못하고 있으며, 허페이창신은 연내 25nm 제품 양산을 계획했으나 수율이 20%에 그치는 등 성과가 미미
 - 이 같은 상황 가운데 칭화유니그룹이 '19.7월 초 공식적으로 D램 사업 진출을 선언했으며 9월에는 충칭 정부와 D램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센터 및 팹을 설립하기로 합의
 - ※ 이번 시설 투자는 연말에 착공해 '21년 완공 예정이며 연구개발 시설은 우한, 팹은 충칭에 건설할 계획
 - 이는 미중분쟁 이후 반도체 자립 의지가 강화된 중국 정부가 재정이 약한 지방 정부와 조직이 약한 업체 중심에서 낸드에서 성과를 보여준 칭화유니그룹 중심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풀이

그림 1-2 | 업체별 3D 낸드플래시 양산 로드맵 및 칭화유니그룹의 메모리 플랜



자료 : IHS마켓, 삼성전자, 2019.8.

4) 엑스테킹(X-tacking) 기술은 창장메모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낸드플래시 양산기술로 '18.8월 공개했으며 메모리 밀도와 정보처리 속도 향상

2) 수출 동향

□ 메모리 및 시스템 반도체 수출이 동반 감소하면서 9개월 연속 두 자릿수 하락세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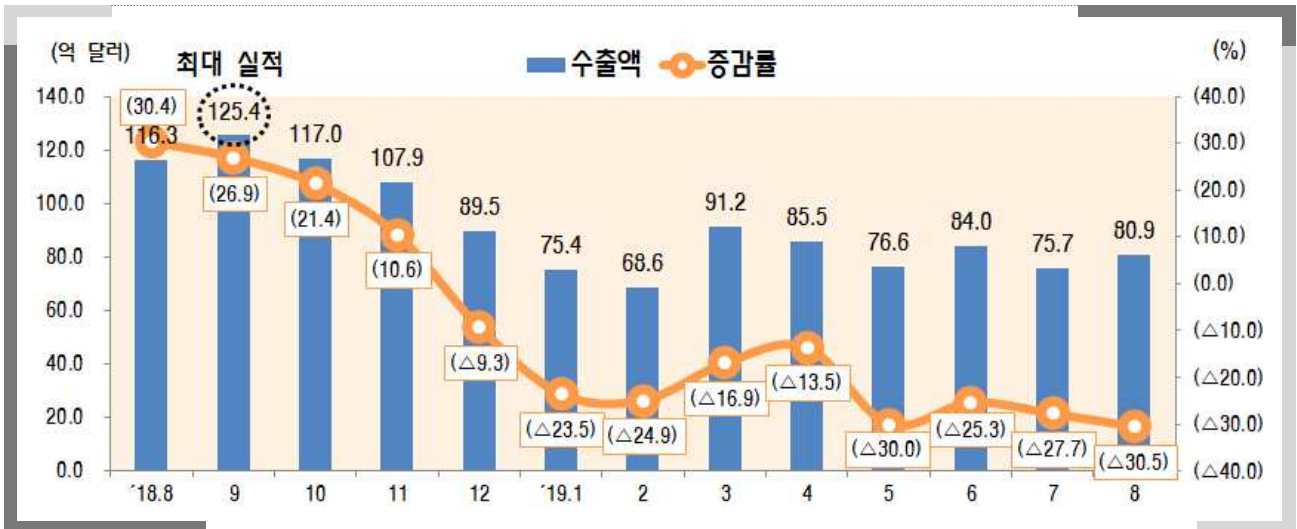
- (품목별) '19.8월 수출은 메모리 반도체 단가 하락, 시스템 반도체 수요 둔화, 기저효과 등으로 80.9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대비 30.5% 감소
 - (메모리반도체 : 52.0억 달러, △39.6%) 서버스마트폰 등 전방산업 수요 감소로 D램 및 복합부품 직접회로(MCOs)·낸드플래시·메모리MCP 등 대부분의 품목이 줄어들며 9개월 연속 하락
 - (시스템반도체 : 23.4억 달러, △1.3%) 패키징·팩리스 물량이 감소하면서 10개월 연속 하락세
- (지역별) 최대 교역국인 중국은 부진했으나 국내 세트 업체의 생산 거점인 베트남은 증가세
 - 중국(홍콩포함, 49.9억 달러, △35.8%)은 시스템 반도체(0.5%↑) 수출이 증가했으나 D램·MCOs·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26.5%)가 부진하며 10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
 - 베트남(10.5억 달러, 8.9%↑)은 MCOs·D램·낸드플래시 부진으로 메모리(△0.5%) 반도체가 감소했으나 시스템 반도체(7.6%↑) 수출이 전체 수출을 견인하면서 2개월 연속 증가

표 1-4 | 반도체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대비)

구분	'18.8	9	10	11	12	'19.1	2	3	4	5	6	7	8
반도체	116.3 (30.4)	125.4 (26.9)	117.0 (21.4)	107.9 (10.6)	89.5 (△9.3)	75.4 (△23.5)	68.6 (△24.9)	91.2 (△16.9)	85.5 (△13.5)	76.6 (△30.0)	84.0 (△25.3)	75.7 (△27.7)	80.9 (△30.5)
메모리	86.0 (42.5)	96.2 (44.5)	87.7 (26.5)	80.5 (16.9)	63.8 (△10.3)	47.6 (△30.5)	45.1 (△31.1)	65.4 (△18.6)	58.6 (△16.2)	52.7 (△35.8)	58.9 (△30.7)	47.3 (△37.2)	52.0 (△39.6)
D램	41.3 (51.6)	44.9 (54.3)	42.6 (37.0)	42.0 (40.7)	32.4 (1.1)	24.3 (△22.1)	21.0 (△29.9)	29.0 (△19.9)	27.9 (△24.7)	23.6 (△42.1)	25.0 (△39.7)	21.6 (△44.1)	22.5 (△45.5)
낸드	6.0 (17.7)	7.4 (29.3)	7.1 (35.5)	6.6 (32.1)	6.2 (25.3)	4.1 (△26.1)	3.7 (△41.3)	5.9 (△16.7)	6.7 (17.3)	4.7 (△33.0)	4.4 (△37.6)	5.0 (△13.1)	4.8 (△19.0)
MCP	18.2 (△6.6)	20.1 (△18.8)	18.6 (△30.9)	18.4 (△32.2)	14.5 (△46.7)	12.5 (△49.8)	11.9 (△45.5)	19.0 (△32.4)	15.9 (△18.7)	14.6 (△15.4)	19.9 (13.3)	14.4 (7.0)	17.7 (△3.1)
시스템 반도체	23.7 (5.4)	22.9 (△9.3)	23.0 (8.2)	21.7 (△3.5)	20.3 (△2.9)	21.6 (△6.3)	18.7 (△6.0)	20.0 (△9.8)	21.2 (△6.6)	18.4 (△13.0)	20.0 (△4.8)	22.7 (△1.6)	23.4 (△1.3)
개별 소자	1.4 (15.6)	1.2 (△4.1)	1.4 (22.8)	1.3 (3.8)	1.2 (△7.0)	1.4 (2.6)	1.1 (△7.1)	1.3 (△2.2)	1.3 (2.2)	1.3 (1.0)	1.3 (△3.1)	1.5 (10.2)	1.3 (△6.7)
광전 소자	3.8 (△11.2)	3.7 (△21.5)	3.6 (△3.8)	3.0 (△26.1)	2.7 (△37.5)	3.3 (△24.2)	2.5 (△33.2)	3.2 (△28.1)	3.2 (△10.4)	3.2 (△4.2)	2.8 (△22.2)	3.1 (△9.7)	3.1 (△16.9)

자료 : IITP, KTSPI

그림 1-3 반도체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1-5 반도체 수출 상위 10대 국가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대비)

구분	2018년 연간				2019년						
					8월 당월				1~8월 누적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1	중국	522.1	32.7	40.7	중국	31.3	-32.2	38.7	248.0	-28.3	38.9
2	홍콩	335.7	24.0	26.2	홍콩	18.5	-41.0	22.9	149.9	-34.3	23.5
3	베트남	109.6	18.7	8.6	베트남	10.5	8.9	12.9	76.6	5.4	12.0
4	미국	68.8	54.8	5.4	미국	5.5	-12.9	6.8	39.9	13.4	6.3
5	대만	65.5	48.8	5.1	대만	3.3	-53.9	4.1	28.1	-27.6	4.4
6	필리핀	55.1	29.2	4.3	필리핀	2.1	-55.8	2.6	20.9	-42.4	3.3
7	싱가포르	28.3	-10.2	2.2	싱가포르	1.6	-33.1	2.0	15.6	-19.5	2.4
8	일본	15.0	3.9	1.2	인도	1.5	8.4	1.8	10.4	31.1	1.6
9	독일	13.8	36.8	1.1	말레이시아	1.4	35.2	1.7	8.0	3.6	1.3
10	인도	12.8	105.4	1.0	일본	1.0	-4.2	1.2	8.4	-17.6	1.3

자료 : IITP, KTS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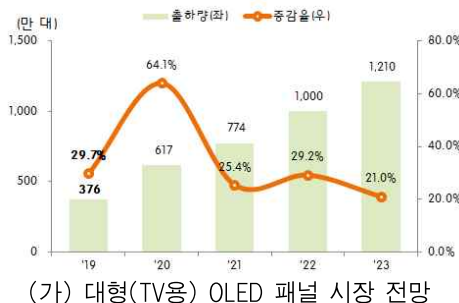
3 디스플레이 패널

1) 수출 환경

□ 수익성 확보를 위한 脫LCD 행보와 전방산업에 따른 수요 증가로 불황 해소 기대

- (시장 전망) 폴더블 등 OLED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이 확대되면서 회복세가 기대
 - (대형 패널) 전방 산업인 TV 판매 부진, LCD TV 패널 가격 하락 등이 겹쳐 수익성 악화가 지속
 - ※ LCD TV 패널 가격(55인치 기준, 달러, IHS) : ('18.9월) 157 → ('19.1월) 143 → ('19.4월) 140 → ('19.8월) 106
 - 글로벌 대형 패널 시장의 중심은 수익성 향상을 위해 LCD→OLED로의 전환이 가속화 될 전망. OLED TV 패널 시장(점유율)은 '19년 26억 5,800만 달러(8.3%)→'24년 77억 6,200만 달러 (21.4%)로 점차 확대될 전망(전자신문, 9.16일, 원소스 IHS)
 - (중소형 패널) 글로벌 폴더블 패널 시장은 '갤럭시폴드' 판매 개시(9.6일)에 힘입어 '19년 0.62억 달러→'23년 84억 달러로 급성장(약 242% 성장)할 것으로 예상(DSCC, '19.8월)
- (경쟁 현황) '19.2분기 스마트폰용 OLED 시장 점유율(출하량 기준)은 삼성디스플레이 (82%), LG디스플레이(2%), BOE(12%) 등의 순으로 차지(한국경제, 9.8일, 원소스 IHS)
 - 삼성디스플레이가 80%대로 떨어진 반면 中 BOE는 화웨이向 OLED 패널 공급으로 10%대 첫 돌파. 하지만 OLED 품질 면에서는 여전히 국내 업체가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
 - ※ 화웨이가 최신 스마트폰인 '메이트30' 시리즈에 탑재할 패널을 BOE가 아닌 삼성·LG디스플레이로 채택
 - '19.3분기부터 '갤럭시노트10' 등의 출시가 이어지면서 BOE의 점유율은 다시 2~3%대로 하락하고 삼성디스플레이는 90%대로 회복할 것이라는 분석
 - 동기간 LG디스플레이도 애플의 공급처 다변화 전략에 수혜를 입어 4%, 4분기에는 11%까지 확대될 전망

그림 1-4 | 대형(TV용) OLED 패널 시장 전망 및 글로벌 중대형 LCD 패널 수급 추이 및 전망



자료 : 파이낸셜뉴스, 8.30. (원소스 IHS) / IHS, 하나금융투자, 2019.9.

- 중국發 LCD 공급 과잉으로 패널 가격이 제조원가 이하(32인치) 혹은 제조원가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글로벌 업체들은 손실을 완화하기 위해 LCD 가동률 하향 조정에 돌입
 - (한국) 삼성디스플레이는 '19.8월부터 8.5세대 LCD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국내 총 생산량인 월 25만 장의 절반가량을 중단)하고 LG디스플레이도 8.5세대 LCD 라인 가동률을 60%로 낮춰 조정
 - (중국) BOE는 '19.7월부터 10.5세대 생산량을 25% 감산하고 나머지 LCD 라인도 약 10% 축소 CSOT·HKC도 8.5세대 LCD 라인의 생산을 각각 10%, 20% 감축
 - 게다가 정부 지원마저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패널 시장에서 치열했던 중국 업체 간의 주도권 경쟁은 다소 진정될 기미. 이로 인해 '19.4분기부터 LCD 패널 가격 하락세가 일시적으로 완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대두

〈 디스플레이 업체별 LCD 라인 구조조정 〉

국가	기업	패널	보고 시점	캐파(CAPA)	내용
한국	삼성디스플레이	L8-1-1	'19.8월	90K/월	- 생산 중단
		L8-2-1	'19.9월	30K/월	- 생산 중단
	LG디스플레이	P8-2	-	100K/월	- 생산 중단 검토 중 - '19.6부터 5~8.5G 패널 10~20% 캐파 감축
중국	BOE	Hefei B9	'19.7월	120K/월→90K/월	- 캐파 감축 25% - 10.5G Wuhan B17도 양산 시점 연기('19.말→'20.초)
	CSOT	Shenzhen T1&T2	'19.8월	305K/월→275K/월	- 캐파 감축 10%
		T6&T7	'19.8월	90K/월	- 가동률 40%
	HKC	Chongqing H1	'19.8월	78K/월→62K/월	- 캐파 감축 20%
	AUO	(전체)	'19.8월	-	- 19.3분기 가동률 유지 및 라인 조정 예정(19.2분기 가동률은 90% 이상)
		(6G이상)	'19.8월	-	- 가동률 90%로 하향 조정
		Singapore L4B	'19.8월	34K/월	- 가동률 50%로 하향 조정
		Kunshan L6K LTPS	'19.8월	25K/월	- 가동률 50%로 하향 조정
일본	샤프	SHP Taki CGS-B	'19.2분기	10K/월	- 생산 중단. '19.1분기 캐파 감축 50%. '19.2분기 20~30% - 10.5G SIO Guangzhou 양산 시점 연기('19.9→'19.말)
	JDI	Hakusan D3	'19.3분기(예정)	25K/월	- 생산 중단
대만	Innolux	-	'19.8월	-	- 라인 조정 예정. 가동률은 80~83%로 작년 수준 유지
	CPT	Lungtan L1A	'19.1분기	30K/월	- 생산 중단
		Lungtan L2	'19.2분기	33K/월	- 생산 중단. '19.6월 가동률 2%

자료 : 언론자료, IHS, DB 금융투자, 2019.9.

□ 업체들은 수익성 높은 OLED에 집중..폴더블 패널 시장 주도권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

- 경영 악화에 직면한 국내 업체들은 조직개편, OLED 공급 확대 등으로 돌파구 모색
 - (**LG디스플레이**) LCD 수익성 악화, OLED 사업구조 전환을 위한 대규모 투자 등으로 '19.1~2분기 영업 손실에 직면 실적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구조조정, 과감한 경영진 교체 등을 시행하며 OLED에 집중
 - (**#대형**) 중국 광저우 8.5세대 대형 OLED 패널 공장이 완공되면서 8.30일부터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 고해상도 55·66·77인치 등 대형 OLED 생산에 주력할 방침
 - ※ OLED 잠재력이 높은 중국을 겨냥해 中의 대형 OLED 패널 시장을 '20년 100만 대, '21년 200만 대로 끌어올릴 계획
 - 기존 OLED 패널 공급 능력은 전망산업 업체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으나 '경기 파주, 중국 광저우' 투트랙(Two-Track) 대형 OLED 생산체제 구축으로 탄력적인 공급 대응이 가능할 전망
 - 이어 파주 10.5세대 OLED 공장을 '22년부터 본격 가동하면서 향후 LG디스플레이의 OLED 생산량은 총 1,000만 장/년 이상일 것으로 기대. LGD를 중심으로 OLED 시장의 대중화가 가속화될 전망
 - (**#중소형**) 中 화웨이 스마트폰 '메이트30' 시리즈용 패널 납품 업체는 싱글벤더(삼성디스플레이)로 알려졌으나 9.16일 LG디스플레이도 듀얼벤더로 선정돼 OLED 패널을 공급할 전망
 - ※ 해당 물품은 전작('메이트20') 대비 난도가 높은 엣지 형태 6.7인치 OLED 패널
 - 한편 기존 화웨이 '메이트30' 패널 공급처로 발탁된 BOE는 수율(생산품 대비 결함 없는 제품 비율) 문제로 인해 패널 납품 업체에서 제외돼 눈길
 - (**삼성디스플레이**) 마찬가지로 실적 악화를 겪고 있지만 하반기 '갤럭시폴드', '아이폰11 PRO', '아이폰11 PRO MAX' 등의 출시로 중소형 OLED 수요가 늘어나면서 실적이 개선될 전망
- (**폴더블 디스플레이**) 국내 업체의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 등을 기점으로 폴더블 패널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업체들의 대전 예고
 - ※ '20년까지 약 19종의 폴더블 스마트폰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폴더블 패널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 기대
 - (**삼성디스플레이**) '갤럭시폴드'에 인폴딩 패널을 탑재 출시해 기술력을 과시. 스마트폰용 OLED에 이어 폴더블 분야에서도 시장 주도권을 선점해 나가는 분위기
 - (**BOE**) 수율문제로 화웨이 폴더블폰인 '메이트X' 출시가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화웨이가 'IFA2019'에서 출시 일정('19.10월)을 밝히며 BOE의 수율 문제가 일정 부분 해결된 것으로 분석. 폴더블 패널 시장 내 경쟁 구도가 한층 더 뚜렷해질 양상
 - (**TCL**) 'IFA2019'에서 자체 폴더블 디스플레이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폰, 태블릿 시제품을 선보여 주목. '20년부터 본격 출시할 것으로 전망
 - ※ 이외에도 비전옥스는 이미 샤오미에 폴더블 패널을 공급한 바 있고 LG디스플레이는 레노버에 노트북용 폴더블 패널을 납품 중인 상황

2) 수출 동향

□ 패널 시장은 부분품까지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역성장이 지속, 한편 OLED 수출 비중은 사상 최초로 50%대를 상회

- (품목별) 패널 수출 부진은 여전하지만 OLED의 수출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가 관측
 - (LCD 패널 : 6.7억 달러, △48.1%) 중국의 LCD 공급 과잉에 따른 수익성 악화, OLED 대체화 등으로 LCD 패널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위축 지속
 - (OLED : 11.8억 달러, △10.7%) 스마트폰 판매 감소로 OLED 패널 감소폭은 두 자릿수 대로 늘어났으나 전체 패널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
 - ※ 전체 패널 수출 중 OLED 패널 비중(% , IITP, KTSPI) : ('19.5월) 37.9 → (6월) 38.6 → (7월) 45.9 → (8월) 54.0
 - (패널 부분품 : 3.3억 달러, △8.4%) LCD 패널 감소폭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5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
- (지역별) 일본은 양호한 흐름이, 베트남·중국(홍콩포함)은 역성장이 지속되는 상황
 - 베트남(10.2억 달러, △12.0%)은 주 고객사의 완제품 판매 부진 영향으로 주력 품목인 OLED(8.4억 달러, △7.2%) 패널 수요가 둔화되면서 하락
 - 중국(홍콩포함, 9.7억 달러, △27.9%)은 미중 무역전쟁, 현지 시장 내 경쟁 심화로 OLED 패널(2.8억 달러, △18.2%)과 부분품(2.0억 달러, △7.5%) 수출이 반락하면서 감소세 지속
 - 일본(0.2억 달러, 17.1%↑)은 OLED 패널(△62.8%)이 하락 반전한 가운데 부분품(138.5%↑)이 크게 늘며 호조세가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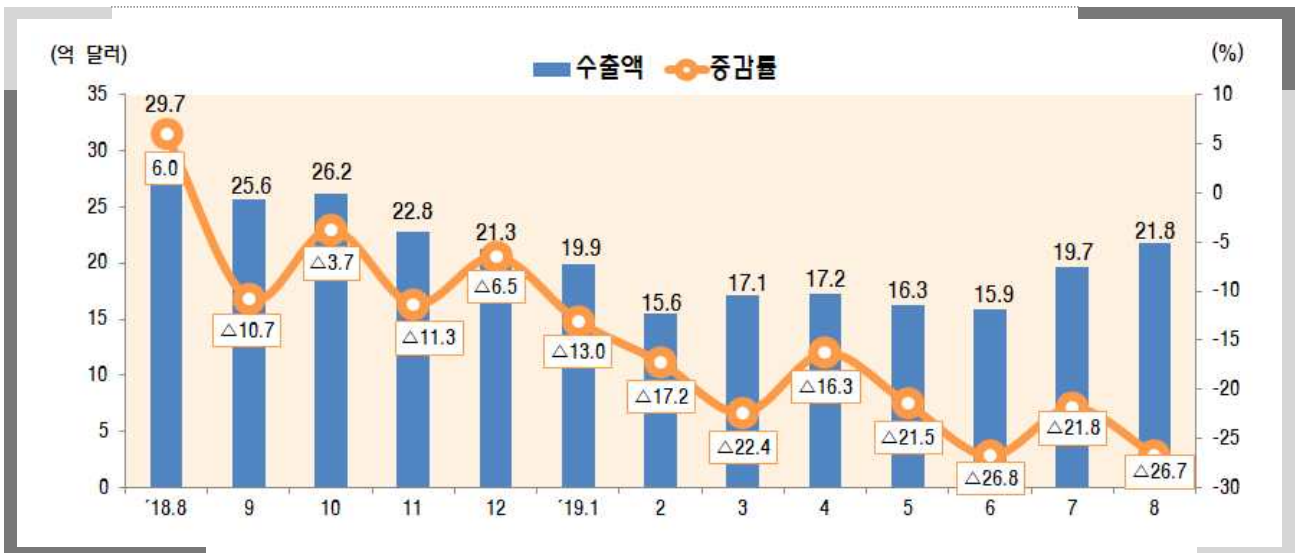
표 1-6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분	'18.8	9	10	11	12	'19.1	2	3	4	5	6	7	8
패널	29.7 (6.0)	25.6 (△10.7)	26.2 (△3.7)	22.8 (△11.3)	21.3 (△6.5)	19.9 (△13.0)	15.6 (△17.2)	17.1 (△22.4)	17.2 (△16.3)	16.3 (△21.5)	15.9 (△26.8)	19.7 (△21.8)	21.8 (△26.7)
LCD	12.9 (△19.0)	11.6 (△21.8)	11.5 (△10.9)	9.6 (△30.5)	9.6 (△20.1)	8.6 (△31.6)	6.7 (△35.6)	7.3 (△37.0)	7.0 (△35.9)	7.0 (△40.4)	6.6 (△43.3)	7.2 (△42.2)	6.7 (△48.1)
OLED	13.2 (53.8)	10.8 (6.7)	11.0 (△2.2)	10.0 (13.4)	8.7 (12.6)	8.0 (12.8)	6.2 (7.9)	6.9 (△7.0)	7.2 (7.9)	6.2 (3.7)	6.1 (△12.5)	9.0 (△5.9)	11.8 (△10.7)
부분품	3.6 (3.4)	3.3 (△14.0)	3.7 (20.6)	3.2 (3.6)	3.0 (△0.8)	3.3 (2.8)	2.7 (△0.6)	2.9 (△4.3)	3.1 (1.9)	3.1 (2.6)	3.1 (4.8)	3.5 (9.8)	3.3 (△8.4)

자료 : IITP, KTSPI

그림 1-5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1-7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상위 10대 국가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대비)

구분	2018년				2019년						
					8월 당월				1~8월 누적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1	중국	135.1	-20.9	48.7	베트남	10.2	-12.0	46.8	50.7	-8.4	35.3
2	베트남	95.0	22.3	34.2	중국	9.2	-28.2	42.4	74.1	-20.5	51.6
3	멕시코	11.0	-23.0	4.0	홍콩	0.5	-20.7	2.2	3.2	-26.5	2.2
4	홍콩	6.2	-23.0	2.2	멕시코	0.3	-85.1	1.3	2.6	-68.5	1.8
5	폴란드	5.1	-10.5	1.8	폴란드	0.2	-64.3	1.1	1.4	-59.4	1.0
6	슬로바키아	3.9	0.9	1.4	미국	0.2	-33.6	0.9	1.6	-0.6	1.1
7	미국	2.3	19.9	0.8	일본	0.2	17.1	0.8	1.8	77.3	1.3
8	일본	1.9	20.5	0.7	체코	0.1	80.6	0.6	0.6	-22.0	0.4
9	헝가리	1.9	93.5	0.7	슬로바키아	0.1	-71.4	0.4	1.0	-66.3	0.7
10	터키	1.5	8.5	0.6	대만	0.1	-9.7	0.4	0.6	-24.0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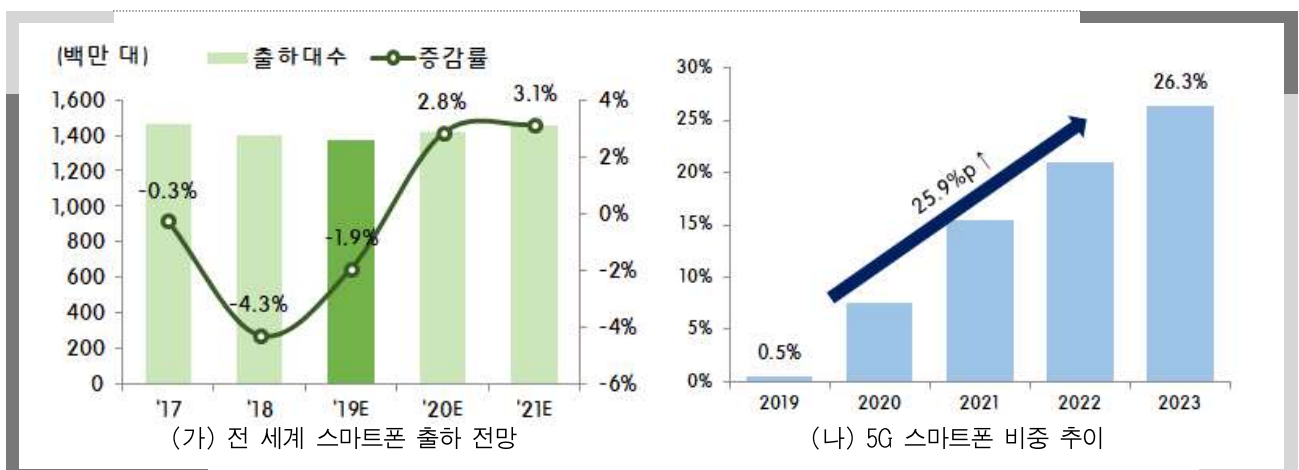
자료 : IITP, KTSPI

1) 수출 환경

□ 스마트폰 시장은 '19년 감소폭 둔화에 이어 '20년 성장세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

- (시장 전망) 올해 스마트폰 출하대수는 13.8억 대로 전년대비 소폭 하락해 3년 연속 역성장하나 새로운 폼팩터가 적용된 제품 출시로 하락폭은 둔화될 전망(IDC, '19.6월)
 - '19년 스마트폰 시장은 높은 가격, 스마트폰 교체 주기 증가와 더불어 미국의 중국 제재에 대한 불안 등으로 수요가 감소하며 3년 연속 하락세 지속
 - ※ 스마트폰 교체주기는 '14년 23개월에서 '18년 31개월로 증가, '19년 33개월까지 확대 전망(베이스트리트리서치)
 - 그러나 세트 업체들의 멀티·3D 카메라, 폴더블 디스플레이 등 폼팩터 변화와 함께 차세대(5G) 통신 서비스용 5G폰 출시로 신규 수요를 창출하며 감소폭은 둔화될 전망('18년 $\Delta 3.1\%$ →'19년 $\Delta 1.9\%$)
 - '19년 5G 스마트폰은 국내 및 중국 업체를 중심으로 초기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시작되고 있으나 애플의 5G 아이폰 출시지연으로 공급 모델 종류가 제한적이며, 5G 통신망 구축도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어 전체 스마트폰 시장을 견인할 정도의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
 - 하지만 '20.하반기 이후 5G 하드웨어 서비스의 범위와 가용성 개선으로 본격적인 판매량 증가가 예상되면서 감소세를 이어 온 스마트폰 시장은 '20년에 2.8% 성장 반전할 것으로 기대
 - ※ 5G 스마트폰은 '19년 높은 출고가, 시장 초기 콘텐츠 및 인프라 부족 등으로 전체 스마트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에 불과하나 지속적으로 증가해 '23년엔 26.3%까지 확대될 전망(IDC, '19.6월)

그림 1-6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 전망 및 5G 스마트폰 비중 추이



자료 : IDC, 2019.6.

□ 주요 업체의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이 잇따라 공개 및 출시되면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

- 국내 업체는 다양한 폼팩터 및 라인업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며 특히 삼성 전자는 최초의 폴더블폰인 ‘갤럭시폴드’ 출시로 주목
 - (삼성전자) '19.8월 출시된 ‘갤럭시노트10’에 이어 '19.9월 ‘갤럭시폴드’를 출시하며 선점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 더불어 중저가 5G폰 ‘갤럭시A90’을 공개하며 다양한 5G 라인업 확보
 - (LG전자) 듀얼스크린 기능이 강화된 ‘V50S씽큐’(해외모델 ‘G8X’)를 9.5일 공개하며 하반기 시장 공략
- 해외 업체도 신제품을 출시했으나, 미국 제재에 따른 구글 앱 사용 불가(화웨이), 혁신 부재(애플) 등으로 수요가 둔화된 스마트폰 시장 불황을 타개하기에는 역부족일 전망
 - (애플) ‘아이폰11’을 가격 인하해 출시(9.20.)했으나 혁신성 부족 등 판매 호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
 - (화웨이) 9.19일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메이트30시리즈’를 전격 공개. 하지만 미국의 거래중단 제재로 구글 앱을 지원하지 않아 해외 시장에서 적지 않은 타격이 우려

표 1-8 주요 스마트폰 업체별 하반기 전략

업체별	내용
 SAMSUNG 삼성전자	• 최초 폴더블폰 ‘갤럭시폴드’ 출시. 국내외에서 초도 물량이 완판되며 흥행 기대 - 9.6일 국내를 시작으로 18일 영국·프랑스·독일·싱가포르, 27일 미국 등 약 20개국에서 한정 판매 - 출고가는 국내 기준 약 240만 원으로 고가이나 2차(1차 3,000대, 2차 약 1만 대)에 걸친 예약판매 매진. 18일 영국·프랑스·독일·싱가포르에서도 오전 중 매진되는 등 연이어 조기판매가 이뤄지며 흥행이 기대 ※ ‘갤럭시폴드’는 당초 연간 100만 대 판매가 예상됐으나, 특정 부품의 수급난과 출시 연기 등으로 40만 대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카운터포인트리서치) • 출고가 80만 원대인 중저가 5G 스마트폰 ‘갤럭시A90’ 출시. 합리적인 단말 가격으로 5G 하방 확장성을 강화 - 보급형에서 초프리미엄 모델로 이어지는 5G 라인업을 완성해 다양한 가격대별 5G 가입자 확대를 촉진 • 8.23일 출시된 ‘갤럭시노트10 시리즈’ 국내 판매량이 9.16일 기준 100만 대를 판매, 최단 기간을 기록 - ‘갤럭시노트10’은 연내 글로벌 판매량 1,000만 대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5G 모델로만 선보인 국내와 달리 해외 시장에서는 LTE 모델과 5G 모델을 병행 출시하며 다양한 시장 수요에 대응
 LG전자	• ‘19.9.5일 독일에서 개최된 유럽 가전전시회(IFA)에서 ‘V50S 씽큐’를 공개했으며 10월 출시 전망 - 전작인 ‘V50 씽큐’가 ‘듀얼 스크린’으로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면서 ‘V50S 씽큐’도 듀얼 스크린 성능 및 전면 카메라 기능을 강화했으며 출고가는 110~120만 원에 책정될 것으로 예상
 Apple	• ‘아이폰11시리즈’가 OLED 모델 2개(아이폰11프로, 아이폰11프로맥스), LCD 모델 1개(아이폰11) 등 총 3개의 모델로 공개(9.10일)됐으며 달라진 스마트폰 판매 전략으로 주목 - AP, D램 등 성능이 업그레이드됐으며 OLED 모델에는 트리플 카메라가 탑재돼 향상된 스펙 향상에 주목 - 화면 크기는 기존과 동일하며 외관상 보이는 폼팩터 변화도 카메라에 한정돼 있어 혁신이 없다는 평가 - 그러나 ‘아이폰11프로’와 ‘아이폰11프로맥스’는 각각 999달러, 1099달러로 전작과 동일한 가격을 유지한 반면 ‘아이폰11’은 전작인 ‘아이폰XR’(749달러)보다 낮은 699달러로 책정하며 중저가 수요를 공략
 HUAWEI	• 9.19일 신제품 발표행사를 열고 ‘메이트30시리즈’ 3종(‘메이트30’·‘메이트30프로’·‘메이트30RS’ 등)을 공개 - 세계 최초로 5G 시스템온칩(SoC)을 탑재해 5G 단독모드와 비단독모드를 모두 지원하며 후면에는 원형 디자인의 쿼드·트리플 카메라가 장착되는 등 향상된 하드웨어를 강조 - 이처럼 ‘메이트30’의 성능이 전작보다 업그레이드됐지만, 안드로이드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개발한 운영체제로 인해 구글 서비스와 앱을 지원하지 않아 해외 판매에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 ※ 이번 스마트폰에서 유튜브가 재생이 안 되는 것은 물론 구글 지도와 메일, 앱 스토어 사용이 불가 • 10월 폴더블폰 ‘메이트X’를 출시할 전망. 삼성전자 ‘갤럭시폴드’와 폴더블폰 정면대결이 예상

자료 : 각 사 / 언론 보도 자료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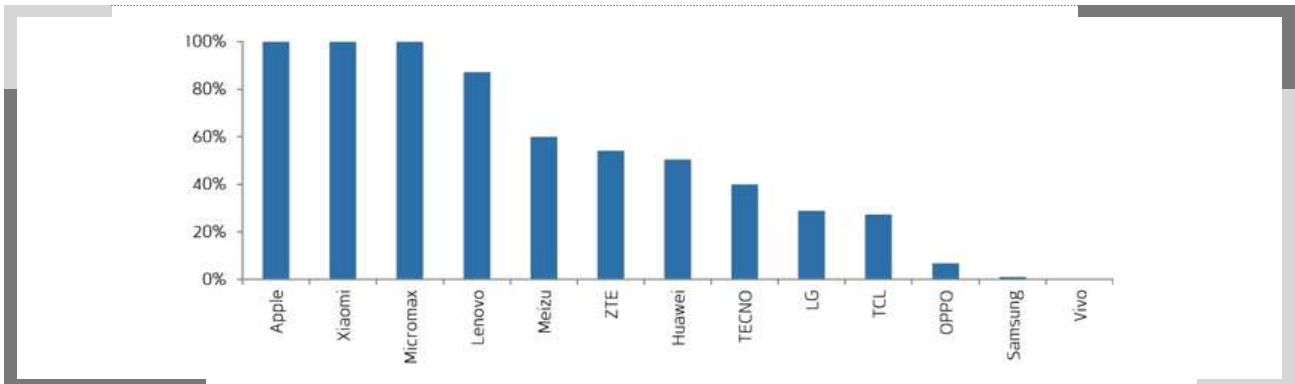
□ 국내 스마트폰 생산 업체의 ODM⁵⁾ 도입 확대로 국내 부품업체는 실적 감소가 우려

- 삼성전자는 수익성 확보를 위해 130달러 이하의 저가제품에 대해 ODM 도입을 늘릴 전망
 - '18.9월 삼성전자는 중국 왕테크⁶⁾와 ODM 제휴를 맺고 '18.10월 처음으로 ODM 모델인 '갤럭시 A6s'(출고가 30만 원대)를 중국 시장에 출시했으며 향후 중국·인도·동남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A라인 파생 모델 'A10S'도 ODM 방식으로 출시할 계획
 - 삼성전자는 '19.7월 세계 2위 ODM 사업자인 화진텔레콤과 추가로 ODM 파트너십을 체결했으며, '19년에 'A시리즈' 최하위 모델을 시작으로 '20년 'M시리즈'까지 출시 모델을 확대할 것으로 예측
 - ※ 고동진 삼성전자 IM부문장은 8.7일 뉴욕 기자간담회에서 온라인 전용 모델과 130달러 이하 모델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기는 어려워 기존 충족시 ODM을 일정 부분 하는 것이 맞다고 ODM 확대 의향을 언급
 - 삼성전자 ODM 스마트폰은 지난해 말부터 300만 대가 출시됐으며, 올해 3,000~4,000만 대, 내년에는 1억 대 수준으로 생산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ODM 비중은 지난해 3%에서 올해 8%, 내년 20%까지 늘어날 전망(IHS마켓)
 - 한편 일각에서는 ODM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요 부품 선정에 관여하는 절충된 ODM 형태의 JDM(합작개발생산)을 추진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관측
- LG전자도 스마트폰 적자 축소 및 사업 구조 효율화를 위해 ODM을 활용할 예정
 - LG전자는 삼성전자보다 먼저 ODM 전략을 도입해 이미 왕테크·화진텔레콤과 파트너십을 구축했으며 인도 전용 10만 원대 초저가 스마트폰 'W10'('19.6월 출시)·'W30'('19.7월)를 ODM으로 제작
 - LG전자는 현재 FIH 모바일, 왕테크, 아리마, 윈드 등과 협력 중이며 베트남 생산 체제가 정착되는 내년에는 스마트폰 생산량의 30% 이상을 ODM에 의존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
 -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스마트폰 업체의 물량 공세에 맞서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는 원가 절감을 통해 저가 스마트폰 수요가 많은 중국·인도 등 신흥 시장에서 약진을 노리는 전략을 추진
- 국내 업체의 ODM 확대에 따라 국내 부품 업체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 100달러 미만의 초저가 스마트폰 7,000만 대 정도가 ODM 전환 대상이라고 가정할 경우, 국내 부품 업체 손실분은 약 3.4조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화리서치, '19.9월)
 - ODM 물량이 늘어날수록 출하량 모멘텀이 제한적일 것이고, JDM에 참여하더라도 재료비 원가 확보를 위해 부품 판가 인하가 불가피해 국내 부품업체에는 부담이 될 전망
 - 특히 삼성전자와 함께 베트남에 동반 진출한 기업의 경우 삼성전자의 ODM 물량 증가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측

5) ODM(제조자개발생산)은 설계부터 디자인, 부품조달, 조립·생산까지 모두 하청 업체에 위탁하는 방식

6) 왕테크는 연간 9,000만 대의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중국 최대 ODM 전문 업체

그림 1-7 |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별 외주 생산 비중



자료 : Gartner, 키움증권

2) 수출 동향

□ 휴대폰 수출은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4개월 만에 10억 달러대를 회복

- **(품목별)** '19.8월 휴대폰 수출(10.6억 달러, △18.2%)은 스마트폰 시장 성장 둔화, 현지 생산 및 부품품 현지 조달이 늘어나면서 13개월 연속 하락했으나 감소폭은 축소
 - (휴대폰 완제품 : 3.3억 달러, △35.0%) 하반기 신규 스마트폰 출시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시장 성장 둔화, 글로벌 경쟁 심화 등 어려운 수출 여건 속에 국내업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산 라인을 해외로 이전하면서 완제품 수출은 4개월 연속 하락세 지속
 - ※ LG전자는 '19.2분기부터 경기도 평택 등 스마트폰 공장을 베트남 하이퐁으로 이전,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10월 출시될 'V50S 씽큐'도 하이퐁 공장에서 생산될 전망
 - (휴대폰 부품품 : 7.3억 달러, △7.1%) 원가절감 등을 위한 국내 부품업체의 해외진출 증가, 중국 등 후발 부품업체의 수주 증가 등으로 19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나 감소폭은 한 자릿수로 축소
- **(지역별)** 해외 생산 거점인 베트남은 증가했으나 프리미엄 시장인 미국 및 중국 등은 감소
 - 중국(홍콩포함, 3.7억 달러, △18.2%)은 현지 업체의 시장 장악력 확대 등 어려운 시장 여건 속에 국내 업체의 생산라인 축소(삼성전자 '18.12월 텐진 생산라인 중단), eMMC·커버·안테나 등 부품품과 완제품 모두 부진하며 '18.2월 이후 19개월간 감소세를 지속
 - 완제품 최대 수출국인 미국(2.8억 달러, △31.8%)은 5G 신제품 및 플렉시블 모델 출시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등 해외 완제품 생산이 증가하면서 완제품(△32.8%)과 부품품(△17.8%)이 동반 부진
 - 최대 생산 거점인 베트남(2.6억 달러, 21.9% ↑)은 멀티 카메라 탑재 확대에 따른 커넥터·패널·카메라 모듈 등 부품품(21.6% ↑)과 완제품(94.2% ↑)이 동반 증가하면서 5개월 연속 증가
 - 콜롬비아는 PCB·커버 등 부품 중심으로 '18.10월 이후 12개월간 세 자릿수 이상의 급성장세 지속했으며 라오스는 완제품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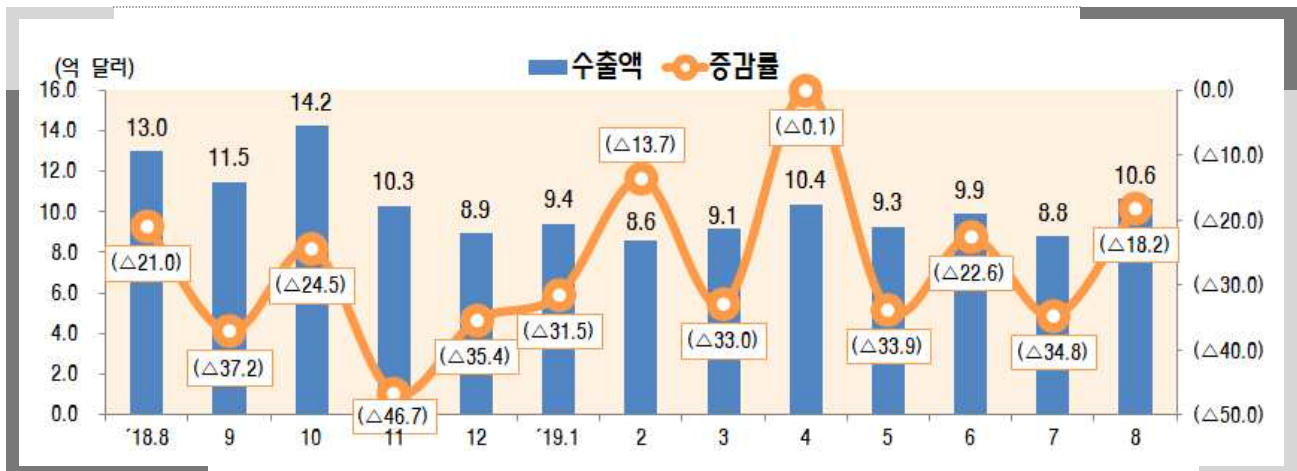
표 1-9 휴대폰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대비)

구분	'18.8	9	10	11	12	'19.1	2	3	4	5	6	7	8
휴대 단말기	13.0 (△21.0)	11.5 (△37.2)	14.2 (△24.5)	10.3 (△46.7)	8.9 (△35.4)	9.4 (△31.5)	8.6 (△13.7)	9.1 (△33.0)	10.4 (△0.1)	9.3 (△33.9)	9.9 (△22.6)	8.8 (△34.8)	10.6 (△18.2)
완제품	5.1 (△15.4)	4.1 (△36.8)	6.1 (△19.4)	4.5 (△43.9)	3.9 (△5.0)	4.3 (10.9)	4.6 (31.4)	4.0 (△38.7)	5.3 (43.9)	4.0 (△41.3)	4.9 (△27.2)	3.2 (△49.7)	3.3 (△35.0)
부분품	7.8 (△24.3)	7.4 (△37.5)	8.2 (△27.8)	5.8 (△48.7)	5.0 (△48.3)	5.2 (△48.0)	4.0 (△38.3)	5.1 (△27.7)	5.0 (△24.4)	5.2 (△26.7)	5.0 (△17.6)	5.6 (△21.6)	7.3 (△7.1)

자료 : IITP, KTSPi

그림 1-8 휴대폰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1-10 휴대폰 수출 상위 10대 국가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대비)

구분	2018년 연간				2019년						
					8월 당월				1~8월 누적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1	미국	50.5	-10.0	34.6	중국	3.5	-18.5	32.7	13.7	-50.6	18.0
2	중국	39.3	-36.7	26.9	미국	2.8	-31.8	26.3	27.2	-23.0	35.7
3	베트남	25.1	-23.1	17.2	베트남	2.6	21.9	24.0	17.9	3.5	23.5
4	캐나다	6.4	200.1	4.4	콜롬비아	0.3	35,562.8	2.9	2.1	32,395.7	2.7
5	홍콩	3.6	-41.6	2.5	캐나다	0.3	-63.2	2.8	3.2	-15.9	4.1
6	일본	2.8	-11.7	1.9	홍콩	0.3	-13.9	2.4	2.3	-10.2	3.0
7	독일	2.7	20.1	1.8	일본	0.1	-34.9	1.2	1.0	-53.5	1.3
8	브라질	2.5	-56.7	1.7	라오스	0.1	23,484.5	0.8	0.1	4,671.5	0.1
9	콜롬비아	1.9	883.9	1.3	멕시코	0.1	-37.0	0.8	0.7	-2.7	0.9
10	인도	1.5	-58.3	1.0	브라질	0.1	-66.7	0.8	0.7	-63.6	0.9

자료 : IITP, KTS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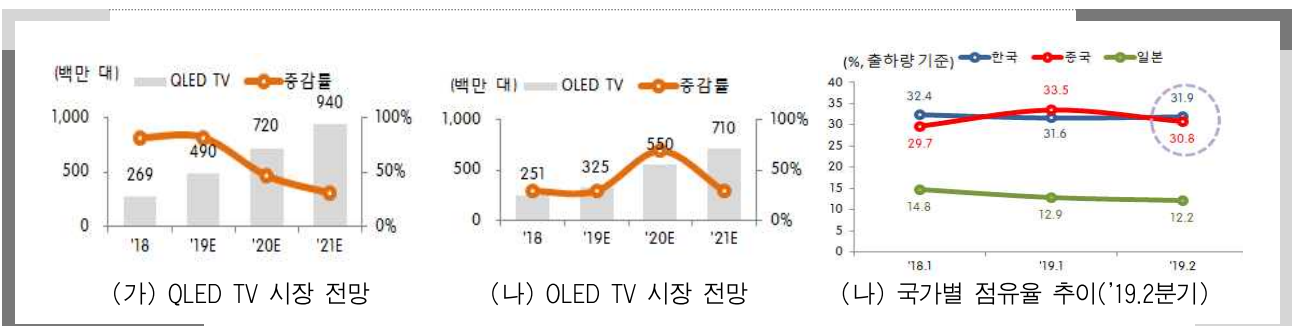
5 D-TV

1) 수출 환경

□ TV 시장은 전년 수준을 유지...대형화·프리미엄 제품 수요도 양호한 흐름이 지속될 전망

- (시장 전망) '19년 글로벌 TV 출하량은 지난해와 비슷한 2억 2,000만 대로 예상되는 가운데 프리미엄 라인 QLED TV(490만 대, 82%↑), OLED TV(325만 대, 29%↑)도 견조세가 유지될 전망
 - (QLED TV) 대형화 전략, 가격 경쟁력, 수출·생산 효율성 등으로 우위를 선점한 QLED TV 출하량은 '19년 490만 대 → '20년 720만 대 → '21년 940만 대로 늘어날 전망
 - (OLED TV) 후방 산업인 OLED 패널의 생산 가능 물량이 늘어나면서 OLED TV 출하량도 '19년 325만 대 → '20년 550만 대 → '22년 935만 대 수준까지 늘어날 전망
 - 한편 OLED TV는 70인치 이상이 단 2%('19.상반기, 출하량 기준)인 반면 QLED TV는 75인치 이상이 14%를 차지해 초대형 TV 시장에서 QLED TV가 압도적인 모습(동아일보, 9.23일 원소스 IHS)
- (경쟁 현황) '19.2분기 시장 점유율(매출 기준)은 삼성전자(31.5%), LG전자(16.5%), 소니(8.8%), TCL(6.3%), 하이센스(6.2%)등 순으로 차지(매일경제, 9.8일, 원소스 IHS)
 - 75인치 이상 초대형 TV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53.9%)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1위를 유지했고 소니(19.0%), LG전자(16.2%) 순으로 상위권 형성(매경이코노미, 9.16일, 원소스 IHS)
 - 2,500달러 이상 프리미엄 TV 시장에서도 삼성전자(53.8%)가 소니(24.5%)·LG전자(17.8%)를 크게 앞서며 1위를 수성(매일경제, 9.8일, 원소스 IHS)
 - (국가별) 한국은 중국의 저가물량공세에 대응한 프리미엄 전략으로 '19.2분기 시장 점유율 31.9%를 차지하며 1위를 탈환. 한국을 꺾고 사상 처음으로 글로벌 TV 출하량 1위('19.1분기)에 올랐던 중국은 2분기에 30.8%로 하락하며 다시 2위를 기록

그림 1-9 QLED·OLED TV 시장 전망 및 국가별 점유율 추이



자료 : 한국경제, 8.29. / 중앙일보, 8.30. (원소스 IHS) / 중앙일보, 8.22. (원소스 IHS)



□ (IFA 2019) 8K TV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하면서 업체들의 경쟁도 과열되는 양상

- ‘CES2019(’19.1월)’가 8K TV 시장 포문을 여는 분위기였다면 ‘IFA2019(9.6~11일)’는 8K TV 시장 주도권 쟁탈전이 본격화되는 분위기
 - ’18년 글로벌 8K TV 판매량이 2만 대를 하회한 1.8만 대 수준에 그쳤으나 시장이 확대되면서 ’19년 21.5만 대→’23년 375만 대로 대폭 성장할 전망(서울경제, 9.3일, 원소스 IHS)
- (국내 업체) 8K TV 마케팅 로드맵(보급 확대 vs 프리미엄)을 제시하며 선점 경쟁 격화
 - (삼성전자) 8K TV 기술 과시보다는 ‘대중화’를 목표로 55인치 8K QLED TV를 전면 전시. 55·65·75·82·85·98인치의 다양한 8K TV 풀라인업으로 보급 확대에 집중하겠다는 의지
 - (LG전자) ‘프리미엄’을 목표로 88인치 8K OLED TV, 75인치 8K 나노셀 울트라 TV를 전면에 전시. 행사 종료 후 전 세계 10여 개국(독일, 프랑스, 미국 등)에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
- 한편 국내 업체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8K TV 화질’ 진위여부를 두고 소송 진행(9.20일)
 - ※ 아직까지 8K 화질에 대한 정의 및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양측은 갈등 중인 상황
 - (LG전자) ‘8K 및 올레드 기술’ 설명회를 개최(9.17일)해 8K QLED TV는 국제디스플레이계측위원회(ICDM)의 기준 요건에서 화소 수만 충족했을 뿐 화질 선명도(CM)⁷⁾ 기준(1×1 그릴 패턴 기준 최소 50%)으로는 12%에 불과해 8K라 명명할 수 없다고 강조
 - CES를 주관하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도 CM 50% 이상이 8K라 정의하며 LG측 의견에 동의
 - ※ 이에 삼성전자는 CTA는 인증기관이 아닌 ‘인증 로고’를 주는 협회이고 ‘CM’ 값은 시대에 뒤떨어진 기준이라 주장
 - (삼성전자) 동일한 날 ‘8K 화질 설명회’를 마찬가지로 개최해 CM이라는 특정 기준으로만 8K 기술을 설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
 - CM 이외에도 광학적 요소(화소수, 밝기 등), 영상 처리 기술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쟁사 TV와 ‘화질 비교’를 시연
 - ※ LG전자의 8K OLED TV는 정작 8K 콘텐츠를 시행 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화면이 깨지는 현상이 발생해 이 점을 지적하며 8K TV는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근거 보충
- (글로벌 업체) 스포츠 이벤트를 겨냥해 5G와 연동한 8K TV를 잇따라 전시
 - (샤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5G 통신 모뎀을 결합한 세계 최초 120인치인 8K LCD TV를 전시
 - (TCL) ’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맞춰 8K 방송 상용화를 추진 중인 상황 속 8K 65·75·85인치 QLED TV(’20년 초 출시 예정)를 전시. 5G 모뎀이 탑재돼 8K 콘텐츠 실시간 스트리밍이 가능
 - 이외에도 주요 기업(‘하이센스’ 85인치 8K ULED TV, ‘스카이워스’ 120인치 8K LED TV, ‘콘카’ 98인치 8K LED TV)이 다양한 8K 제품을 전시하면서 8K 시장 경쟁은 더욱 가열될 전망

7) 디스플레이가 흰색과 검은색을 대비했을 때 얼마나 선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지 백분율로 나타낸 값. 값이 높을수록 선명하다는 의미

2) 수출 동향

□ 완제품 부진·부분품 성장 기조 속에 전체 수출은 2.6억 달러(109.3%↑)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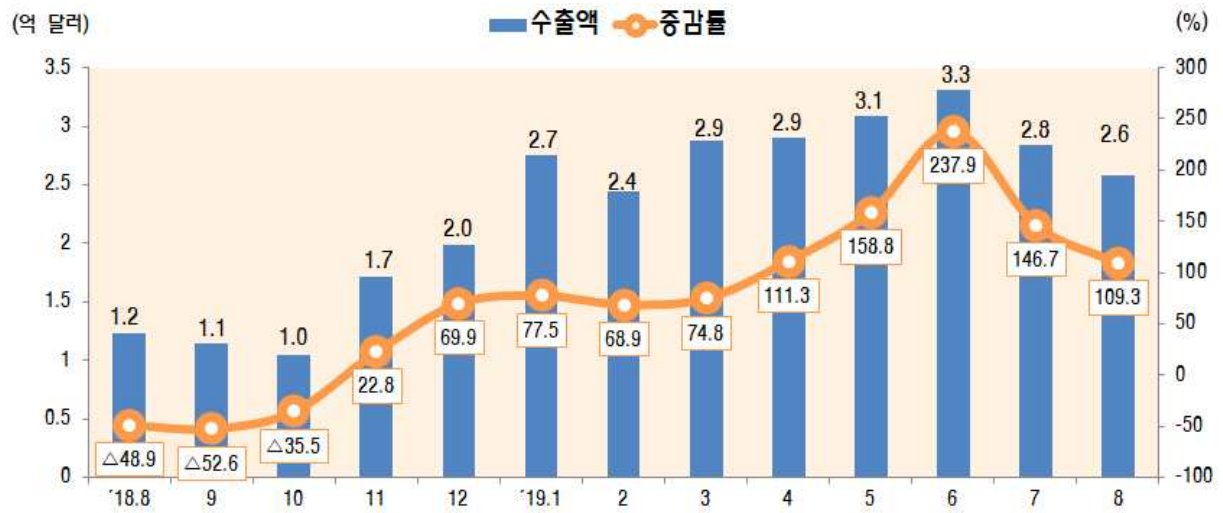
- **(품목별)** 완제품(LCD·OLED TV)은 하락 국면인 반면, 부분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나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전체 TV 수출 성장을 주도
 - (LCD TV : 0.3억 달러, △0.2%) UAE·사우디아라비아 등의 가팔랐던 수출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고 이스라엘(△30.0%)로의 수출도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하락 반전
 - ※ LCD TV 수출 증감률(%), IITP, KTSPI, '19.7월→'19.8월) : UAE(890.6↑→319.9↑), 사우디(61.7↑→38.5↑)
 - (OLED TV : 0.1억 달러, △31.3%) 주력 수출국인 일본(△4.9%)이 하락 반전하면서 OLED TV 수출 하락폭도 두 자릿수 대로 확대
 - (부분품 : 2.2억 달러, 162.0%↑) 9개월 연속 세 자릿수 대 성장률을 유지하며 2억 달러를 상회
- **(지역별)** 주요 해외 생산 거점(멕시코·베트남·헝가리 등)을 중심으로 수출 호조
 - 프리미엄 북미 시장의 생산 거점 멕시코(0.8억 달러, 180.3%↑)는 TV 판매 성수기인 '18.11월부터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18.12월 이후부터는 세 자릿수 대 성장률을 유지
 - 베트남(0.3억 달러, 471.9%↑)도 '18.12월부터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19.1월 이후부터 세 자릿수 대 성장률을 유지. 수출 비중도 확대돼 10%대를 2개월 연속 지속
 - ※ 베트남 수출 비중 추이 (%), IITP, KTSPI) : ('19.5월) 7.1 → (6월) 9.4 → (7월) 13.2 → (8월) 12.3
 - 유럽 시장 생산 거점 헝가리(0.2억 달러, 3,869.8%↑)는 8K TV 등 신제품 출시를 위해 부분품 수요가 확대되면서 네 자릿수 대 이상의 성장률을 8개월 연속 기록

표 1-11 | D-TV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대비)

구분	'18.8	9	10	11	12	'19.1	2	3	4	5	6	7	8
D-TV	1.2 (△48.9)	1.1 (△52.6)	1.0 (△35.5)	1.7 (22.8)	2.0 (69.9)	2.7 (77.5)	2.4 (68.9)	2.9 (74.8)	2.9 (111.3)	3.1 (158.8)	3.3 (237.9)	2.8 (146.7)	2.6 (109.3)
LCD TV	0.3 (△34.7)	0.2 (△56.9)	0.2 (△43.2)	0.2 (△64.1)	0.2 (△60.3)	0.3 (△41.8)	0.3 (△48.7)	0.4 (△33.2)	0.4 (△21.3)	0.3 (△13.9)	0.3 (△20.1)	0.3 (7.0)	0.3 (△0.2)
OLED TV	0.1 (△49.4)	0.2 (△20.1)	0.1 (△26.0)	0.1 (△17.6)	0.1 (△40.8)	0.1 (△51.3)	0.1 (△35.4)	0.1 (△50.0)	0.1 (△24.8)	0.1 (△58.7)	0.1 (△27.0)	0.1 (△8.8)	0.1 (△31.3)
부분품	0.8 (△52.7)	0.7 (△56.2)	0.7 (△34.6)	1.4 (87.9)	1.7 (172.2)	2.3 (187.5)	2.0 (210.0)	2.3 (193.2)	2.4 (241.3)	2.7 (352.7)	3.0 (453.7)	2.5 (211.4)	2.2 (162.0)

자료 : IITP, KTSPI

그림 1-10 D-TV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1-12 D-TV 수출 상위 10대 국가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대비)

구분	2018년 연간				2019년						
					8월 당월				1~8월 누적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1	멕시코	2.4	-31.8	14.4	멕시코	0.8	180.3	29.2	6.9	366.3	30.5
2	중국	1.7	4.7	10.2	베트남	0.3	471.9	12.3	2.2	423.9	9.6
3	폴란드	1.2	-14.3	7.1	브라질	0.3	400.0	9.8	1.9	499.4	8.4
4	아랍 에미리트연합	1.1	-48.0	6.9	헝가리	0.2	3,869.8	6.5	1.5	5,544.0	6.5
5	미국	1.0	-16.5	6.3	중국	0.2	348.9	6.0	2.1	373.8	9.3
6	일본	0.7	27.3	4.4	폴란드	0.1	-16.7	4.5	0.8	6.0	3.4
7	이스라엘	0.7	47.5	4.1	이집트	0.1	380.4	3.8	1.0	205.8	4.6
8	베트남	0.6	-50.8	3.8	아랍 에미리트연합	0.1	274.9	3.8	0.5	-56.6	2.0
9	호주	0.6	-47.1	3.7	러시아연방	0.1	8.5	2.3	0.3	18.8	1.3
10	브라질	0.5	-54.8	3.3	미국	0.0	-49.2	1.9	0.5	-16.5	2.3

자료 : IITP, KTS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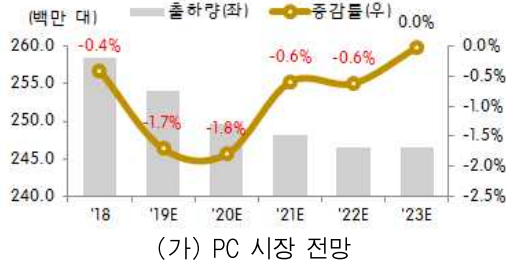
6 컴퓨터 및 주변기기

1) 수출 환경

□ PC 시장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으나 업체들은 크리에이터를 겨냥한 모바일 워크스테이션 신제품 등을 선보이면서 PC 업계의 분위기 전환을 도모

- (시장 전망) 올해 글로벌 PC 출하량은 전년 동기대비 1.7% 감소한 2억 5,413만 대로 역성장이 지속될 전망(IDC, '19.6월)
 - '19년 데스크톱 PC(워크스테이션 포함, 8,914만 대, △4.3%)와 노트북(1억 6,570만 대, △0.3%)은 개인 소비자용 제품 부문에서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업체들은 기업용 PC에 집중
 - (Dell) '델 테크놀로지스 포럼 2019'에서 기존 본체를 모니터 스탠드 공간에 장착해 폼팩터 변화를 준 '델 옵티플렉스 7070 울트라(Dell OptiPlex 7070 Ultra)' PC를 공개(8.28일)
 - 데스크톱이 모니터 스탠드 내부 공간에 탑재되면서 업무 공간 절약이 가능. 또한 모니터와 데스크톱을 각각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모듈형 PC로 기업의 니즈에 가장 적합할 것으로 예상
- 업체들은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유럽 최대 국제가전박람회 'IFA 2019'에서 노트북 신제품을 공개
 - (Lenovo) 아테나 프로젝트 인증 제품인 '요가(YAGA)' 노트북 시리즈(요가 C940, 요가 S740, 요가 C640)를 공개. 소비자들의 가장 큰 불만이었던 디스플레이 및 배터리 지속 시간, 성능 등을 향상
 - ※ 인공지능 작동 시 배터리 수명을 상당히 증가시킬 수 있는 Q-Control 등의 스마트 기능이 적용. 배터리 수명이 20% 이상 늘어나 최대 20시간가량 노트북 사용이 가능하고 15분 충전만으로도 최대 2시간가량 사용 가능
 - (Acer) 세계에서 가장 가벼운 990g인 14인치 노트북 '스위프트 5'를 공개. 10세대 CPU가 탑재돼 무게와 성능을 동시에 충족한 제품. 배터리도 최대 12.5시간, 30분 충전으로도 최대 4.5시간 사용 가능
- 특히 약 1억 3,000만 명에 이르는 크리에이터를 중요한 고객으로 보고 이를 겨냥한 '모바일 워크스테이션' 제품군에 집중
 - (Acer) 장시간 작업이 가능하도록 긴 배터리 수명을 제공하면서도 고성능을 구현하기 위해 '엔비디아 쿼트로 그래픽 카드(GPU)'가 탑재된 크리에이터 노트북 '컨셉D' 시리즈 최신 모델을 발표
 - (ASUS) 전문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모바일 워크스테이션 '에이수스 프로아트 스튜디오북 윈'을 공개. 세계 최초로 '엔비디아 쿼트로 RTX 6000⁸⁾'을 탑재해 8K 비디오 실시간 편집 등이 가능
 - (Lenovo) 인텔 10세대 CPU를 탑재한 '썬크패드' 시리즈 신제품을 공개. 멀티태스킹이 가능해 생산성이 높고 LTE-A 모듈을 탑재해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 가능한 점 등이 특징

8) 3D 애니메이션 생성, 실제적인 제품 설계 렌더링, VR을 통한 실제적인 건물 설계 시연 등의 대량의 데이터셋을 사용하는 고사양 작업을 데스크톱이 아닌 워크스테이션으로도 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부품

그림 1-11 PC 시장 전망 및 DELL의 PC 신제품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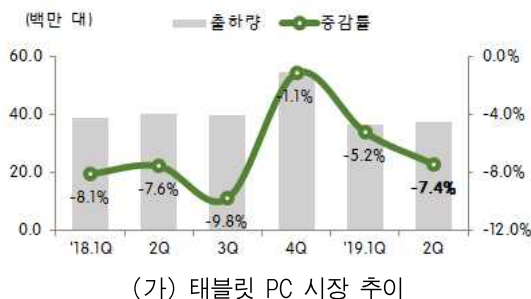
(가) PC 시장 전망



(나) Dell '옵티플렉스 7070 울트라'

자료 : IDC, 2019.6. / 언론 자료 인용

- **(태블릿 PC)** '19.4월 신제품 출시로 시장 내 활력을 기대했으나 역부족인 상황. '19.2분기 (약 3,740만 대, △7.4%)도 하락세 지속 관측(SA, '19.8월)
 - 노트북 및 컨버터블 PC(노트북을 기반으로 키보드와 디스플레이 분리가 가능) 품팩터 선호도가 증가하면서 태블릿 PC의 시장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업체들은 인공지능 탑재 및 자유도를 향상시킨 신제품 출시를 지속
 - (Lenovo) 구글 어시스턴트를 적용한 태블릿(요가 스마트 탭, 스마트 탭 M8)을 공개(9.10일). 580g에 스탠드형으로도 사용 가능해 휴대성이 높고 FHD 해상도(1,920 × 1,200)도 지원
 -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돼 태블릿 자체만으로도 스마트 홈 허브 역할이 가능
 - (Apple) 기존보다 넓어진 10.2인치 아이패드 7세대를 공개. 480g에 2,160 × 1,620 해상도 지원(9.10일)
 - 기존 화면 반을 차지했던 터치형 키보드를 작게 줄여 화면 내 원하는 위치로 옮겨 입력 가능한 플로팅 키보드 기능이 도입돼 화면 활용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
 - 또한 5~6개의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띄워 전환해가며 작업할 수 있는 '스플릿 뷰' 기능도 강화. 한편 신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저렴한 가격대인 329달러(와이파이 모델)로 책정돼 눈길

그림 1-12 태블릿 PC 시장 추이 및 태블릿 신제품 이미지


(가) 태블릿 PC 시장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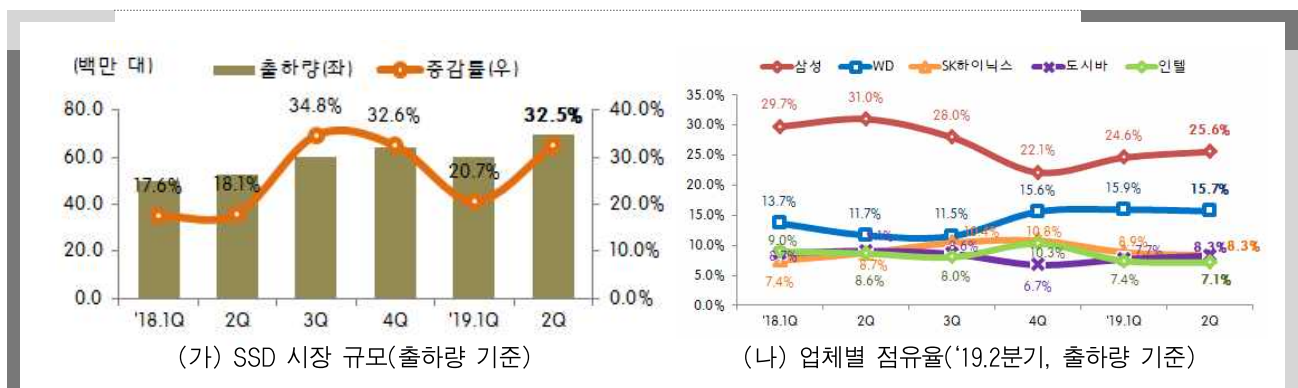
(나) Apple '아이패드(7세대)'

자료 : SA, 2019.8. / 언론 자료 인용

□ (SSD) 시장 침체 속 고성능·고용량 SSD 출시와 시장 확대 등으로 수익 개선을 기대

- (시장 규모) '19.2분기 SSD 시장은 가격 하락으로 수요가 확대되면서 출하량(6,974만 대, 32.5%↑)은 늘어났으나 매출액(47.6억 달러, △34.2%)은 하락(IDC, '19.8월)
 - (소비자용) PC용 부품 교체(HDD→SSD), 게이밍 특화 제품, 노트북 수요 증가 등으로 출하량(5,882만 대, 39.8%↑)은 증가했으나 가격 하락이 지속되면서 매출액(24.4억 달러, △20.9%)은 감소
 - (기업용) 낸드 가격 하락으로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면서 출하량(763만 대, 2.0%↑)은 늘어났으나 단가 하락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매출액(22.6억 달러, △44.6%)은 감소
 - 한편 반도체 업체들은 수익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낸드를 SSD(완제품)로 가공 판매하는 추세. 반도체 불황이 역설적으로 SSD 시장에 호재로 작용했다는 분석 제기
- (경쟁 현황) 업체별 점유율('19.2분기 출하량 기준)은 삼성전자(25.6%), WD(15.7%), SK하이닉스(8.3%), 도시바(8.3%), 인텔(7.1%) 등의 순으로 상위권 차지(IDC, '19.8월)
 - (삼성전자) 수익성 확보를 위해 기술력 초격차 기반의 고용량·고성능 제품 비중을 높일 방침. CPU 시장 세계 2위인 AMD와 서버용 차세대 고성능 SSD를 협력해 공급기로 계약(8.9일)
 - (WD) 美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에서 개최된 '2019 플래시 메모리 서밋'에서 데이터센터용 '울트라스타 NVMe SSD' 제품군 2종을 공개(8.6~8.8일). 해당 제품은 제타바이트(ZB) 규모의 데이터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제품으로 96단 TLC 낸드가 적용된 점이 특징
 - (SK하이닉스) 기업용 SSD에만 집중했던 SK하이닉스는 8.19일부터 美에 소비자용 SSD인 'Gold S31' 판매를 시작. 내년부터 라인업도 확대 출시할 계획으로 소비자용 시장에 재도전하는 행보로 관망
 - (도시바) 대만의 '라이트-온 테크놀로지' SSD 사업을 1억 6,500만 달러에 인수기로 발표(8.30일). '20.4월까지 모든 인수절차를 완료해 SSD 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

그림 1-13 SSD 시장 규모 및 업체별 점유율 추이



자료 : IDC, 2019.8.



2) 수출 동향

□ 프린터·모니터 등 주변기기 수출 부진 장기화로 전체 수출은 6.8억 달러(△30.6%)를 기록

- **(품목별)** 전월 대비 컴퓨터 수출 성장세가 둔화(68.1%↑→23.2%↑)되고 주변기기 하락폭(△33.7%→△37.9%)이 확대되면서 전체 수출은 7억 달러를 하회
 - (컴퓨터 : 1.4억 달러, 23.2%↑) 수출의 82.2%를 차지하는 컴퓨터 부품 수출(1.2억 달러, 51.4%↑)의 두 자릿수 대 성장세가 지속되고 완제품도 호조세를 보이며 상승 기록
 - (주변기기 : 5.3억 달러, △37.9%) 주력 품목인 SSD(3.8억 달러, △34.2%) 수출이 가격 하락 영향으로 부진한 가운데 모니터(△27.0%)·프린터(△32.6%) 등이 동반 감소하며 하락 국면
 - **(지역별)** 중국(홍콩포함)은 하락세가 지속되는 반면 미국은 SSD 수출 호재로 소폭 개선
 - 미중 무역전쟁, 홍콩 시위 등으로 무역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중국(홍콩포함, 3.0억 달러, △30.2%) 수출은 8개월 연속 역성장
 - 미국(1.9억 달러, △2.4%)은 지난 달 상승세였던 컴퓨터 수출(0.1억 달러, △49.7%)이 반락했으나 국내 업체의 잇따른 SSD 신제품 출시로 수출(1.3억 달러, 13.2%↑)이 성장 전환되면서 하락폭 완화
- ※ 전년대비 증감률(%), IITP, KTSPI : ('19.1월)△43.5→(2월)△40.9→(3월)△49.6→(4월)△38.2→(5월)△22.4→(6월)△44.0→(7월)△14.3→(8월)△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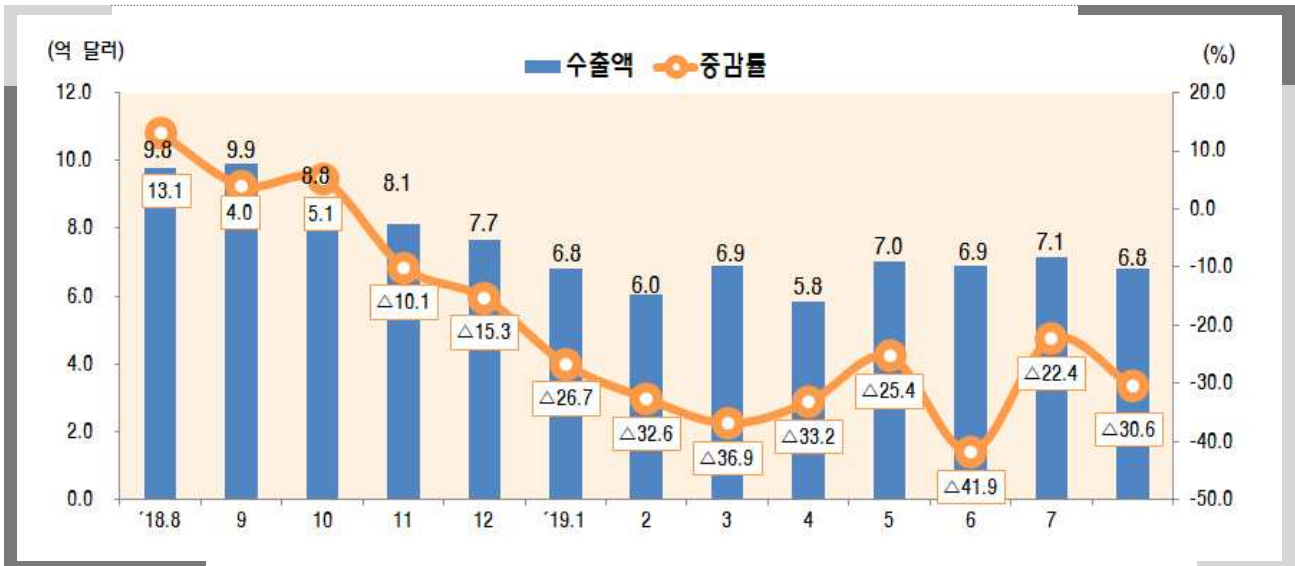
표 1-13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대비)

구분	'18.8	9	10	11	12	'19.1	2	3	4	5	6	7	8
컴퓨터 및 주변기기	9.8 (13.1)	9.9 (4.0)	8.8 (5.1)	8.1 (△10.1)	7.7 (△15.3)	6.8 (△26.7)	6.0 (△32.6)	6.9 (△36.9)	5.8 (△33.2)	7.0 (△25.4)	6.9 (△41.9)	7.1 (△22.4)	6.8 (△30.6)
컴퓨터	1.2 (29.1)	1.1 (12.1)	1.4 (56.0)	2.3 (128.3)	2.3 (82.4)	1.9 (81.3)	1.6 (92.3)	1.9 (72.0)	1.6 (59.3)	1.7 (78.4)	1.5 (31.4)	1.7 (68.1)	1.4 (23.2)
부품	0.8 (17.0)	0.8 (17.2)	1.0 (60.5)	1.9 (171.0)	1.7 (112.9)	1.5 (105.4)	1.3 (140.1)	1.4 (96.7)	1.3 (111.9)	1.4 (105.1)	1.1 (56.1)	1.4 (76.6)	1.2 (51.4)
주변기기	8.6 (11.2)	8.8 (3.1)	7.4 (△0.8)	5.8 (△27.6)	5.4 (△31.1)	4.9 (△40.4)	4.4 (△45.5)	5.1 (△48.8)	4.2 (△45.4)	5.3 (△37.1)	5.4 (△49.8)	5.4 (△33.7)	5.3 (△37.9)
보조기억 장치	5.8 (0.1)	6.4 (9.8)	5.3 (△7.1)	3.9 (△34.3)	3.4 (△39.5)	3.0 (△52.8)	3.1 (△51.8)	3.1 (△60.4)	2.4 (△59.4)	3.7 (△42.4)	3.9 (△55.0)	3.8 (△36.2)	3.8 (△34.0)
프린터	0.5 (1.4)	0.5 (△48.7)	0.5 (23.1)	0.5 (△8.8)	0.4 (△13.8)	0.4 (8.1)	0.3 (△7.0)	0.4 (△3.8)	0.4 (△7.5)	0.4 (△18.8)	0.3 (△27.4)	0.4 (△26.6)	0.3 (△32.6)
모니터	1.0 (5.8)	0.8 (△26.9)	1.1 (36.6)	0.9 (△11.9)	0.9 (2.5)	1.0 (3.7)	0.6 (△29.4)	0.9 (△10.9)	0.9 (△7.4)	0.8 (△14.4)	0.8 (△25.5)	0.8 (△19.8)	0.7 (△27.0)

자료 : IITP, KTSPI

그림 1-14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1-14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 상위 10대 국가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대비)

구분	2018년 연간				2019년						
					8월 당월				1~8월 누적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1	중국	35.3	32.8	31.4	중국	2.5	-19.8	36.2	19.2	-13.9	35.9
2	미국	25.2	1.0	22.4	미국	1.9	-2.4	27.3	12.4	-34.2	23.2
3	홍콩	15.8	56.2	14.0	홍콩	0.5	-56.2	7.9	4.4	-63.0	8.3
4	멕시코	4.1	6.5	3.6	일본	0.2	-33.7	3.3	2.1	-23.8	3.9
5	일본	3.9	1.3	3.5	네덜란드	0.1	-2.8	2.2	1.3	1.0	2.5
6	독일	2.2	30.2	1.9	대만	0.1	-4.2	2.1	0.8	-25.5	1.5
7	네덜란드	2.1	8.0	1.8	독일	0.1	-58.4	1.7	1.0	-30.2	1.9
8	아일랜드	1.7	0.6	1.5	멕시코	0.1	-70.9	1.6	1.2	-63.0	2.2
9	싱가포르	1.5	-3.3	1.4	베트남	0.1	-32.8	1.4	0.8	10.4	1.5
10	체코	1.4	1.4	1.2	폴란드	0.1	10.6	1.4	0.7	-18.7	1.3

자료 : IITP, KTS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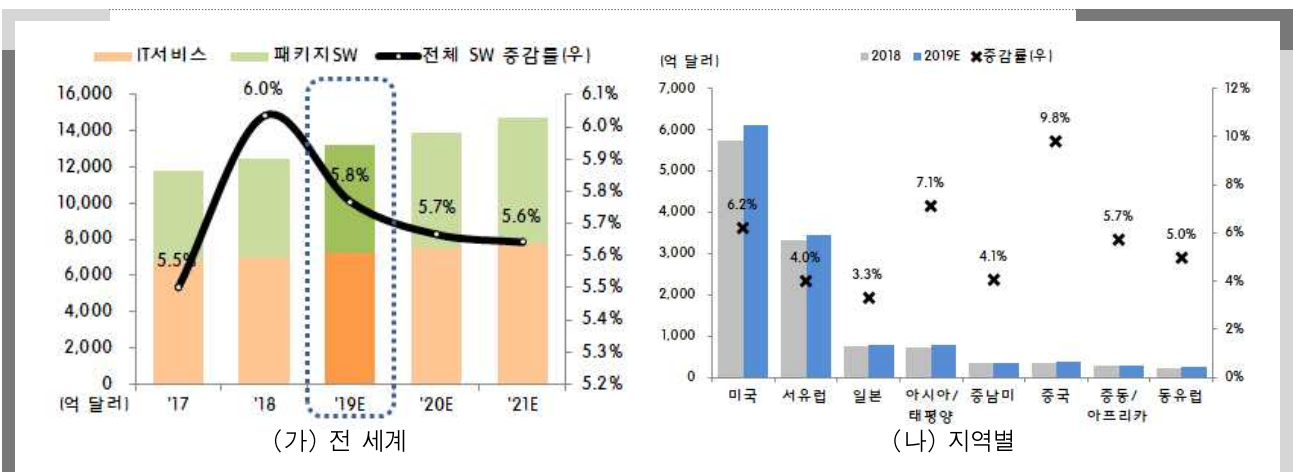
7 SW

1) 수출 환경

□ SW 시장은 AI 등 신기술로 견조한 성장이 기대되며 대부분 지역에서 성장세 예측

- (시장 전망) '19년 SW 시장은 전년대비 5.8% 상승한 1조 3,184억 달러 예상(IDC, '19.8월)
 - 사업과 업무 현장에 AI(인공지능)를 적용하는 업체가 늘어나면서 글로벌 AI 시장이 급성장하고 IoT(사물인터넷)·VR(가상현실) 등 신규 비즈니스 기회가 증가하며 관련 SW 시장도 확대될 전망
 - IT서비스는 '19년 3.5% 성장한 7,286억 달러로 패키지SW 성장세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나 연 3% 정도의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
 - 패키지SW 시장은 지난해(9.6%↑)에 이어 올해도 높은(8.8%↑) 성장세로 5,898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년에는 6,000억 달러 규모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
- (지역별) 최대 시장인 미국과 중국·중남미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성장세가 예측
 - 대부분의 지역에서 플러스 성장이 예상되며 특히 전체 시장의 약 50%를 차지하는 미국 시장은 패키지SW(9.3%↑) 시장을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6,105억 달러(6.2%↑) 규모로 확대될 전망
 - 중국(9.8%↑)·아시아/태평양(7.1%↑) 지역은 7%대 이상의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
 - 동유럽(5.0%↑)·중동/아프리카(5.7%↑)·중남미(4.1%↑)·서유럽(3.8%↑) 등은 4~5%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하나, 일본(3.3%↑)은 3%의 비교적 낮은 성장세가 예상

그림 1-15 전 세계 및 지역별 SW 시장 전망



자료 : IDC Blackbook, 2019.8.

□ (업체동향) 국내 업체는 신기술 발표, 업무 협약 등으로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

- 삼성SDS와 LG CNS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기술을 공개 및 발표했으며, SK C&C는 국내 금융사와 협약을 체결하며 서비스 역량을 강화

표 1-15 | 국내 IT서비스 업체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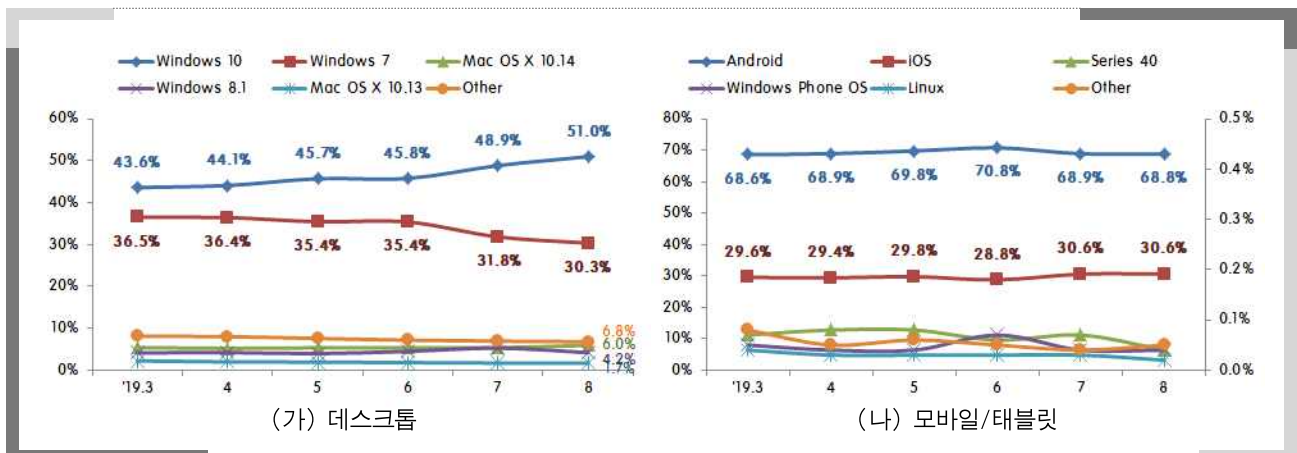
업 체	내 용
	• '첼로 테크페어 2019' 행사에서 글로벌 이커머스(e-Commerce) 사업자와 물류 협력 확대를 위한 인공지능 기술을 공개(9.5일)하는 등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으로 물류 상황 분석에 활용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브라이틱스 AI(Brightics AI)가 내제된 첼로(Cello) 플랫폼으로 항만 혼잡도를 분석해 선박 도착 예정일을 화주에게 제공함으로써 내륙운송과 원활하게 연계 -일본 라쿠텐, 동남아시아 라자다와 협력을 확대해 국내 기업이 글로벌 e-Commerce 시장 진출 시 필요한 국가별 최적 배송사 선정과 수출 서류처리 등의 물류서비스를 첼로스퀘어(Cello Square)를 통해 제공
	• AI의 자연어 이해를 위한 한국어 표준데이터 10만여 개를 제작해 업계에 무료로 개방하는 등 자연어 처리 축적 데이터를 배포해 기술 발전에 기여 -LG CNS는 '18.12월 위키백과 정보를 기반으로 AI 학습용 한국어 표준데이터 7만 개가 탑재된 '코워드 1.0'을 제작해 AI 업계에 공개했으며 이번에 공개한 '코워드 2.0'은 한국어 표준데이터를 10만 개로 확대하고, 단답형에서 장문의 답변이 가능한 시를 개발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강화
	• 국민은행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제휴를 하면서 금융 서비스 강화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신기술 관련 스킬셋 강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속적인 혁신 사업모델의 공동 개발 등 금융 및 디지털 기술 역량을 제고하고 시너지 창출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협의 -'디지털 랩 케이(Digital Lab K)'를 공동 운영하며 혁신적 사업 모델 발굴을 위해 양사의 역량을 집중

자료 : 언론 보도 정리

□ (OS 시장) '19.8월 데스크톱은 상위 OS간 격차가 확대된 반면 모바일/태블릿은 유지

- (데스크톱) 윈도우10은 전월대비 2.1%p 상승한 51.0%의 시장점유율로 과반을 차지하며 1위 자리를 유지했으며 윈도우7은 30.3%로 1.5%p 감소하며 양 OS간 격차는 20.7%로 확대
- (모바일/태블릿) 안드로이드는 0.1%p 감소한 68.8%를, iOS는 전월 수준인 30.6%를 지속

그림 1-16 | 전 세계 OS 시장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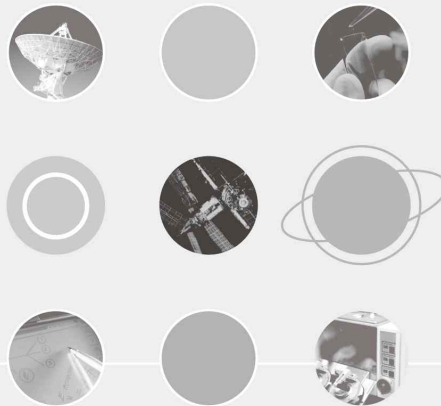


자료 : NetMarketShare, 2019.9.



II

트레이드 GPS



II 트레이드 GPS⁹⁾

1 EU - 이차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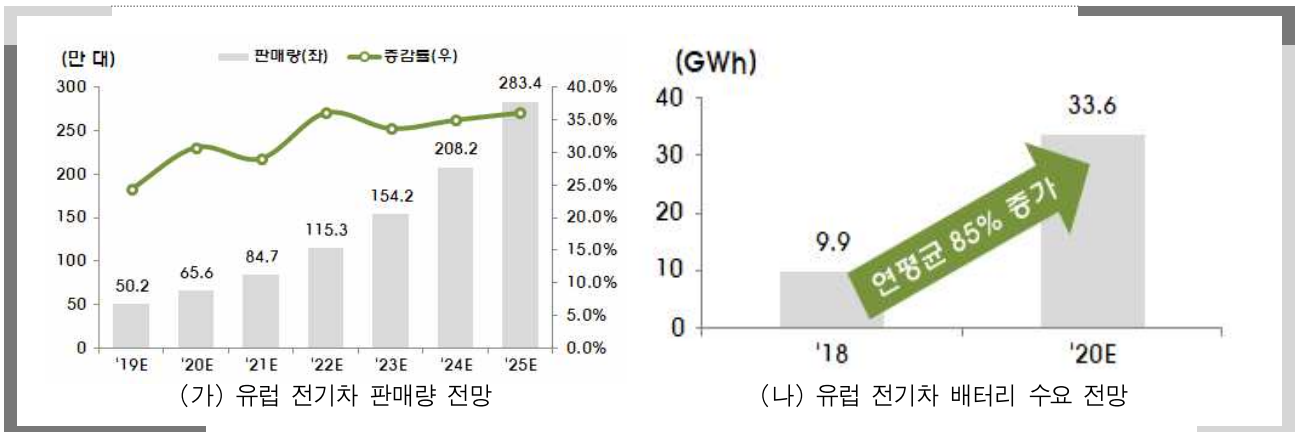
□ 유럽 주요국의 환경 규제 정책 강화로 친환경차(전기차 등) 비중이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핵심 부품인 이차전지 수요도 늘어날 전망

- **(EU 정책)** '15년 체결된 파리기후협약 이후 유럽연합(EU)의 차량 내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점차 강화되면서 '25년부터는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도 시행될 전망
 - EU는 '21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95g/km('30년까지는 37.5% 감소한 59g/km)를 목표로 명시해 해당 규제를 위반할 경우 차 1대당 CO₂ 배출 1g마다 95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
 - ※ EU의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정책 : ('19년) 130g/km → ('21년) 95g/km → ('30년) 59g/km → ('50년) 10g/km
 - 또한 정부 차원에서 프랑스는 '20년부터 파리 도심 경유차 진입 금지, 네덜란드·노르웨이는 '25년부터 경유·휘발유차 판매 금지, 독일은 '30년부터 화석연료 자동차 판매 금지 등의 법안을 시행할 계획
 - CO₂ 배출 규제, 각 국의 강력한 정책 시행 등으로 유럽의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연료전기차 등의 친환경차 비중을 강제적으로 확대하는 추세
- 전방산업인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이차전지 시장도 동반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유럽 내 전기차 판매량은 '19년 50.2만 대(24.4%↑) → '25년 283.4만 대(36.1%↑)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기차 이차전지(배터리) 시장도 '25년 2,500억 유로 수준을 달성할 예정
 - ※ 유럽 전기차 배터리 수요는 '18년 9.9GWh → '20년 33.6GWh(연평균 85%)로 증가

○ (참고) 전기자동차의 종류와 특성 비교

구분	에너지원	특성
HEV(Hybrid Electric Vehicle)		- 주 동력원은 내연기관 엔진이지만 보조적으로 회생 제동을 통해 배터리를 충전해 전기모터(플러그인 충전 방식이 아님)를 구동
PHEV(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		- 외부전원인 플러그를 통해 배터리를 충전해 전기모터와 내연기관 엔진을 함께 사용. 내연기관 자동차와 EV의 중간 단계
BEV(Battery Electric Vehicle)		- 주 에너지원으로 순수하게 전기에너지만 사용해 순수전기자동차(EV)를 의미, 내연기관 엔진 없이 배터리만 사용해 모터를 구동

9) 트레이드 GPS는 ICT 유망시장, 품목에 대한 동향 및 ICT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

그림 2-1 유럽 전기차 판매량 전망 및 유럽 전기차 배터리 수요 전망


자료 : EV세일즈, 유진투자증권, 2019.2. / 중앙일보, 8.6. (원소스 LG화학)

□ 한편 유럽은 전기차 관련 기술선진국이지만 핵심 부품(이차전지)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업체는 투자를 지속

-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EU산은 약 4% 수준에 불과해 유럽 내 각국의 정부와 기업들은 자급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과 투자를 감행
 - ※ '17년 EU는 유럽배터리연합(Europe Battery Alliance, EBA) 출범을 시작으로 유럽 내 이차전지 생태계 구축에 본격 집중
 - (노르웨이) 신생 기업인 Freyr는 32GWh 규모의 이차전지 생산시설('23년 양산이 목표)을 건설하는 'Nordic Battery Belt' 프로젝트를 발표('19.4월). 400억 크라운 규모(40.5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
 - (독일, 프랑스) 각국 정부는 자국 내 이차전지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Battery Airbus' 프로젝트를 발표('19.5월). 향후 4년간 최대 60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
 - (스웨덴) 유럽투자은행은 배터리 스타트업 기업인 노스볼트에 총 4억 유로의 자금 대출을 승인. 해당 기업은 폭스바겐과의 합작으로 16GWh 규모의 이차전지 생산시설을 구축할 예정('19.6월)
- **(유럽 완성차 업체)** 환경 규제에 따른 전기차 수요 급증으로 이차전지의 안정적인 공급량 확보를 위해 완성차 업체들은 이차전지에 투자를 직접 진행
 - 유럽 내에서는 현재 배터리의 부분품인 셀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곳이 없어 한·중·일 등의 동아시아산 배터리 셀을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는 실정
 - 각국별 투자에 이어 유럽 완성차 업체도 규제 충족 등을 위해 전기차와 배터리 자체 생산 산업에 향후 10년간 총 1,450억 유로를 적극 투자할 계획
 - 하지만 유럽 업체들의 이차전지 생산시설은 '23~24년 이후에 가동되며 생산 능력도 50GWh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동아시아산 이차전지 의존도는 지속될 전망

표 2-1 유럽 자동차 상위 업체 전기자동차·배터리 분야 투자 계획

업체	투자 내용
 Volkswagen	• '25년까지 910억 달러(배터리 분야 570억 달러 포함)를 투자 - 50종의 순수전기차(BEV)를 포함한 총 80종의 전기차를 출시할 계획 - '26년 마지막 세대인 내연기관 차량을 생산하고 '40년부터는 내연 기관 차량을 판매하지 않을 계획 • '19.5월 독일 현지 배터리셀 공장 설립(12GWh 규모)을 위해 10억 유로를 투자 - 자사의 차세대 전기자동차에 탑재될 배터리 수요 충족을 위해 투자를 진행 - 향후 30GWh까지 확대할 예정 • 스웨덴 신생 배터리 업체인 노스볼트와 합작 법인을 설립 - 폭스바겐은 총 9억 유로를 노스볼트에 투자해 합작 법인을 설립하고 지분 20%를 확보 - 합작회사는 '24년 내에 16GWh 규모의 신규 배터리 공장을 완공해 생산할 계획
 Mercedes-Benz	• '30년까지 420억 달러(배터리 분야 300억 달러 포함)를 투자 - 밴, 트럭 등 다양한 종류가 포함된 총 130종의 전기차를 출시할 계획 • 폴란드에 배터리 생산 공장 신설 계획을 발표('19.1.22일) - '20년부터 배터리 생산을 시작해 자사의 전기자동차에 장착이 목표
	• '25년까지 65억 달러(배터리 분야 45억 달러 포함)를 투자 - 전기차 25종을 출시하고 이 중 절반은 순수전기차 모델로 채우는 것이 목표

자료 : 언론 자료 인용

□ 유럽 배터리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한·중·일 업체들은 협력 강화, 투자 증대 등으로 시장 내 입지를 견고히 다질 계획

- **(글로벌 업체)** 유럽 완성차 업체와 잇따라 제휴를 맺어 안정적인 공급처 확보에 주력
 - '19.상반기 유럽지역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LG화학(40%), 파나소닉(日, 35%), 삼성 SDI(10%), AESC(日, 10%), SK이노베이션(5%) 등 순으로 차지(중앙일보, 8.6일, 원소스 LG화학)
 - (CALT) 유럽 최대 자동차 부품회사인 보쉬(BOSCH)와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고 보쉬의 '48볼트 전지(전기차용 이차전지)'에 적용될 고성능 배터리 셀을 제공기로 계약
 - 또한 독일 에르푸르트에 14GWh 규모의 이차전지 공장을 신설 중으로 '21년부터 양산할 예정
 - (BYD) 아우디와 최종 합의만 남겨두고 협상 중인 상황. 양측이 합의에 이를 경우 BYD산 이차 전지가 아우디·포르쉐의 PPE(Premium Platform Electric) 플랫폼에 탑재될 전망
- **(국내 업체)** 전방산업 업체와의 관계 강화, 유럽 내 생산시설 투자 확대 등으로 유럽 생산능력 합은 '20년 50GWh → '23년 137GWh로 확대될 예정(중앙일보, 8.6일, 원소스 한국투자증권)
 - (삼성SDI) '19.7월 글로벌 자동차 업체인 볼보와 E-모빌리티(electromobility) 분야에서 전략적 제휴를 체결해 전기 트럭용 배터리를 중심으로 협력 관계를 구축
 - (SK이노베이션) 폭스바겐과 전기차 배터리 합작사 설립을 논의 중인 상황
 - ※ 한편 '11.12월부터 국내 업체들 간(LG화학·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기술 특허 소송으로 소모전이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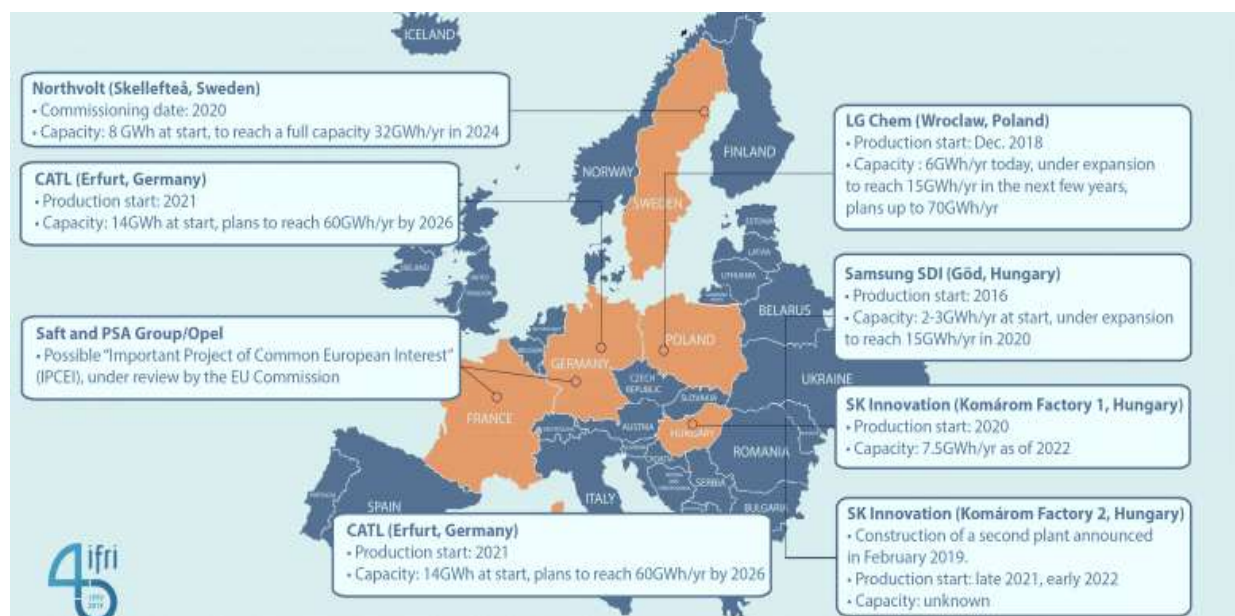


표 2-2 국내 업체 배터리 분야 투자 계획

업체	투자 내용
 LG화학	'18년부터 폴란드 브로츠와프 공장에서 6GWh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를 양산 - 증설을 통해 '19.12월까지 기존 생산규모 6GWh→15GWh 수준으로 늘릴 계획 - 유럽 내 배터리 생산규모도 '21~22년까지 70GWh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
 삼성SDI	- 제2 전기차 배터리 공장구축을 위해 5,6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할 계획('19.2월) - '16년 4,000억 원 첫 투자 이후 두 번째로, 타 국내 업체들보다 투자에 소극적인 모습
 SK이노베이션	'18.3월 헝가리 코마롬에 약 8,400억 원을 투자해 7.5GWh 규모의 공장을 착공 - '19.하반기 완공 후 설비 안정화, 시운전, 제품 인증 등을 거쳐 '20년 초부터 양산할 예정 • '19.2월 동일한 헝가리 코마롬에 9,452억 원을 추가 투자해 제2 공장을 건설키로 결정 - '22년 양산 예정으로 공장 가동 시 유럽 내 총 생산능력은 약 17GWh 수준일 것으로 예상

자료 : 언론 자료 인용

그림 2-2 유럽 내 이차전지 생산시설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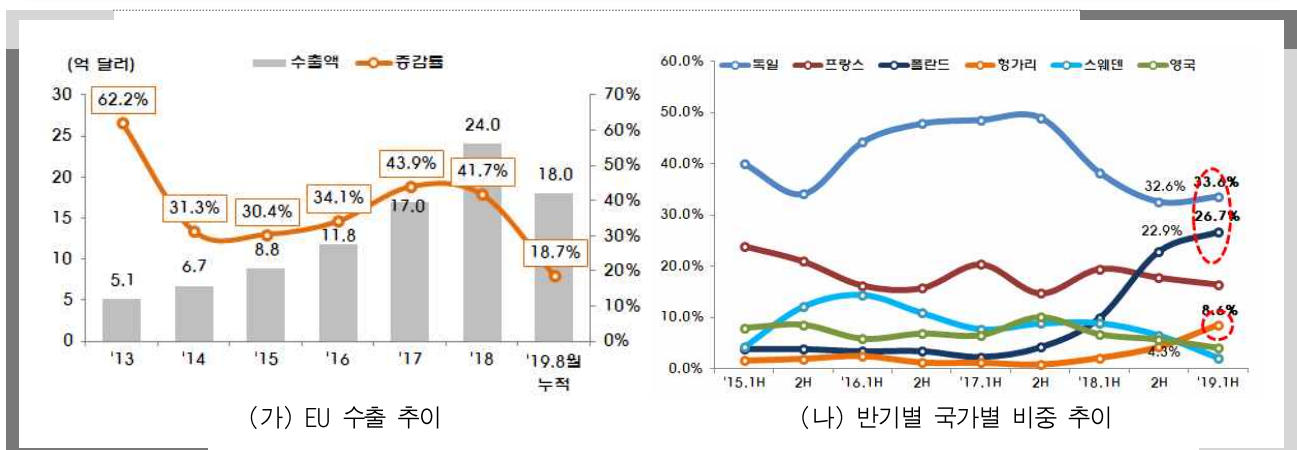


자료 : IFRI 재인용, 2019.2.

□ 對EU 이차전지 수출은 전기차 시대 도래, 해외 생산 설비 증설 등으로 성장세가 지속

- (전체) 유럽 전기차 생산 비중이 점차 확대되면서 이차전지 수출도 호기로 작용
 - (연간) '13년(5.1억 달러, 62.2%↑)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한 이후 '18년까지 6년간 두 자릿수 대의 높은 성장률이 지속
 - (월별) '19.5월 국내 ESS 화재 발생으로 수출액은 1.9억 달러(△1.7%)를 기록하며 주춤했으나 7월부터 다시 2억 달러 대를 상회하면서 '19.8월 2.4억 달러(8.2%↑)를 기록
 - '19.8월 누적 기준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18.7% 증가한 18.0억 달러를 기록. 전세계 중 EU로의 이차전지 수출은 36.4%를 차지했으며 현지 생산 설비 증설에 따라 수출은 지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
- (국가별) 세계 최대 자동차 업체 등을 보유한 독일의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국내 업체의 해외 생산 거점 신설 및 증설로 폴란드·헝가리로의 수출도 확대되는 양상
 - EU 국가별로 '19.상반기 기준 독일·프랑스·폴란드·헝가리·스웨덴·영국 등 수출 상위 6개국 비중은 전체 EU 이차전지 수출의 91.6%를 차지
 - EU 이차전지 수출국 중 1위인 독일은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라 이차전지 수출도 ('18.2H) 32.6% → ('19.1H) 33.6% 비중이 증가
 - 폴란드는 국내 업체의 현지 공장 가동으로 수출이 늘어나면서 '18.2H, 22.9%를 차지해 EU 내 수출 2위국으로 부상. '19.1H, 26.7%를 차지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
 - 마찬가지로 헝가리도 국내 이차전지 생산 업체의 공장이 완공되면서 수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18.1H, 2.2%→ 2H, 4.3% → '19.1H, 8.6%). 향후 국내 업체의 공장 추가 증설에 따라 수출은 큰 폭으로 확대될 전망

그림 2-3 | 연간 EU 전체 수출액 및 반기별 상위국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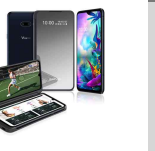
자료 : IITP, KTSPi

2 카메라 모듈¹⁰⁾

□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에 멀티 및 3D 카메라 탑재가 증가하며 카메라 모듈 수요 확대

- (국내 스마트폰) 국내 스마트폰 업체는 트리플·쿼드러플 등 멀티 카메라 탑재를 늘리고 있으며, 3D·광각·망원 카메라 등을 탑재하며 스마트폰 차별화를 추진
 - (삼성전자) '19.8.23일 출시된 하반기 전략 모델 '갤럭시노트10'에 후면 트리플 카메라가 탑재됐으며 '갤럭시노트10+'에는 ToF(비행시간 거리측정) 3D 카메라가 추가되며 쿼드 카메라가 탑재
 - 스크린 연결부위 결합으로 2차례 출시 지연 후 '19.9월 공식 판매를 시작한 최초의 폴더블폰 '갤럭시폴드'는 전면 듀얼, 후면 트리플, 커버 카메라까지 총 6개 카메라가 탑재
 - 중저가 모델인 '갤럭시A9프로'에 세계 최초로 쿼드 카메라를 적용한 데 이어 하반기 출시되는 '갤럭시A90'에도 트리플 카메라가 탑재되는 등 중저가 라인으로도 멀티 카메라 탑재가 확대
 - (LG전자) 하반기 출시되는 'V50S씽큐'는 전작인 'V50씽큐'의 듀얼스크린 특화형 제품으로 전면 싱글, 후면 듀얼 카메라가 탑재돼 전작 대비 카메라 탑재 수가 전·후면 각각 1개씩 감소
 - 그러나 전면 카메라의 경우 3,200만 화소의 고화소 카메라를 탑재해 고화질의 촬영이 가능

표 2-3 | 국내 스마트폰 업체 하반기 전략 모델의 카메라 스펙

업체	삼성전자				LG전자	
제품명						
	갤럭시폴드 5G	갤럭시노트10	갤럭시노트10+	갤럭시A90 5G	V50S 씽큐 5G	V50S 씽큐
출시일	'19.9.6일	'19.8.23일	'19.8.23일	'19.9.4일	'19.5.10일	'19.10월
후면 카메라	트리플 : 12MP 광각, 12MP 망원, 16MP 초광각	트리플 : 12MP 듀얼픽셀, 12MP 망원, 16MP 초광각	쿼드 : 12MP 듀얼픽셀, 12MP 망원, 16MP 초광각, ToF 3D 카메라	트리플 : 8MP, 8MP, 5MP	트리플 : 12MP, 12MP 망원, 16MP 광각	듀얼 : 12MP, 13MP 광각
전면 카메라	듀얼: 10MP 광각, 8MP 심도 커버카메라 10MP	싱글 : 10MP 듀얼픽셀	싱글 : 10MP 듀얼픽셀	싱글 : 32MP	듀얼 : 8MP, 5MP 광각	싱글 : 32MP
총 카메라 개수	6개	4개	5개	4개	5개	3개

자료 : 각 사 / 언론 보도 자료 외

10)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은 렌즈, 오토포커스 및 OIS용 액추에이터, 이미지센서, IR 필터, RF PCB 등의 결합체

- **(해외 스마트폰)** 카메라에 특화된 정책을 추진해오던 중국 업체는 하반기에도 카메라 기능을 강화한 제품을 공개했으며, 애플·구글도 하반기 트리플 카메라 대열에 합류
 - 삼성전자가 최근 플래그십 모델에 쿼드 카메라를 장착하면서 빠른 전환을 이뤄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제조사들도 잇따라 쿼드 카메라 탑재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
 - (화웨이) 9.19일 ‘메이트30시리즈’를 공개했으며, 이 중 ‘메이트30프로’는 4000만 화소, ToF 3D 카메라 등으로 구성된 후면 쿼드 카메라를 배치해 카메라 스펙 향상에 집중
 - (오포) 후면 쿼드 카메라가 탑재된 새로운 플래그십 스마트폰 ‘리노 에이스’를 10.10일 출시할 전망이며, 저가 브랜드 ‘리얼미’에도 6,400만 화소 쿼드 카메라를 탑재
 - 국내업체 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스펙 경쟁에 집중하는 중국 제조사들도 잇따라 쿼드 카메라 탑재를 늘리면서 삼성전기의 고부가 모듈 사업에 호재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
 - (애플) 9.20일 출시된 ‘아이폰11프로’·‘아이폰11프로맥스’는 아이폰으로는 처음으로 후면 트리플 카메라(초광각·광각·망원)를 포함하고 있으며, ‘아이폰11’은 초광각·광각 후면 듀얼 카메라를 탑재
 - 이번 ‘아이폰11시리즈’에 초광각 렌즈를 탑재해 기존보다 4배 더 넓은 장면을 포착 가능하며 또한 영상 촬영을 즐기는 밀레니엄 세대를 겨냥해 초고해상도(UHD) 4K 동영상 촬영도 가능
 - (구글) 6월 공개된 ‘픽셀4 XL’(10.15일 공개) 이미지에 따르면 ‘아이폰11’처럼 후면에 큰 사각형 카메라 모듈이 달려 있고 그 안에 3개의 트리플 카메라를 장착
- ※ 하드웨어적인 카메라 성능을 강조하는 다른 스마트폰 제조사와 달리 구글은 AI 기술을 기반으로 기능 강화

표 2-4 | 해외 주요 스마트폰 업체 하반기 전략 모델의 카메라 스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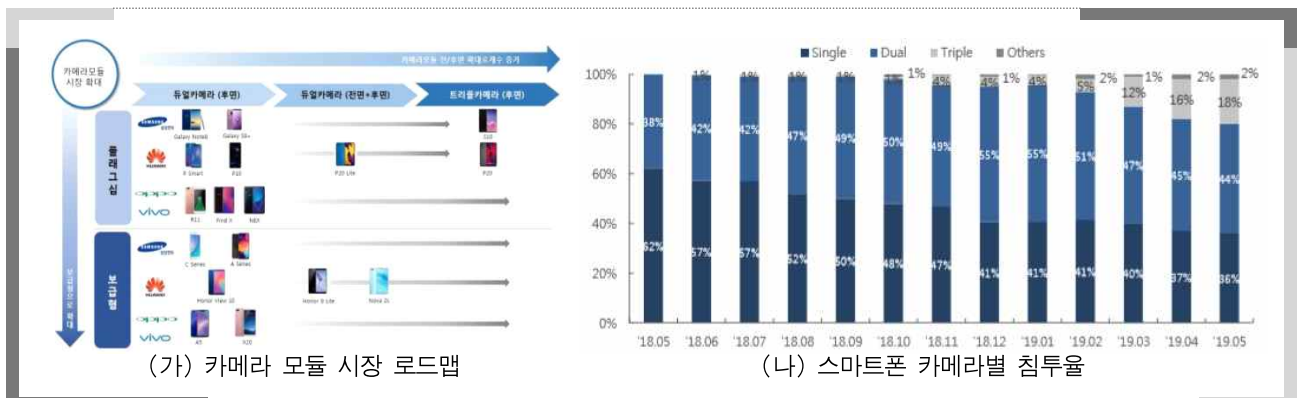
업체	화웨이			오포	애플	
제품명						
	메이트30	메이트30 프로	메이트X	리노 에이스	아이폰11	아이폰11프로/프로 맥스
출시일	'19.9.19일 공개	'19.9.19일 공개	'19.10월	'19.10월	'19.9.20일	'19.9.20일
후면 카메라	트리플 : 16MP 초광각, 40MP 광각, 8MP 망원	쿼드 : 40MP 초광각, 40MP 광각, 8MP 망원 ToF 3D 카메라	트리플 : 40MP, 16MP, 8MP	쿼드 : 48MP, 13MP 줌, 8MP 초광각, 2MP 심도	듀얼 : 12MP 광각, 12MP 초광각	트리플 : 12MP 광각, 12MP 망원, 12MP 초광각
전면 카메라	싱글 : 24MP	듀얼 : 32MP, ToF 3D 카메라	싱글 : ToF 3D 카메라	싱글	싱글 : 12MP	싱글 : 12MP
총 카메라 개수	4개	6개	4개	5개	3개	4개

자료 : 각 사 / 언론 보도 자료 외

□ 카메라 모듈 시장은 5G 등 환경변화에 따라 화소→멀티 카메라 3D 등으로 전환 가속화

- 카메라는 그동안 촬영을 통한 단순 기록에서 AI와 인공지능을 비롯한 4차 산업의 변화 속에서 대상을 인지하고 파악하는 눈의 역할로 변화
 - 가장 큰 인프라의 변화인 5G 도입으로 콘텐츠 촬영이 점차 필수적으로 변해가고 있어, 카메라 모듈 시장에서 가격과 수량의 구조적인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 후면 카메라별 모듈 판가는 싱글 약 10달러, 듀얼 약 30달러, 트리플 약 50달러로 추산(교보증권, '19.3월)
 - (멀티 카메라) 스마트폰 전·후면에 2개 이상 카메라가 장착되는 '멀티 카메라'가 보급형 제품까지 대중화되고, 카메라 개수도 트리플·쿼드로 진화하면서 카메라 모듈 시장이 빠르게 성장
 - 특히 멀티 카메라는 광각·망원 등 렌즈의 구성과 설정을 다채롭게 조합하여 아웃포커싱 및 선명한 촬영이 가능해 최근 영상·사진의 중요성이 커지는 환경을 배경으로 수요가 확대
 - ※ '19.1분기 주요 업체별 멀티 카메라 채용률(%), IDC, 유진투자증권, '19.8월) : (삼성전자) 55.5, (애플) 39.2, (화웨이) 84.9, (오포) 91.2, (비보) 82.0, (샤오미) 77.0
 - (3D 카메라) 애플은 전면 SL¹¹⁾ 방식의 시장을, 삼성전자는 후면 ToF¹²⁾ 모듈을 선제적으로 탑재하며 시장을 주도. 삼성전자는 '갤럭시S10 5G'를 시작으로 '갤럭시A80'·'갤럭시노트10+'에 ToF 모듈을 채용. 애플도 내년 신형 아이폰에 ToF 모듈을 채용할 것으로 예측
 - ※ 3D 이미지 처리 및 센싱 장치¹³⁾의 시장규모는 '18년 29억 달러에서 '22년에 90억 달러로 3배 성장할 전망
 - 3D 카메라 탑재를 통해 실시간 영상에 아웃포커싱 등 효과를 줄 수 있으며 기존 안면인식 중심에서 동작인식·사물인식 등으로 확대돼 디지털 기기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AR/VR 등 산업의 초석을 마련
 - (망원 카메라) 잠망경 구조를 활용해 카메라가 돌출되지 않으면서 수퍼 줌 구현이 가능해, 멀티 카메라 중 폴디드(Folded) 망원 카메라가 조합된 솔루션이 주목받으며 수요 증가

그림 2-4 | 카메라 모듈 시장 로드맵 및 스마트폰 카메라별 침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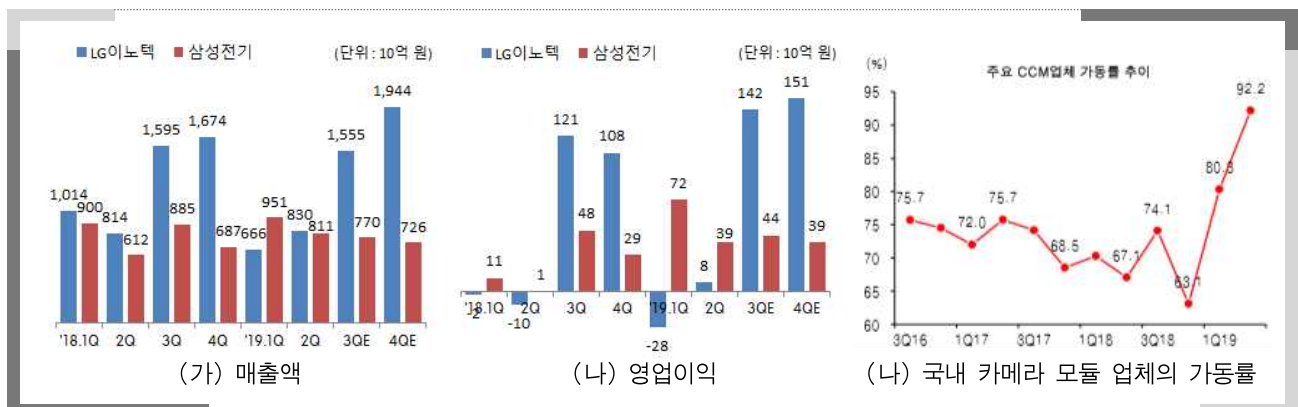
자료 :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2019.7.

11) SL(Structured Light)는 특정패턴의 적외선을 촬영대상에 방사, 대상 표면의 모양에 따라 패턴이 변형된 정도를 분석하는 방식
 12) ToF(Time of Flight)는 피사체를 향해 발사한 빛이 튕겨 돌아오는 시간으로 거리를 계산해 사물의 입체감·공간정보·움직임 등을 인식
 13) 3D 센싱모듈은 피사체에 적외선을 쏜 뒤 빛이 되돌아온 시간이나 변형 정도를 측정해 거리를 환산하여 입체감을 파악하는 기술

□ (국내 업체 동향) 전방산업 수요 확대로 국내 카메라 모듈 업체 실적 및 가동률은 증가

- (업체 실적) 멀티 카메라 및 ToF 채용 확대로 국내 업체의 2분기 실적은 증가했으며 하반기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에 따른 탑재 증가로 실적은 확대가 기대
 - (삼성전기) 카메라 모듈이 포함된 모듈 사업부는 '19.2분기 중화권 거래선행 고성능 카메라 모듈의 신규 공급으로 전년 동기대비 33% 증가한 8,112억 원 기록
 - 삼성전기는 올해 2분기부터 중화권 시장 고객사용으로 돌출되지 않고 줌 기능이 가능한 잠만경 형태의 광학 5배 줌 폴디드(Folded) 카메라 모듈의 신규 공급과 더불어 하반기 스마트폰 신제품에 멀티-ToF카메라 채용 확대로 카메라 모듈 업체의 실적은 지속 확대될 전망
 - (LG이노텍) '19.2분기 광학솔루션 매출은 듀얼·트리플 카메라 등 고가의 하이엔드 부품 판매가 증가하며 전년 동기대비 2% 증가한 8,301억 원을 기록
 - LG이노텍은 애플 신제품에 주력 공급사로서 후면 카메라를 공급할 예정. 특히 애플은 '아이폰11 프로'에 아이폰 시리즈 최초로 후면 트리플 카메라를 탑재해 하반기 실적도 확대 기대
 - (가동률) 2분기 주요 카메라 모듈 업체들의 가동률은 92.2%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이며, 생산량도 중저가 스마트폰의 멀티 카메라 채용 확대로 크게 증가
 - 현재 삼성전자 중저가 라인업 'A·M시리즈'는 대부분 멀티 카메라(듀얼, 트리플)를 탑재하고 있으며, 하반기 및 내년에는 각 모델별 파생제품이 출시되면서 카메라 모듈 공급량은 지속 증가가 예상
 - 삼성전자 카메라 모듈 수요량은 '18년 7.0억 개→'19년 8.1억 개(24.0%↑)→'20년 9.2억 개(12.9%↑)로 증가가 예상되면서, 국내 카메라 모듈 업체의 가동률은 '19년 80.7%, '20년 88.5%로 상승될 전망
- ※ 국내 카메라 모듈 업체 가동률 추이(각 사, 유진투자증권, '19.8월) : ('16.3Q)75.7→('17.1Q)72.0→(2Q)75.7→(4Q)68.5→('18.2Q)67.1→(3Q)74.1→(4Q)63.1→('19.1Q)80.3→(2Q)92.2

그림 2-5 | 국내 카메라 모듈 업체별 실적 및 가동률 추이



자료 : 한화투자증권, 2019.9. /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2019.7.

□ (수출 동향) 스마트폰 생산 업체향 수요 증가로 '19.8월 카메라 모듈 수출은 회복

- (전체) 스마트폰 등 전방 산업 수요 증가 및 단가 상승으로 카메라 모듈 수출은 반등
 - (월별) 애플 아이폰 판매 둔화 및 중국 업체 수요 감소 등으로 '18.8월 이후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던 카메라 모듈 수출은 '19.8월 하반기 스마트폰 카메라 사양 향상에 따른 수요 증가로 38.9억 달러를 기록하며 상승세(12.8%↑)로 반등
 - (누적) '18년 두 자릿수 성장세를 지속했으나 '18.하반기 이후 실적이 부진하며 '19.8월 누적 기준으로는 37.2% 감소한 134.1억 달러를 기록. 그러나 월별 수출이 상승하면서 하락폭은 축소되는 양상('19.7월 누적 △46.7%→8월 누적 △37.2%)

그림 2-6 | 카메라 모듈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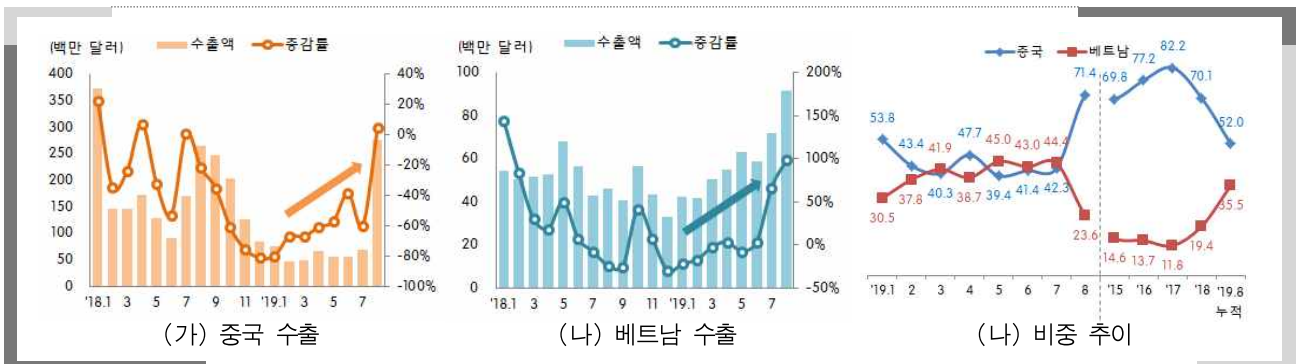


자료 : IITP, KTSPI

주 : 카메라 모듈 수출은 HSK코드 8529909910, 8525801090, 8529909500 등을 합한 값

- (국가별) 전체 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및 베트남 수출은 호조세 기록
 - (중국) 국내 카메라 모듈 업체의 애플 '아이폰11'형 트리플 카메라 공급 및 중국 업체의 ToF 3D 카메라 탑재 등으로 '18.8월 이후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반등했으며 70% 이상('19.8월)의 비중을 차지
 - (베트남) 국내 스마트폰 업체의 멀티 카메라 탑재가 늘어나면서 국내 세트업체의 생산거점인 베트남향 카메라 모듈 수요 증가로, 98.8% 늘어나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

그림 2-7 | 베트남 및 중국 카메라 모듈 수출/비중 추이



자료 : IITP, KTSPI

□ 일본 백색국가 배제에 따른 카메라 모듈 산업의 영향은 미미할 전망(키움증권, '19.7월)

- (국내 스마트폰용)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카메라 중심의 차별화 전략을 추구해 온 과정에서 국내 생태계가 활발하게 발달, 대부분 부품 국산화를 이루고 있어 일본 의존도가 제한적
 - 갤럭시 시리즈의 경우 이미지센서는 과거 삼성전자 시스템LSI와 소니로부터 양분해 조달했으나 현재는 거의 삼성전자 시스템LSI 제품인 것으로 추정
 - 삼성전기는 렌즈와 오토포커스/OIS용 액추에이터를 자체 설계해 제작. 렌즈는 자작 생산능력을 늘리는 한편, 해성옵틱스, 방주, 세코닉스, 코렌 등 다 수의 국내 업체들과 협력
 - LG전자 스마트폰의 경우 이미지센서는 소니 외에 옵티미진, SK하이닉스 등의 제품을 활용. VCM (Voice Coil Motor) 액추에이터는 LG이노텍이 내재화. 렌즈는 역시 국내 업체들로부터 조달
- (애플 아이폰용) 아이폰에 채택되는 이미지센서와 VCM 액추에이터가 주로 일본 제품이지만, 일본이 아이폰의 생산 차질을 의도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 아이폰용 카메라 모듈 부품 공급업체는 △이미지센서-소니, △VCM 액추에이터-Alps, 미츠미, △렌즈-라간 정밀(Largan Precision)
 - 아이폰용 3D 센싱 모듈은 루멘텀과 피니사가 도트 프로젝터 및 투광 일루미네이터용 백셀을 공급하고, 햅타콘과 하이맥스가 웨이퍼 레벨 광학 렌즈를 생산하며, LG이노텍과 폭스콘(샤프)이 이들 부품들을 조립해 도트 프로젝터(송신 모듈)를 제작
- 다만, 렌즈 업체들은 플라스틱 렌즈의 원재료인 특수 레진을 많은 부분 일본 업체에 의존
 - 일본 지온의 광학용 레진(Zeonex)이 굴절률 1.5대 범용 렌즈 수요를 장악하고 있으며 국내 업체로는 LG화학이 고굴절용 레진을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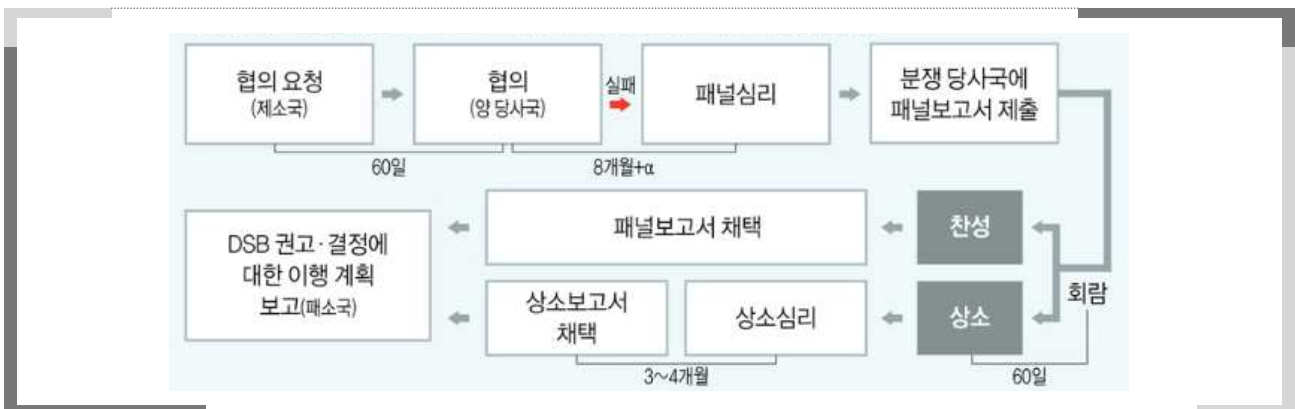


□ 韓 WTO 제소에 따른 양자협의를 수용하며 양국간 통상 분쟁해결을 위한 첫 걸음

- 우리나라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제소(9.11일)한데 이어 일본 정부도 양자 협의에 응한다고 발표(9.20일)하며 양국간 통상 분쟁에 대한 해결 절차가 시작
 - 우리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핵심소재의 수출규제 조치를 한 것이 부당하다며 9.11일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와 WTO 사무국에 양자협의 요청서를 발송
 - ※ 일본이 7.4일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포토레지스트(감광액),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핵심 소재 3개를 한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에는 3년짜리 포괄허가가 아닌 개별허가만을 내주기로 한 지 69일 만의 조치
 - 피소국인 일본은 요청서를 수령한 날(9.11일)로부터 10일 내에 회신을 해야 하는데 기한을 하루 남겨두고 수락 의사를 표명하면서,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 정부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데 성공
- 한국 정부가 부당한 경제적 보복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본은 WTO 협정을 위배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양국간 의견차는 좁혀지지 않는 상황
 - (우리나라) 일본이 3개 품목 수출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해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하는 등 규제를 강화한 것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최혜국 대우(1조), 수량 제한의 일반적 폐지 금지(11조), 무역규칙의 공표 및 시행 의무(10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
 - ※ 전문가들은 GATT 11조(11조 1항에는 WTO 회원국은 수출에 대해 금지 또는 수량제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명시)가 논쟁의 핵심이 될 것으로 분석
 - 한편 일본이 전략물자 수출심사 간소화 대상국인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배제한 것은 제소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는 3개 소재에 한해 법적 분쟁을 일단 시작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일본의 추가적인 수출규제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
 - (일본) 수출규제 강화는 협정 위반이 아니라 안보상 이유에 따른 무역관리제도 변경이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며, 수출규제 조치를 공식화한 이후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에 대해 3건의 수출허가를 내준 바 있어 對한국 수출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고수할 전망
- 통상 분쟁에 대한 양국 간 큰 입장 차로 분쟁해결기구를 통한 절차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간은 다소 소요될 전망
 - 향후 양국은 외교채널을 통해 양자협의 일정을 조율하게 되고, 양자협의를 원칙적으로 요청서 발송 후 30일 이내에 개시, 이후 60일간 진행될 것으로 예측
 - 기간 내 양자협의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국은 제 3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해당하는 패널(분쟁처리위원회) 설치를 WTO에 요구 가능

- ※ 양자협의를 포함해 패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15개월 정도 걸리며, 패널 결과에 한쪽이 불복해 최종심까지 갈 경우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최근 분쟁 증가로 패널 절차에 통상 1~2년 소요되는 등 지연되는 추세이며 일본 상소 시 3년 이상 장기화도 가능)
-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열릴 양자 협의를 요식 행위가 아닌, 분쟁을 해결하는 내실 있는 대화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고위급 협의를 포함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진한다는 방침
- 한편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시행(9.18일)
 - 한국 정부가 발효한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그동안 한국 기업들이 일본에 군사적 용도로 쓸 수 있는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적용해온 우대 혜택을 사실상 철회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
 - ※ 對일본 수출 허가 심사 기간은 기존 5일 이내→15일 이내로 길어지고, 포괄수출허가 유효기간도 3년→2년으로 감소
 -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한국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려는 조치와 관련해 그 근거나 상세한 내용을 한국 정부에 문의했지만 한국 측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명

그림 2-8 | WTO 분쟁해결기구(DSB) 제소 절차



자료 : 한겨레, 2019.9.11. 인용

□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 실무 협상 등 미-중 무역 분쟁을 둘러싼 화해모드 조성

-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갈등 국면을 지속하던 미국과 중국은 10월 재개되는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 재개를 위해 추가관세 면제 등 유화적 환경을 조성
 - 9.1일부터 미국과 중국은 각각 3,000억 달러(10%→15%로 인상), 750억 달러(5~10%) 규모의 상대국 수입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양국 간 무역 전쟁이 격화되는 양상이었으나,
 - 9.1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가 관세 인상을 10.15일로 연기해 시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양국 무역협상 재개를 위한 분위기 반전



- 이에 중국은 9.11일 사료용 유청, 농약, 윤활유 등 16가지 품목에 더 이상의 추가관세를 징수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이어 13일 대두(콩), 돼지고기 등 미국산 일부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 품목에서 제외하기로 결정
 - ※ 콩과 돼지고기에 대한 면제 조치는 미중 무역협상에서 미국 측의 핵심 요구 사안
- 미국 USTR도 9.20일 크리스마스트리 조명과 애완용품, 플라스틱 빨대 등 437개 품목(1차 89개 품목, 2차 310개 품목, 3차 38개 품목)의 중국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방침을 발표
 - ※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중국과의 협상을 위한 방책이라기보다 미국 기업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
- 또한 중국 수입업체는 60만 톤의 미국산 대두를 수입(9.23일)하는 등 긍정적 협상 분위기가 조성
 - ※ 이번 대두 수입 규모는 '18.7월 중국이 미국산 대두의 수입 관세를 25% 인상한 이후 최대 물량(민간 업체 기준)
- 양국은 9.19~20일 차관급 실무 협상을 시작으로 10월 개최될 고위급 무역 협상을 준비
 - 오민 재정부 부부장(차관) 등 약 30명의 중국 실무 협상 대표단은 미국을 방문해 제프리 게리시 무역 대표부(USTR) 부대표가 이끄는 미국 협상팀과 실무 협상을 진행
 - 중국 대표단은 협상기간 중 미국 농업 생산 실태를 살펴보고 친선을 구축하기 위해 미국 몬태나주·네브래스카주 등 곡창지대 방문 일정을 추진(9.20일 예정)하며 긍정적인 분위기 구축
 - 그러나 돌연 일정이 취소되면서 무역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됐으나 9.23일 폭스비즈니스 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므누신 장관은 이에 대해 중국의 불만 표출이 아니라 미국의 요청에 따른 결정이라고 위기설을 일축
 - 또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인터뷰에서 약 2주 뒤인 10월 초 류허 중국 부총리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고위급 회담을 진행한다고 발표
 - 이번 협상에는 미 측에서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므누신 재무장관 등이, 중국 측에서 류허 부총리 등이 참석하며, 위안화 환율 조작을 포함한 통화 문제가 협상의 초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
 - 하지만 미국이 일부 중국 국영기업들을 국가안보 리스크로 선언한 점과 중국이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없애 경제모델을 개혁하지 않는 점 등 양국 정부 간 무역 분쟁의 근간이 되는 사안에 대해 여전히 크게 엇갈리는 부분이 존재
- 한편 미중 경제는 장기간의 무역전쟁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
 - 중국은 8월 산업생산이 4.4%로 '02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미국도 2분기 미국 기업의 소비가 3년 내 최저를 기록하는 등 무역전쟁 장기화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한편 9.16일 리커창 중국 총리는 “중국 경제가 6% 이상 중고속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쉽지 않다”고 공식 발언했으며 이는 경제성장률 6%를 지킨다는 ‘바오류(保六)’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으로 평가

□ 미·중간 무역 갈등 장기화로 관세 회피 위해 중국내 제조업체들의 해외 이전 가속화

- 최근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관세가 붙자 기업들은 중국의 생산 시설을 베트남·태국 등으로 옮기고 있는 상황
 - 중국 제조 기업 사장들의 공개 자료를 집계한 결과, '18.6월 이후 최소 33개사가 해외 이전과 증산, 해외 자회사 등에 대한 추가 투자를 표명(니혼게이자이신문, '19.9월)
 - 해당 매체는 이전의 이유가 해외에서의 수요 확대를 겨냥한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관세 인상의 영향을 피하려는 수동적인 대응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분석
 - 33개 기업 중 24개사가 베트남을 선택했으며, 이는 중국과의 지리적 근접성과 저렴한 인건비, 캄보디아·라오스 등 보다 인프라가 정비되어 있다는 점 등이 이유
 - 한편 중국 인건비 상승과 미국 관세폭탄으로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기 힘들어지자 중국 기업들은 태국으로의 이전을 확대하면서, 태국에서 공장부지를 공급하는 업체인 WHA는 '19~'20년 공업지구 계약의 절반 이상이 중국 업체가 될 것이라고 예상
 - ※ '19년 중국 기업의 태국 공업지구 계약이 전년 대비 12% 상승했으며, 중국의 對태국 FDI도 5배 증가(WHA)
 - 중국 기업뿐 아니라 소니·샤프·할리데이비슨 같은 외국 기업들도 태국으로 이전을 추진하면서 태국 정부는 수요에 발맞추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6개의 산업단지를 추가 운영할 계획
- 반면 중국은 산업단지를 포함하고 있는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외국기업 유치에 사활
 - 글로벌 업체의 脫중국이 늘어나면서 다국적 기업들이 대거 입주해 있는 중국 장쑤성 쑤저우 산업단지(SIP)¹⁴⁾는 올해 상반기 수출 10%, 수입 15% 감소
 - 장쑤성 지방 정부는 대만의 컴팔·위스트론·플렉시움·인벤텍 등 애플 공급업체가 중국 외 지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
 - 산업단지를 포함하고 있는 중국 내 지방 정부는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에게 각종 보조금과 관세 면제 혜택을 제공하며 해외 이전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일부 산업단지에서는 외국 기업들이 속속 해외 이전을 결정해 단지 가동률이 떨어지는 등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
 - 일부 외국 기업들은 무역전쟁 여파로 대미 수출이 어려워지자 생산 물량을 중국 내수시장으로 돌리는 등 생산 및 판매 구조에 변화를 시도
 - ※ 삼성전자는 쑤저우 반도체 공장은 미·중 무역 분쟁 이후, 미국에서 들어온 주문 물량은 모두 서울과 동남아 공장에서 생산하는 반면 기존 미국 수출 물량을 중국 내수 및 미국 외 다른 나라로 공급하는 등 생산량 재배치를 통해 위기를 극복

14) 쑤저우 산업단지는 뉴욕 맨해튼의 5배 면적에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해 1994년 조성한 첨단 단지



- 한편 애플은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에 도움을 요청
 - 비용 절감을 위해 중국 폭스콘에 위탁생산을 하고 있는 애플은 삼성전자 등과 경쟁하는 데 어려움을 토로하며 중국산 수입품에 물리는 추가관세에 대한 면제를 요구
 - ※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을 한국·베트남에서 생산하는 반면 애플은 중국에서 생산하면서 관세부과 대상이 되는 상황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애플의 중국산 부품 관련 관세 면제 요청을 거부해왔으나 '19.8월 애플에 대한 지원 의지를 표명하며 입장을 바꾸기 시작
 - 또한 미국 USTR은 9.22일 애플이 수입 관세 면제를 요청한 중국산 부품 15개 가운데 10개의 품목에 대해 관세부과를 중단하기로 결정
 - ※ 애플이 요청한 품목들은 미국이 '18.9월 관세율 10%를 적용한 약 2,0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포함됐으며 '19.5월부터 25% 관세율을 적용했고, 10월부터는 관세율을 30%까지 올릴 계획



III

부록





III 부록

1 ICT 생산 통계

표 3-1 주요 ICT 품목별 생산 규모(잠정)

(단위 : 억 원, %)

구 분	2018년			2019년					
				5월 당월			5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4,972,994	5.4	100.0	369,333	-9.7	100.0	1,858,071	-8.2	100.0
○ 정보통신방송기기	3,655,480	6.6	73.5	260,776	-13.6	70.6	1,326,514	-11.3	71.4
- 전자부품	2,373,194	8.4	47.7	156,283	-18.2	42.3	818,495	-14.9	44.1
- 컴퓨터 및 주변기기	119,800	5.9	2.4	7,770	-29.0	2.1	37,339	-28.7	2.0
- 통신 및 방송기기	436,185	-1.5	8.8	33,654	-13.5	9.1	167,329	-9.4	9.0
- 영상 및 음향기기	90,244	-9.2	1.8	6,692	-18.6	1.8	33,543	-17.9	1.8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636,057	9.2	12.8	56,376	7.2	15.3	269,808	5.2	14.5
○ 정보통신방송서비스	762,231	1.8	15.3	64,197	0.1	17.4	315,291	-0.9	17.0
- 통신서비스	372,638	-2.0	7.5	30,117	-4.5	8.2	148,646	-5.6	8.0
· 유선통신서비스	103,622	-2.1	2.1	8,335	-5.1	2.3	41,190	-5.3	2.2
· 무선통신서비스	246,886	-2.2	5.0	19,846	-5.2	5.4	97,941	-6.7	5.3
· 통신재판매 및 중개서비스	22,130	1.4	0.4	1,937	6.5	0.5	9,515	5.0	0.5
- 방송서비스	183,588	4.5	3.7	16,197	5.3	4.4	79,445	4.0	4.3
· 지상파방송서비스	35,674	-3.5	0.7	3,044	1.9	0.8	13,886	-5.2	0.7
· 유료방송서비스	62,655	11.2	1.3	5,373	1.0	1.5	26,962	7.7	1.5
· 방송프로그램 제작·공급	84,749	3.5	1.7	7,739	9.9	2.1	38,382	5.1	2.1
- 정보서비스	206,005	6.8	4.1	17,883	3.7	4.8	87,200	3.6	4.7
· 정보인프라서비스	38,488	4.6	0.8	3,227	1.3	0.9	14,655	-7.6	0.8
· 정보매개 및 제공서비스	0	0.0	0.0	14,656	-	4.0	72,545	-	3.9
· 정보매개서비스	45,377	16.5	0.9	0	-	0.0	0	-	0.0
· 정보제공서비스	122,140	4.2	2.5	0	-	0.0	0	-	0.0
○ 소프트웨어	555,283	2.8	11.2	44,360	2.7	12.0	216,266	3.1	11.6
- 패키지 소프트웨어	94,505	6.8	1.9	7,321	0.3	2.0	34,008	1.0	1.8
- 게임 소프트웨어	121,004	5.8	2.4	10,119	-2.8	2.7	52,991	1.1	2.9
- IT 서비스	339,774	0.7	6.8	26,921	5.7	7.3	129,267	4.5	7.0

자료 : KEA, KAIT, 2019.9.

2 2019년 8월 ICT산업 수출입 통계(잠정)

표 3-2 전체산업/ICT산업 연도별 수출입 실적

(단위 : 억 달러, %)

구 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전체산업	ICT산업	증감률	전체산업	ICT산업	증감률	전체산업	ICT산업
2007년	3,714.9	1,301.0	13.2	3,568.5	697.3	7.8	146.4	603.7
2008년	4,220.1	1,311.6	0.8	4,352.7	735.2	5.4	-132.7	576.4
2009년	3,635.3	1,209.5	-7.8	3,230.8	620.2	-15.6	404.5	589.3
2010년	4,663.8	1,539.4	27.3	4,252.1	756.2	21.9	411.7	783.2
2011년	5,552.1	1,566.2	1.7	5,244.1	815.4	7.8	308.0	750.8
2012년	5,478.7	1,552.4	-0.9	5,195.8	779.5	-4.4	282.9	772.8
2013년	5,596.3	1,726.8	11.2	5,155.9	818.0	4.9	440.5	908.8
2014년	5,726.6	1,762.3	2.1	5,255.1	881.7	7.8	471.5	880.7
2015년	5,267.6	1,728.7	-1.9	4,365.0	913.3	3.6	902.6	815.4
2016년	4,954.3	1,624.6	-6.0	4,061.9	898.1	-1.7	892.3	726.5
2017년	5,736.9	1,975.7	21.6	4,784.8	1,020.7	13.7	952.2	955.0
2018년	6,048.6	2,203.4	11.5	5,352.0	1,071.2	4.9	696.6	1,132.2
1/4분기	1,450.5	523.1	18.9	1,324.3	262.4	10.3	126.3	260.7
2/4분기	1,516.2	546.4	16.7	1,331.5	260.3	5.0	184.6	286.1
3/4분기	1,536.4	590.0	12.5	1,303.1	257.5	-0.7	233.3	332.5
4/4분기	1,545.5	543.9	0.2	1,393.1	291.0	5.6	152.3	253.0
상반기	2,966.7	1,069.5	17.7	2,655.8	522.7	7.6	310.9	546.8
하반기	3,081.9	1,133.9	6.2	2,696.2	548.5	2.5	385.6	585.4
1월	492.2	176.9	28.0	458.1	93.4	19.7	34.2	83.5
2월	445.2	156.8	11.6	417.2	78.3	7.1	28.0	78.5
3월	513.1	189.4	17.4	449.0	90.6	4.6	64.1	98.7
4월	498.5	170.3	9.6	436.9	86.7	9.9	61.6	83.6
5월	506.9	185.0	20.1	444.6	87.4	9.0	62.3	97.6
6월	510.8	191.2	20.3	450.0	86.3	-2.9	60.8	104.9
7월	518.1	185.5	18.2	449.2	91.1	9.9	68.9	94.5
8월	511.8	201.7	15.4	443.6	86.6	0.6	68.2	115.1
9월	506.5	202.7	5.3	410.3	79.9	-11.7	96.2	122.8
10월	548.6	201.9	12.2	484.8	100.3	10.2	63.8	101.6
11월	514.8	182.9	-1.7	468.1	97.7	3.0	46.7	85.2
12월	482.1	159.1	-10.1	440.2	93.0	3.6	41.8	66.1
2019년	3,174.8	1,017.7	-18.9	2,958.3	633.4	3.2	216.4	384.3
1/4분기	1,326.7	429.3	-17.9	1,235.0	258.9	-1.3	91.7	170.4
2/4분기	1,386.7	443.3	-18.9	1,286.3	277.1	6.4	100.3	166.2
상반기	2,713.4	872.6	-18.4	2,521.3	536.0	2.6	192.0	336.5
1월	461.8	144.3	-18.4	450.5	94.1	0.7	11.3	50.3
2월	394.8	126.7	-19.2	365.2	72.9	-6.9	29.6	53.8
3월	470.1	158.3	-16.4	419.4	91.9	1.4	50.7	66.3
4월	488.0	152.0	-10.8	449.1	94.8	9.4	38.9	57.1
5월	457.7	143.1	-22.6	436.3	96.8	10.8	21.4	46.3
6월	440.9	148.2	-22.5	401.0	85.5	-0.9	40.0	62.7
7월	461.4	145.1	-21.8	437.0	97.4	6.9	24.4	47.7
8월	442.0	152.3	-24.5	424.8	88.2	1.9	17.2	64.1

자료 : IITP, KTSPI



표 3-3 주요 ICT 품목별 수출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18년			2019년					
				8월 당월			8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정보통신방송기기	220,340	11.5	100.0	15,227	-24.5	100.0	116,981	-19.7	100.0
○전자부품	166,047	18.3	75.4	11,141	-28.3	73.2	84,615	-22.4	72.3
- 반도체	128,145	28.6	58.2	8,087	-30.5	53.1	63,794	-24.2	54.5
· 메모리반도체	94,078	40.1	42.7	5,197	-39.6	34.1	42,757	-30.2	36.6
· 시스템반도체	26,466	4.4	12.0	2,339	-1.3	15.4	16,604	-6.1	14.2
- 디스플레이	27,760	-8.4	12.6	2,177	-26.7	14.3	14,345	-21.0	12.3
- 전자관	7	11.9	0.0	0	77.1	0.0	3	4.2	0.0
- 수동부품	2,049	10.9	0.9	165	-16.1	1.1	1,286	-5.6	1.1
PCB	4,996	-9.6	2.3	445	-3.6	2.9	3,164	-4.5	2.7
- 접속부품	2,841	3.5	1.3	248	0.0	1.6	1,880	0.3	1.6
- 기타전자부품	180	-0.3	0.1	14	-5.4	0.1	103	-13.5	0.1
○컴퓨터 및 주변기기	11,269	17.4	5.1	679	-30.6	4.5	5,344	-31.7	4.6
- 컴퓨터	1,537	23.4	0.7	145	23.2	0.9	1,336	61.3	1.1
- 주변기기	9,732	16.5	4.4	534	-37.9	3.5	4,008	-42.7	3.4
· 디스플레이장치	1,142	9.4	0.5	70	-27.0	0.5	646	-16.3	0.6
· 프린터(부분품포함)	538	-17.3	0.2	33	-32.6	0.2	298	-15.6	0.3
· 보조기억장치	7,205	19.9	3.3	384	-34.0	2.5	2,672	-49.7	2.3
○통신 및 방송기기	17,576	-22.3	8.0	1,274	-18.7	8.4	9,168	-24.2	7.8
- 통신기기	17,150	-23.0	7.8	1,240	-18.9	8.1	8,930	-24.5	7.6
· 유선통신기기	959	17.6	0.4	67	-21.0	0.4	541	-14.1	0.5
· 무선통신기기	16,191	-24.5	7.3	1,173	-18.8	7.7	8,388	-25.1	7.2
휴대폰(부분품 포함)	14,596	-23.3	6.6	1,062	-18.2	7.0	7,609	-24.7	6.5
- 방송용 장비	426	20.9	0.2	34	-10.8	0.2	239	-13.9	0.2
○영상 및 음향기기	3,079	-18.8	1.4	364	53.6	2.4	3,174	59.9	2.7
- 영상기기	2,059	-22.2	0.9	286	86.4	1.9	2,524	89.5	2.2
· TV	1,645	-27.3	0.7	257	109.3	1.7	2,277	115.6	1.9
LCD TV	447	-27.0	0.2	30	-0.2	0.2	272	-26.1	0.2
TV 부분품	1,026	-29.3	0.5	222	162.0	1.5	1,937	238.7	1.7
· 셋탑박스	39	-35.3	0.0	0	-80.1	0.0	13	-45.7	0.0
- 음향기기	969	-9.9	0.4	77	-4.2	0.5	626	1.2	0.5
- 기타 영상음향기기	52	-27.5	0.0	2	-48.6	0.0	25	-28.4	0.0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22,369	5.3	10.2	1,768	-4.7	11.6	14,680	-0.3	12.5
-가정용전기기기	3,568	-17.3	1.6	260	0.9	1.7	2,420	0.4	2.1
-사무용기기	263	11.0	0.1	26	47.8	0.2	219	24.2	0.2
-의료용기기	2,084	8.9	0.9	150	-13.1	1.0	1,346	1.9	1.2
-전기 장비	10,433	15.0	4.7	872	1.2	5.7	6,996	4.2	6.0
· 일차전지 및 축전지	7,334	21.7	3.3	642	3.5	4.2	5,023	6.9	4.3

주) SW 및 콘텐츠는 통관기준으로 집계되는 CD 등 저장매체에 기록된 품목에 한정된 수출입 자료임
 자료 : IITP, KTSPI

표 3-4 | 주요 ICT 품목별 수입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18년			2019년					
				8월 당월			8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정보통신방송기기	107,119	4.9	100.0	8,819	1.9	100.0	72,158	3.0	100.0
○ 전자부품	58,630	7.8	54.7	4,871	-3.8	55.2	39,478	3.0	54.7
- 반도체	44,946	8.5	42.0	3,907	1.9	44.3	32,106	10.8	44.5
· 메모리반도체	16,269	32.0	15.2	1,474	12.9	16.7	13,795	45.4	19.1
· 시스템반도체	21,406	-5.0	20.0	1,819	-4.7	20.6	13,484	-8.1	18.7
- 디스플레이	6,744	10.1	6.3	337	-45.3	3.8	2,867	-40.5	4.0
- 전자관	66	-1.4	0.1	4	-11.8	0.0	29	-23.4	0.0
- 수동부품	2,047	11.8	1.9	183	-8.0	2.1	1,337	-0.7	1.9
PCB	2,228	-7.1	2.1	220	13.2	2.5	1,415	-0.5	2.0
- 접속부품	2,232	1.8	2.1	190	3.9	2.2	1,481	-0.4	2.1
- 기타전자부품	276	5.0	0.3	22	-7.8	0.2	185	-1.0	0.3
○ 컴퓨터 및 주변기기	12,850	8.2	12.0	797	-17.8	9.0	7,432	-16.4	10.3
- 컴퓨터	6,618	7.1	6.2	482	-0.5	5.5	4,592	3.1	6.4
- 주변기기	6,232	9.3	5.8	315	-35.0	3.6	2,840	-36.0	3.9
· 디스플레이장치	743	2.6	0.7	57	-2.6	0.7	454	-9.5	0.6
· 프린터(부분품포함)	928	-9.5	0.9	59	-14.0	0.7	606	-4.1	0.8
· 보조기억장치	3,488	34.1	3.3	116	-54.7	1.3	1,134	-56.1	1.6
○ 통신 및 방송기기	13,914	-11.7	13.0	1,278	26.7	14.5	9,689	15.7	13.4
- 통신기기	13,636	-11.9	12.7	1,244	26.2	14.1	9,466	15.4	13.1
· 유선통신기기	1,783	3.4	1.7	187	7.7	2.1	1,494	32.3	2.1
· 무선통신기기	11,853	-13.8	11.1	1,058	30.2	12.0	7,971	12.7	11.0
휴대폰(부분품 포함)	10,041	-17.4	9.4	773	15.3	8.8	5,949	-0.8	8.2
- 방송용 장비	278	-2.2	0.3	34	48.8	0.4	224	30.6	0.3
○ 영상 및 음향기기	3,021	5.2	2.8	375	73.2	4.3	3,266	72.5	4.5
- 영상기기	1,461	12.1	1.4	271	165.5	3.1	2,331	169.6	3.2
· TV	941	20.9	0.9	233	294.1	2.6	1,975	279.5	2.7
LCD TV	618	-2.6	0.6	50	8.7	0.6	413	-1.6	0.6
TV 부분품	217	202.9	0.2	176	4,112.7	2.0	1,491	3,612.2	2.1
· 셋탑박스	130	12.0	0.1	8	-32.9	0.1	102	11.8	0.1
- 음향기기	1,206	-6.7	1.1	81	-13.1	0.9	748	-7.5	1.0
- 기타 영상음향기기	353	29.0	0.3	23	9.3	0.3	187	-15.0	0.3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18,703	9.0	17.5	1,498	7.1	17.0	12,292	-2.0	17.0
- 가정용전기기기	3,495	18.8	3.3	268	8.4	3.0	2,559	6.2	3.5
- 사무용기기	36	-3.3	0.0	2	24.4	0.0	32	28.8	0.0
- 의료용기기	1,945	11.7	1.8	164	7.6	1.9	1,370	9.0	1.9
- 전기 장비	5,786	16.6	5.4	435	2.6	4.9	3,565	-9.1	4.9
· 일차전지 및 축전지	2,204	42.7	2.1	191	4.3	2.2	1,486	2.4	2.1

주) SW 및 콘텐츠는 통관기준으로 집계되는 CD 등 저장매체에 기록된 품목에 한정된 수출입 자료임
 자료 : IITP, KTSPI



표 3-5 | 주요 ICT 품목별 무역수지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18년			2019년			
				8월 당월			8월 누적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지
정보통신방송기기	220,340	107,119	113,222	15,227	8,819	6,408	44,823
○전자부품	166,047	58,630	107,417	11,141	4,871	6,270	45,136
- 반도체	128,145	44,946	83,199	8,087	3,907	4,180	31,688
· 메모리반도체	94,078	16,269	77,809	5,197	1,474	3,723	28,962
· 시스템반도체	26,466	21,406	5,061	2,339	1,819	520	3,120
- 디스플레이	27,760	6,744	21,015	2,177	337	1,839	11,478
- 전자관	7	66	-59	0	4	-3	-26
- 수동부품	2,049	2,047	2	165	183	-18	-51
PCB	4,996	2,228	2,767	445	220	225	1,749
- 접속부품	2,841	2,232	609	248	190	57	399
- 기타전자부품	180	276	-96	14	22	-8	-82
○컴퓨터 및 주변기기	11,269	12,850	-1,581	679	797	-118	-2,089
- 컴퓨터	1,537	6,618	-5,081	145	482	-338	-3,256
- 주변기기	9,732	6,232	3,500	534	315	220	1,168
· 디스플레이장치	1,142	743	399	70	57	12	191
· 프린터(부분품포함)	538	928	-389	33	59	-26	-308
· 보조기억장치	7,205	3,488	3,716	384	116	268	1,538
○통신 및 방송기기	17,576	13,914	3,662	1,274	1,278	-4	-521
- 통신기기	17,150	13,636	3,514	1,240	1,244	-4	-536
· 유선통신기기	959	1,783	-824	67	187	-120	-953
· 무선통신기기	16,191	11,853	4,338	1,173	1,058	116	417
휴대폰(부분품 포함)	14,596	10,041	4,555	1,062	773	290	1,660
- 방송용 장비	426	278	148	34	34	0	15
○영상 및 음향기기	3,079	3,021	59	364	375	-11	-92
- 영상기기	2,059	1,461	597	286	271	15	193
· TV	1,645	941	705	257	233	25	302
LCD TV	447	618	-171	30	50	-20	-141
TV 부분품	1,026	217	809	222	176	46	445
· 셋탑박스	39	130	-91	0	8	-8	-89
- 음향기기	969	1,206	-238	77	81	-4	-122
- 기타 영상음향기기	52	353	-301	2	23	-21	-163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22,369	18,703	3,666	1,768	1,498	271	2,388
- 가정용전기기기	3,568	3,495	73	260	268	-7	-139
- 사무용기기	263	36	228	26	2	23	187
- 의료용기기	2,084	1,945	140	150	164	-14	-24
- 전기 장비	10,433	5,786	4,647	872	435	437	3,431
· 일차전지 및 축전지	7,334	2,204	5,131	642	191	451	3,537

주) SW 및 콘텐츠는 통관기준으로 집계되는 CD 등 저장매체에 기록된 품목에 한정된 수출입 자료임
 자료 : IITP, KTSPI

표 3-6 주요 지역별 ICT 수출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18년			2019년					
	금액	증가율	비중	8월 당월			8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전세계	220,340	11.5	100.0	15,227	-24.5	100.0	116,981	-19.7	100.0
○ 아시아	175,975	12.9	79.9	12,019	-26.3	78.9	90,922	-22.1	77.7
- 중국(홍콩포함)	119,353	14.4	54.2	7,352	-32.6	48.3	57,323	-28.6	49.0
- 일 본	4,342	4.2	2.0	325	1.8	2.1	2,676	-8.3	2.3
- ASEAN	41,549	7.8	18.9	3,627	-8.2	23.8	25,160	-6.5	21.5
· 싱가포르	3,440	-7.7	1.6	199	-32.1	1.3	1,916	-18.7	1.6
· 인 니	886	16.3	0.4	65	-21.2	0.4	603	-0.1	0.5
· 말 련	1,959	9.1	0.9	192	11.0	1.3	1,268	-3.6	1.1
· 태 국	1,202	-13.5	0.5	90	-9.5	0.6	742	-8.8	0.6
· 베트남	27,887	8.1	12.7	2,817	1.1	18.5	18,109	2.1	15.5
- 대 만	7,670	41.7	3.5	433	-46.4	2.8	3,589	-22.9	3.1
- 인 도	2,729	-12.8	1.2	254	-8.0	1.7	1,966	9.3	1.7
○ 북미	21,628	15.0	9.8	1,553	-16.2	10.2	12,544	-7.5	10.7
- 미 국	20,541	13.2	9.3	1,488	-14.6	9.8	11,952	-7.1	10.2
- 캐나다	971	94.6	0.4	57	-44.0	0.4	529	-13.4	0.5
○ 유럽	13,170	11.9	6.0	982	-14.2	6.5	7,816	-10.0	6.7
- EU	11,822	14.1	5.4	876	-15.3	5.8	7,043	-9.3	6.0
· 영 국	483	-21.1	0.2	55	24.2	0.4	373	12.9	0.3
· 독 일	3,398	20.4	1.5	215	-31.3	1.4	1,749	-23.4	1.5
· 프랑스	927	39.9	0.4	57	-30.1	0.4	597	-0.7	0.5
· 이탈리아	319	10.0	0.1	16	-24.2	0.1	199	-7.0	0.2
- 러시아	637	-3.2	0.3	61	-4.6	0.4	414	1.7	0.4
○ 중동	2,373	-30.4	1.1	164	33.0	1.1	1,272	-25.4	1.1
- 사우디	282	-29.2	0.1	15	7.7	0.1	153	-17.9	0.1
- UAE	554	-39.0	0.3	40	56.0	0.3	295	-31.2	0.3
○ 중남미	5,942	-9.4	2.7	433	-26.5	2.8	3,631	-12.7	3.1
- 브라질	1,982	-21.6	0.9	158	2.5	1.0	1,243	-14.0	1.1
- 멕시코	3,290	-2.8	1.5	220	-45.7	1.4	1,963	-16.2	1.7
- 칠 레	95	-12.7	0.0	6	-23.9	0.0	56	-14.6	0.0
○ 대양주	754	2.1	0.3	48	-25.4	0.3	528	4.4	0.5
- 호 주	661	0.5	0.3	43	-25.2	0.3	473	5.7	0.4
○ 아프리카	490	35.2	0.2	27	-71.1	0.2	263	-19.3	0.2
※ 브릭스	86,960	9.2	39.5	5,740	-27.6	37.7	44,050	-24.2	37.7

자료 : IITP, KTSPI



표 3-7 주요 지역별 ICT 수입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18년			2019년					
	금액	증가율	비중	8월 당월			8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전세계	107,119	4.9	100.0	8,819	1.9	100.0	72,158	3.0	100.0
○ 아시아	87,716	5.7	81.9	7,398	4.9	83.9	58,905	2.6	81.6
- 중국(홍콩포함)	45,930	10.6	42.9	2,931	-16.4	33.2	30,867	5.1	42.8
- 일 본	10,882	-3.9	10.2	838	-4.9	9.5	6,588	-9.4	9.1
- ASEAN	18,847	7.8	17.6	1,689	11.8	19.1	13,130	4.7	18.2
· 싱가포르	3,329	-3.8	3.1	206	-28.1	2.3	1,873	-15.2	2.6
· 인 니	421	2.1	0.4	37	5.7	0.4	295	-3.0	0.4
· 말 련	3,389	10.1	3.2	256	-7.5	2.9	2,064	-9.7	2.9
· 태 국	1,360	-16.1	1.3	108	2.0	1.2	890	-5.7	1.2
· 베트남	8,556	19.4	8.0	907	30.2	10.3	6,421	10.5	8.9
- 대 만	11,940	-5.1	11.1	948	-16.9	10.8	7,262	-10.9	10.1
- 인 도	108	-7.2	0.1	7	-36.2	0.1	69	-8.0	0.1
○ 북미	8,978	-7.0	8.4	703	5.3	8.0	5,977	-0.9	8.3
- 미 국	8,630	-7.1	8.1	677	5.2	7.7	5,766	-0.5	8.0
- 캐나다	216	-3.3	0.2	17	5.6	0.2	137	-4.9	0.2
○ 유럽	7,016	-2.5	6.5	575	0.2	6.5	4,924	7.4	6.8
- EU	6,627	-1.9	6.2	543	-0.8	6.2	4,645	7.3	6.4
· 영 국	522	5.6	0.5	55	36.4	0.6	359	12.4	0.5
· 독 일	2,944	-0.8	2.7	231	-7.7	2.6	1,794	-7.0	2.5
· 프랑스	724	-3.8	0.7	56	-0.4	0.6	516	9.6	0.7
· 이탈리아	314	6.2	0.3	24	5.4	0.3	214	7.9	0.3
- 러시아	17	-13.3	0.0	1	2.1	0.0	13	10.2	0.0
○ 중동	620	-1.1	0.6	63	44.1	0.7	287	-34.0	0.4
- 사우디	2	-58.2	0.0	0	-92.0	0.0	0	-83.3	0.0
- UAE	86	-24.7	0.1	7	3.8	0.1	42	-24.1	0.1
○ 중남미	779	1.1	0.7	64	-2.8	0.7	597	17.8	0.8
- 브라질	13	-46.1	0.0	0	-41.1	0.0	6	-37.4	0.0
- 멕시코	761	3.0	0.7	64	-1.9	0.7	583	18.1	0.8
- 칠 레	2	13.9	0.0	0	-85.4	0.0	2	0.8	0.0
○ 대양주	105	6.0	0.1	8	-10.2	0.1	93	45.3	0.1
- 호 주	73	9.4	0.1	5	-13.3	0.1	71	67.2	0.1
○ 아프리카	57	-13.8	0.1	7	35.5	0.1	38	-4.4	0.1
※ 브릭스	44,726	10.6	41.8	2,907	-14.8	33.0	30,110	5.4	41.7

자료 : IITP, KTSPI

표 3-8 | 주요 지역별 ICT 무역수지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18년			2019년			
	수출	수입	수지	8월 당월			8월 누적
				수출	수입	수지	수지
전세계	220,340	107,119	113,222	15,227	8,819	6,408	44,823
○ 아시아	175,975	87,716	88,259	12,019	7,398	4,621	32,018
- 중국(홍콩포함)	119,353	45,930	73,422	7,352	2,931	4,421	26,456
- 일 본	4,342	10,882	-6,539	325	838	-514	-3,913
- ASEAN	41,549	18,847	22,702	3,627	1,689	1,938	12,030
· 싱가포르	3,440	3,329	111	199	206	-8	42
· 인 니	886	421	465	65	37	28	308
· 말 련	1,959	3,389	-1,430	192	256	-65	-795
· 태 국	1,202	1,360	-157	90	108	-18	-148
· 베트남	27,887	8,556	19,331	2,817	907	1,909	11,688
- 대 만	7,670	11,940	-4,270	433	948	-515	-3,673
- 인 도	2,729	108	2,621	254	7	247	1,897
○ 북미	21,628	8,978	12,650	1,553	703	850	6,566
- 미 국	20,541	8,630	11,911	1,488	677	810	6,186
- 캐나다	971	216	755	57	17	40	392
○ 유럽	13,170	7,016	6,154	982	575	408	2,892
- EU	11,822	6,627	5,195	876	543	333	2,398
· 영 국	483	522	-39	55	55	0	14
· 독 일	3,398	2,944	454	215	231	-17	-45
· 프랑스	927	724	202	57	56	1	81
· 이탈리아	319	314	4	16	24	-8	-15
- 러시아	637	17	620	61	1	60	401
○ 중동	2,373	620	1,754	164	63	102	985
- 사우디	282	2	280	15	0	15	153
- UAE	554	86	468	40	7	33	252
○ 중남미	5,942	779	5,163	433	64	369	3,034
- 브라질	1,982	13	1,968	158	0	157	1,238
- 멕시코	3,290	761	2,529	220	64	156	1,380
- 칠 레	95	2	93	6	0	6	55
○ 대양주	754	105	649	48	8	40	436
- 호 주	661	73	588	43	5	38	403
○ 아프리카	490	57	433	27	7	19	225
※ 브릭스	86,960	44,726	42,234	5,740	2,907	2,833	13,940

자료 : IITP, KTSPI



3 주요국 ICT 수출입 통계

표 3-9 중국 ICT 품목별 수출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18년			2019년					
	금액	증가율	비중	6월 당월			1~6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9,374	8.4	100.0	769	-1.1	100.0	4,305	-0.9	100.0
○ 전자부품	2,334	15.2	24.9	202	0.9	26.3	1,145	2.6	26.6
- 반도체	1,622	24.5	17.3	144	4.0	18.7	809	5.7	18.8
- 디스플레이 패널	251	-17.3	2.7	21	-5.9	2.8	126	-6.1	2.9
- 전자관	1	-28.2	0.0	0	-40.2	0.0	1	-10.5	0.0
- 수동부품	96	14.7	1.0	7	-19.7	0.9	40	-10.5	0.9
- PCB	153	9.3	1.6	12	-4.0	1.6	69	-3.5	1.6
- 접속부품	185	7.7	2.0	16	0.4	2.1	89	2.0	2.1
- 기타 전자부품	26	13.8	0.3	2	-6.7	0.3	12	-7.5	0.3
○ 컴퓨터 및 주변기기	1,899	7.4	20.3	169	4.7	22.0	874	-0.1	20.3
- 컴퓨터	1,248	10.5	13.3	114	9.8	14.8	571	1.4	13.3
- 주변기기	652	1.9	7.0	55	-4.4	7.2	303	-2.9	7.0
· 디스플레이장치	154	9.3	1.6	14	2.8	1.8	75	1.6	1.7
· 프린터(부품포함)	172	-2.8	1.8	14	-8.3	1.8	78	-8.1	1.8
· 보조기억장치	178	-4.8	1.9	16	-3.2	2.1	82	-3.4	1.9
· 저장 매체	32	6.9	0.3	3	22.3	0.4	15	7.1	0.4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116	10.6	1.2	8	-16.2	1.1	52	-2.9	1.2
○ 통신 및 방송기기	2,544	9.3	27.1	166	-10.9	21.6	1,017	-8.9	23.6
- 통신기기	2,437	9.0	26.0	157	-11.3	20.5	972	-9.1	22.6
· 유선통신기기	444	15.9	4.7	40	10.1	5.2	215	14.5	5.0
· 무선통신기기	1,993	7.5	21.3	118	-16.7	15.3	757	-14.1	17.6
- 방송국용 기기	108	17.6	1.1	8	-2.3	1.1	45	-5.7	1.1
○ 영상 및 음향기기	677	-3.0	7.2	53	-4.5	6.9	280	-7.3	6.5
- 영상기기	351	2.1	3.7	27	-1.7	3.5	150	-5.6	3.5
- 음향기기	214	-2.6	2.3	16	-4.3	2.1	90	-6.2	2.1
- 기타 영상음향기기	111	-16.7	1.2	10	-11.1	1.4	40	-15.4	0.9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1,920	5.1	20.5	178	2.8	23.2	987	5.8	22.9
- 가정용 기기	727	10.1	7.8	66	3.3	8.6	378	5.9	8.8
- 사무용 기기	41	0.3	0.4	4	3.5	0.5	21	7.7	0.5
- 의료용 기기	92	2.8	1.0	9	8.2	1.2	52	10.0	1.2
- 측정 제어 분석기기	175	-1.9	1.9	18	2.7	2.3	93	1.9	2.2
- 전기 장비	885	3.3	9.4	81	1.8	10.6	443	6.0	10.3
· 건전지 및 축전지	184	24.0	2.0	17	9.6	2.2	95	12.6	2.2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0 | 중국 ICT 품목별 수입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18년			2019년					
	금액	증가율	비중	6월 당월			1~6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6,407	11.9	100.0	489	-4.7	100.0	2,817	-7.4	100.0
○전자부품	4,468	14.6	69.7	341	-5.5	69.7	1,973	-7.1	70.0
- 반도체	3,626	19.4	56.6	282	-3.1	57.7	1,614	-5.8	57.3
- 디스플레이 패널	338	-18.4	5.3	25	-11.2	5.1	156	-13.0	5.6
- 전자관	2	1.9	0.0	0	-16.5	0.0	1	-6.2	0.0
- 수동부품	178	29.8	2.8	11	-28.6	2.2	66	-18.3	2.3
- PCB	124	7.1	1.9	8	-8.7	1.7	49	-8.2	1.7
- 접속부품	195	4.2	3.0	14	-13.2	2.9	85	-10.1	3.0
- 기타 전자부품	6	-4.8	0.1	0	-29.9	0.1	2	-21.5	0.1
○컴퓨터 및 주변기기	435	14.4	6.8	35	-7.9	7.2	198	-4.0	7.0
- 컴퓨터	47	17.4	0.7	3	-34.1	0.5	16	-27.8	0.6
- 주변기기	388	14.1	6.1	32	-4.9	6.6	183	-1.2	6.5
· 디스플레이장치	6	37.0	0.1	1	13.7	0.1	4	38.5	0.1
· 프린터(부품포함)	72	4.1	1.1	5	-14.2	1.1	33	-6.5	1.2
· 보조기억장치	225	22.3	3.5	19	-3.7	4.0	106	-0.9	3.8
· 저장 매체	45	-1.7	0.7	3	-17.8	0.7	20	-9.4	0.7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40	8.9	0.6	4	19.6	0.8	20	11.6	0.7
○통신 및 방송기기	546	1.5	8.5	35	3.4	7.1	196	-15.5	6.9
- 통신기기	500	2.3	7.8	32	4.7	6.6	179	-15.4	6.3
· 유선통신기기	62	8.1	1.0	5	-5.9	1.0	29	2.8	1.0
· 무선통신기기	439	1.5	6.8	28	6.8	5.7	149	-18.2	5.3
- 방송국용 기기	45	-5.6	0.7	2	-12.4	0.5	17	-17.2	0.6
○영상 및 음향기기	178	-1.7	2.8	11	-8.3	2.3	64	-21.4	2.3
- 영상기기	125	-0.2	2.0	7	-12.5	1.5	41	-28.4	1.5
- 음향기기	50	-2.1	0.8	3	-5.4	0.7	20	-10.6	0.7
- 기타 영상음향기기	3	-33.8	0.1	1	67.9	0.1	3	69.2	0.1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780	7.1	12.2	67	-2.5	13.7	386	-2.9	13.7
- 가정용 기기	179	13.1	2.8	15	-6.4	3.0	86	-3.0	3.1
- 사무용 기기	6	-15.9	0.1	0	-12.8	0.1	3	-14.0	0.1
- 의료용 기기	90	3.0	1.4	10	5.3	2.0	49	3.5	1.7
- 측정 제어 분석기기	316	4.2	4.9	27	-5.7	5.6	160	-5.5	5.7
- 전기 장비	189	9.5	3.0	15	3.5	3.1	89	-0.7	3.1
· 건전지 및 축전지	74	13.4	1.1	5	-7.4	1.1	33	-2.4	1.2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1 미국 ICT 품목별 수출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18년			2019년					
				5월 당월			1~5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2,717	3.2	100.0	225	0.4	100.0	1,107	-0.2	100.0
○ 전자부품	890	4.6	32.8	75	-3.7	33.1	368	0.2	33.3
- 반도체	645	3.9	23.8	55	-0.8	24.5	271	2.7	24.5
- 디스플레이 패널	33	7.6	1.2	3	-7.8	1.2	13	-1.2	1.2
- 전자관	3	1.4	0.1	0	41.6	0.2	1	15.4	0.1
- 수동부품	37	18.3	1.3	3	-19.2	1.2	14	-9.4	1.3
- PCB	16	-8.9	0.6	1	-17.3	0.5	6	-21.5	0.5
- 접속부품	153	5.6	5.6	12	-9.6	5.5	62	-4.8	5.6
- 기타 전자부품	3	21.8	0.1	0	-37.9	0.1	1	-23.8	0.1
○ 컴퓨터 및 주변기기	376	5.7	13.8	29	-0.2	13.0	151	-1.3	13.7
- 컴퓨터	156	6.4	5.7	12	6.3	5.5	62	3.2	5.6
- 주변기기	220	5.2	8.1	17	-4.5	7.6	89	-4.2	8.0
· 디스플레이장치	18	3.0	0.7	1	1.7	0.7	7	0.6	0.7
· 프린터(부품포함)	45	0.8	1.7	4	-8.3	1.6	19	-2.0	1.7
· 보조기억장치	61	2.3	2.2	5	-10.8	2.0	23	-15.3	2.1
· 저장 매체	47	14.9	1.7	3	-5.6	1.4	18	-3.5	1.6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50	5.3	1.8	4	6.1	1.9	22	5.8	2.0
○ 통신 및 방송기기	397	-4.7	14.6	32	5.0	14.0	155	-2.7	14.0
- 통신기기	364	-4.3	13.4	29	5.6	12.7	142	-1.8	12.9
· 유선통신기기	191	0.9	7.0	15	0.9	6.5	73	-3.4	6.6
· 무선통신기기	173	-9.5	6.4	14	11.0	6.2	69	-0.1	6.3
- 방송국용 기기	33	-8.6	1.2	3	-0.6	1.3	13	-11.4	1.2
○ 영상 및 음향기기	109	-4.2	4.0	8	-6.9	3.7	40	-8.5	3.6
- 영상기기	50	-3.0	1.9	4	-8.9	1.8	19	-7.0	1.7
- 음향기기	42	-3.8	1.6	3	-0.9	1.5	16	-6.0	1.5
- 기타 영상음향기기	17	-8.5	0.6	1	-17.6	0.4	4	-22.5	0.4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945	5.5	34.8	81	3.7	36.1	393	2.0	35.5
- 가정용 기기	133	4.3	4.9	12	5.9	5.1	54	0.1	4.9
- 사무용 기기	12	-4.5	0.4	1	-3.7	0.4	4	-11.0	0.4
- 의료용 기기	257	5.2	9.5	22	7.1	10.0	109	4.4	9.9
- 측정 제어 분석기기	305	7.5	11.2	26	3.9	11.6	126	2.1	11.4
- 전기 장비	238	4.5	8.8	20	-1.0	9.0	99	0.8	9.0
· 건전지 및 축전지	53	7.8	1.9	4	-4.9	2.0	22	0.2	2.0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2 미국 ICT 품목별 수입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18년			2019년					
	금액	증가율	비중	5월 당월			1~5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5,427	4.7	100.0	438	-4.2	100.0	2,020	-4.7	100.0
○ 전자부품	961	7.6	17.7	73	-14.2	16.6	347	-12.3	17.2
- 반도체	728	7.1	13.4	54	-17.0	12.2	253	-15.4	12.5
- 디스플레이 패널	32	11.7	0.6	3	-10.1	0.6	12	-12.0	0.6
- 전자관	3	8.8	0.0	0	0.5	0.0	1	5.7	0.1
- 수동부품	38	21.0	0.7	3	-10.4	0.7	16	2.4	0.8
- PCB	21	5.3	0.4	2	-3.7	0.4	8	-5.2	0.4
- 접속부품	133	5.8	2.5	11	-3.0	2.6	54	-1.9	2.7
- 기타 전자부품	6	29.0	0.1	1	-3.2	0.1	2	5.5	0.1
○ 컴퓨터 및 주변기기	1,281	7.4	23.6	111	-2.1	25.3	483	-1.9	23.9
- 컴퓨터	759	12.1	14.0	70	0.8	15.9	291	1.5	14.4
- 주변기기	521	1.2	9.6	41	-6.7	9.4	192	-6.6	9.5
· 디스플레이장치	88	-0.2	1.6	8	-2.6	1.8	36	6.5	1.8
· 프린터(부품포함)	154	-2.0	2.8	13	-6.2	3.0	60	-3.0	3.0
· 보조기억장치	93	-5.6	1.7	6	-27.7	1.4	27	-33.5	1.3
· 저장 매체	113	6.2	2.1	9	10.2	2.0	42	3.1	2.1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74	13.1	1.4	6	-6.7	1.3	27	-4.7	1.3
○ 통신 및 방송기기	1,261	-2.8	23.2	92	-8.0	21.0	442	-10.0	21.9
- 통신기기	1,148	-2.7	21.2	83	-8.2	18.9	402	-10.2	19.9
· 유선통신기기	505	-1.0	9.3	34	-28.3	7.8	154	-23.2	7.6
· 무선통신기기	643	-3.9	11.9	49	14.2	11.1	248	0.3	12.3
- 방송국용 기기	113	-4.3	2.1	9	-6.6	2.1	40	-7.8	2.0
○ 영상 및 음향기기	353	0.3	6.5	26	3.7	5.9	118	0.3	5.8
- 영상기기	183	-2.9	3.4	14	9.1	3.3	68	15.4	3.3
- 음향기기	103	-2.8	1.9	9	1.9	2.0	39	-0.9	1.9
- 기타 영상음향기기	67	16.9	1.2	3	-11.9	0.7	12	-41.5	0.6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1,572	8.6	29.0	136	1.9	31.1	631	1.3	31.2
- 가정용 기기	404	8.9	7.4	34	-2.8	7.8	154	-2.6	7.6
- 사무용 기기	27	4.2	0.5	3	11.5	0.6	12	13.4	0.6
- 의료용 기기	285	9.1	5.3	27	12.0	6.1	122	8.0	6.1
- 측정 제어 분석기기	292	5.7	5.4	25	0.7	5.7	118	-0.8	5.8
- 전기 장비	565	9.9	10.4	48	0.3	10.9	224	1.1	11.1
· 건전지 및 축전지	90	12.2	1.7	7	-1.7	1.7	37	2.9	1.8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3 | 일본 ICT 품목별 수출

(단위 : 억 엔, %)

구 분	2018년			2019년					
				6월 당월			1~6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163,159	1.6	100.0	12,752	-7.6	100.0	72,496	-6.8	100.0
○ 전자부품	81,745	1.9	50.1	6,399	-7.2	50.2	35,940	-6.5	49.6
- 반도체	47,209	4.7	28.9	3,771	-7.0	29.6	21,127	-5.6	29.1
- 디스플레이 패널	9,043	-15.4	5.5	666	-3.2	5.2	3,537	-17.1	4.9
- 전자관	277	5.7	0.2	29	13.8	0.2	134	1.0	0.2
- 수동부품	8,840	12.3	5.4	707	-6.4	5.5	4,170	4.4	5.8
- PCB	3,430	18.4	2.1	236	-3.0	1.9	1,323	-3.3	1.8
- 접속부품	12,171	-3.5	7.5	940	-11.8	7.4	5,324	-10.1	7.3
- 기타 전자부품	774	1.8	0.5	50	-20.3	0.4	325	-11.1	0.4
○ 컴퓨터 및 주변기기	14,841	-2.9	9.1	1,156	-6.8	9.1	6,985	-4.1	9.6
- 컴퓨터	977	-1.6	0.6	87	-11.9	0.7	492	-1.0	0.7
- 주변기기	13,864	-3.0	8.5	1,069	-6.4	8.4	6,493	-4.3	9.0
· 디스플레이장치	846	11.0	0.5	81	16.7	0.6	478	25.2	0.7
· 프린터(부품포함)	10,180	-2.8	6.2	787	-5.8	6.2	4,767	-5.4	6.6
· 보조기억장치	410	-26.7	0.3	26	-18.4	0.2	186	-2.1	0.3
· 저장 매체	1,799	-6.3	1.1	126	-16.6	1.0	781	-10.6	1.1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628	9.2	0.4	49	-8.9	0.4	282	-6.7	0.4
○ 통신 및 방송기기	9,369	-14.8	5.7	607	-19.1	4.8	3,665	-20.8	5.1
- 통신기기	5,787	-18.6	3.5	384	-8.4	3.0	2,260	-20.2	3.1
· 유선통신기기	1,348	-9.6	0.8	95	-5.4	0.7	636	-9.2	0.9
· 무선통신기기	4,439	-21.0	2.7	289	-9.3	2.3	1,624	-23.8	2.2
- 방송국용 기기	3,582	-7.7	2.2	224	-32.6	1.8	1,404	-21.8	1.9
○ 영상 및 음향기기	5,803	9.6	3.6	465	15.1	3.6	2,032	-12.9	2.8
- 영상기기	2,686	-13.3	1.6	277	29.3	2.2	1,140	-8.1	1.6
- 음향기기	530	9.2	0.3	44	-3.9	0.3	232	-8.7	0.3
- 기타 영상음향기기	2,588	51.2	1.6	143	0.0	1.1	660	-21.3	0.9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51,400	5.1	31.5	4,125	-8.7	32.3	23,875	-5.0	32.9
- 가정용 기기	10,531	0.8	6.5	874	-5.8	6.9	4,904	-6.6	6.8
- 사무용 기기	479	-11.3	0.3	39	-6.1	0.3	225	-1.0	0.3
- 의료용 기기	6,148	5.6	3.8	529	-0.8	4.1	2,872	-3.0	4.0
- 측정 제어 분석기기	20,478	7.2	12.6	1,664	-8.4	13.1	9,754	-2.3	13.5
- 전기 장비	13,764	6.1	8.4	1,019	-15.1	8.0	6,120	-9.0	8.4
· 건전지 및 축전지	7,138	9.0	4.4	524	-15.5	4.1	3,152	-9.5	4.3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4 | 일본 ICT 품목별 수입

(단위 : 억 엔, %)

구 분	2018년			2019년					
	금액	증가율	비중	6월 당월			1~6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154,532	2.1	100.0	11,558	-1.2	100.0	74,680	2.1	100.0
○ 전자부품	41,768	0.6	27.0	3,249	-4.1	28.1	19,174	-4.4	25.7
- 반도체	32,349	1.7	20.9	2,506	-4.0	21.7	14,824	-4.0	19.9
- 디스플레이 패널	1,664	-7.1	1.1	136	-5.1	1.2	771	-3.8	1.0
- 전자관	118	-26.2	0.1	16	151.0	0.1	52	16.1	0.1
- 수동부품	1,352	3.0	0.9	106	-3.0	0.9	657	2.1	0.9
- PCB	1,400	-13.4	0.9	114	2.6	1.0	651	-6.9	0.9
- 접속부품	4,390	0.5	2.8	332	-9.5	2.9	1,974	-9.6	2.6
- 기타 전자부품	494	5.5	0.3	39	-4.7	0.3	246	1.7	0.3
○ 컴퓨터 및 주변기기	23,468	1.7	15.2	1,805	10.4	15.6	12,616	9.0	16.9
- 컴퓨터	13,085	1.2	8.5	1,037	19.4	9.0	7,448	14.9	10.0
- 주변기기	10,383	2.2	6.7	768	0.2	6.6	5,168	1.5	6.9
· 디스플레이장치	511	-4.9	0.3	43	20.8	0.4	270	8.6	0.4
· 프린터(부품포함)	4,171	-1.6	2.7	305	-6.5	2.6	2,025	-0.2	2.7
· 보조기억장치	2,725	9.0	1.8	200	5.8	1.7	1,368	2.6	1.8
· 저장 매체	1,625	-1.8	1.1	112	-7.3	1.0	754	-7.8	1.0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1,351	10.0	0.9	107	13.7	0.9	751	13.4	1.0
○ 통신 및 방송기기	33,641	0.4	21.8	1,991	-6.0	17.2	14,650	-1.0	19.6
- 통신기기	31,189	-0.4	20.2	1,776	-7.0	15.4	13,375	-1.8	17.9
· 유선통신기기	6,536	-1.2	4.2	518	-2.3	4.5	3,405	12.4	4.6
· 무선통신기기	24,654	-0.2	16.0	1,258	-8.8	10.9	9,970	-5.8	13.3
- 방송국용 기기	2,452	12.7	1.6	215	3.1	1.9	1,275	7.4	1.7
○ 영상 및 음향기기	11,593	-0.2	7.5	899	3.7	7.8	5,381	1.5	7.2
- 영상기기	6,310	-0.4	4.1	527	14.3	4.6	3,283	12.4	4.4
- 음향기기	3,042	11.7	2.0	271	12.3	2.3	1,565	10.6	2.1
- 기타 영상음향기기	2,241	-12.4	1.5	101	-38.7	0.9	533	-44.7	0.7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44,062	6.0	28.5	3,614	-2.0	31.3	22,859	6.6	30.6
- 가정용 기기	12,772	2.4	8.3	1,139	-5.1	9.9	6,778	5.8	9.1
- 사무용 기기	912	-0.5	0.6	61	-9.7	0.5	450	-8.6	0.6
- 의료용 기기	6,942	3.2	4.5	560	10.1	4.8	3,739	12.6	5.0
- 측정 제어 분석기기	9,925	9.1	6.4	773	-6.8	6.7	4,997	4.4	6.7
- 전기 장비	13,512	9.3	8.7	1,082	-0.2	9.4	6,895	7.1	9.2
· 건전지 및 축전지	2,081	17.6	1.3	183	7.8	1.6	1,194	19.5	1.6

자료 : Uncomtrade, KITA



4

ICT 부문별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수출)/구매(수입) 금액

표 3-15 ICT 부문별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수출)/구매(수입) 금액

(단위 : 백만 원, %)

구분		컴퓨터 및 주변기기		가전·전자·통신기기		소프트웨어	
		금액	전년 동기비	금액	전년 동기비	금액	전년 동기비
직접판매 (수출)	2016	14,334	6.6	66,618	15.9	1,016	-56.1
	2017	8,829	-38.4	75,141	12.8	614	-39.6
	2018	6,872	-22.2	99,226	32.1	1,344	118.9
	2016.1/4	4,211	45.1	16,916	26.2	418	-48.2
	2/4	3,693	36.9	16,176	19.1	303	-37.4
	3/4	3,160	-16.9	15,681	22.0	150	-74.6
	4/4	3,270	-19.2	17,845	1.3	145	-66.6
	2017.1/4	2,610	-38.0	18,617	10.1	116	-72.2
	2/4	2,043	-44.7	15,715	-2.8	84	-72.3
	3/4	2,018	-36.1	19,113	21.9	98	-34.7
	4/4	2,158	-34.0	21,696	21.6	316	117.9
	2018.1/4	2,042	-21.8	25,635	37.7	244	110.3
	2/4	1,485	-27.3	28,160	79.2	379	351.2
	3/4	1,554	-23.0	27,358	43.1	313	219.4
	4/4	1,791	-17.0	18,073	-16.7	408	29.1
	2019.1/4	1,656	-18.9	21,429	-16.4	150	-38.5
	2/4p	1,483	-0.1	22,931	-18.6	231	-39.1
직접구매 (수입)	2016	44,198	2.2	192,102	37.2	5,153	4.8
	2017	37,898	-14.3	277,273	44.3	8,737	69.6
	2018	53,588	41.4	451,371	62.8	11,238	28.6
	2016.1/4	12,454	9.2	37,280	17.6	1,302	3.8
	2/4	8,907	-15.8	35,107	22.1	996	-2.2
	3/4	10,499	28.8	44,531	52.8	1,093	-6.7
	4/4	12,338	-5.9	75,184	49.2	1,762	19.7
	2017.1/4	7,123	-42.8	57,502	54.2	1,879	44.3
	2/4	6,799	-23.7	56,726	61.6	1,870	87.8
	3/4	10,035	-4.4	55,514	24.7	1,879	71.9
	4/4	13,941	13.0	107,531	43.0	3,109	76.4
	2018.1/4	12,527	75.9	102,167	77.7	2,863	52.4
	2/4	12,543	84.5	98,533	73.7	2,665	42.5
	3/4	11,321	12.8	98,704	77.8	2,665	41.8
	4/4	17,197	23.4	151,967	41.3	3,045	-2.1
	2019.1/4	13,180	5.2	141,629	38.6	3,107	8.5
	2/4p	10,499	-16.3	111,727	13.4	2,975	11.6

주 : p는 잠정치

자료 : 통계청

5 주요 ICT 부문별 수출입 금액 및 물량 지수

표 3-16 주요 ICT 부문별 수출 금액 및 물량 지수(2015=100)

구 분	반도체		전자표시장치		기타전자부품		컴퓨터 및 주변기기		통신, 방송 및 영상, 음향기기		정밀기기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2005	47.2	10.6	51.3	14.9	45.5	40.3	121.3	36.1	106.4	34.5	61.3	49.7
2006	52.5	14.2	76.1	29.1	55.9	48.5	110.5	43.0	104.4	40.8	55.1	45.6
2007	62.6	22.2	93.6	48.3	53.3	47.4	108.6	49.1	111.1	50.2	70.3	58.4
2008	52.6	23.8	89.4	51.1	63.1	59.2	95.7	50.8	124.5	62.8	91.6	78.4
2009	50.1	24.1	112.9	78.9	65.1	62.2	79.4	57.5	99.1	58.9	53.0	46.9
2010	81.3	38.3	144.2	100.5	85.3	81.3	94.5	69.1	92.3	60.3	69.9	62.9
2011	80.2	62.9	132.3	110.8	98.2	93.0	99.2	81.7	92.3	66.9	79.2	72.1
2012	79.7	87.7	125.0	108.9	118.5	113.2	105.3	88.5	77.6	63.8	89.8	80.6
2013	90.3	83.8	119.4	107.3	136.1	130.7	102.0	91.6	91.4	80.0	95.0	85.9
2014	99.4	89.8	116.1	111.9	116.5	112.2	95.3	89.5	96.8	86.6	100.4	92.9
201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16	99.1	115.7	75.5	83.8	91.6	99.2	103.7	108.2	91.8	92.4	104.2	110.0
2017	156.8	146.9	93.9	88.5	113.0	126.4	142.0	150.5	71.1	73.5	124.9	139.2
2018	203.6	177.6	75.8	86.6	106.5	112.5	137.4	153.5	61.5	67.7	137.8	154.7
18.1월	185.5	155.1	85.0	89.1	118.8	132.3	168.4	176.7	63.7	64.3	125.1	139.5
2월	171.6	144.0	69.1	73.6	85.7	94.1	165.8	176.6	48.0	50.1	104.7	117.3
3월	207.8	175.7	81.2	88.3	104.5	114.2	189.1	202.3	62.2	73.1	132.6	147.8
4월	187.7	158.6	73.3	81.2	99.2	108.4	134.6	144.1	50.6	60.2	133.3	147.8
5월	208.0	176.8	72.7	83.8	99.8	102.2	141.3	156.2	62.1	69.2	126.9	142.2
6월	214.9	184.8	74.6	89.0	102.8	105.7	187.2	213.5	56.7	63.8	147.3	164.8
7월	197.8	170.8	88.7	106.5	119.6	123.3	146.0	168.0	59.3	65.8	130.0	145.3
8월	218.7	190.0	107.6	127.1	118.4	121.8	176.0	204.5	58.3	64.6	155.1	174.0
9월	244.6	215.1	93.6	109.2	104.4	107.9	89.1	101.9	52.2	58.6	143.0	161.1
10월	227.1	208.8	89.8	104.6	116.7	121.9	77.1	88.3	67.6	73.8	170.1	193.2
11월	207.7	194.2	37.4	44.1	112.1	117.4	86.1	99.8	83.3	90.1	148.8	169.0
12월	171.7	162.6	36.9	44.0	95.9	101.2	87.5	102.7	73.6	79.1	136.9	155.6
19.1월	145.1	152.2	36.5	44.3	103.9	109.7	64.2	75.4	72.7	79.0	124.4	141.7
2월	132.7	146.5	29.8	37.2	87.1	91.8	54.3	65.9	60.3	65.3	107.2	119.2
3월	175.5	202.2	31.3	39.3	99.9	105.9	69.2	84.6	67.2	77.6	139.4	154.8
4월	164.3	201.6	31.2	39.3	101.8	109.9	55.0	68.4	71.3	81.7	134.0	153.3
5월	148.5	186.8	30.4	38.9	99.7	107.9	59.8	75.0	62.9	72.1	142.8	163.5
6월	165.5	215.4	31.6	41.1	95.4	103.7	42.8	54.3	62.4	71.2	128.6	147.5
7월	149.3	209.7	32.4	43.5	110.8	120.2	47.9	60.5	71.6	82.8	135.1	157.2
8월	159.3	221.4	31.7	45.5	109.0	119.3	41.2	52.1	85.4	98.7	146.7	172.3

자료 : 한국은행



표 3-17 주요 ICT 부문별 수입 금액 및 물량 지수(2015=100)

구 분	반도체		전자표시장치		기타전자부품		컴퓨터 및 주변기기		통신, 방송 및 영상, 음향기기		정밀기기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2005	65.7	26.7	50.9	22.2	89.9	50.9	69.1	42.9	45.3	31.5	64.5	56.6
2006	67.7	33.2	51.5	21.9	98.1	59.9	80.9	56.7	52.9	40.0	71.1	66.0
2007	79.2	44.0	55.5	24.2	103.1	67.6	88.8	66.4	54.5	43.6	71.7	66.3
2008	83.4	52.9	68.9	31.1	110.5	76.8	84.3	68.8	60.6	49.4	72.4	67.7
2009	70.0	49.3	56.2	33.7	105.5	79.1	74.5	67.5	47.4	40.9	60.4	56.5
2010	81.8	60.4	84.2	53.6	118.8	86.3	100.4	94.8	59.6	53.6	82.4	79.1
2011	85.9	68.8	83.8	61.8	121.9	97.8	101.1	95.1	75.1	68.8	93.0	85.8
2012	83.9	74.4	90.0	71.9	122.0	108.3	96.2	88.8	49.7	46.2	103.0	97.0
2013	90.3	82.5	80.9	72.0	133.5	120.7	98.0	95.7	54.7	52.4	97.2	92.5
2014	94.9	92.0	97.9	89.8	123.6	117.9	103.7	101.3	80.2	78.7	99.7	94.5
201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16	95.2	96.7	76.2	83.9	86.5	91.5	109.9	111.1	106.3	108.9	100.8	100.0
2017	107.4	109.9	95.2	104.1	100.0	110.3	130.4	134.2	115.5	125.3	119.7	118.3
2018	115.3	119.7	105.5	134.1	96.1	105.2	140.6	143.7	114.5	130.1	124.6	121.6
18.1월	112.0	113.2	106.2	124.0	107.5	116.8	194.4	201.3	132.9	141.5	128.4	124.3
2월	100.5	101.6	87.8	104.8	84.6	94.2	133.9	138.5	90.3	96.1	113.6	110.8
3월	115.6	116.8	113.7	138.8	98.1	106.9	160.0	161.5	106.8	115.1	129.2	126.0
4월	108.7	109.7	119.6	147.8	90.1	98.1	149.4	151.4	95.5	109.0	133.8	129.4
5월	105.3	106.2	142.4	183.1	93.7	102.2	146.0	148.3	102.6	117.1	121.0	116.7
6월	109.9	113.8	136.8	181.3	88.8	97.2	137.4	143.2	95.4	109.0	126.7	123.7
7월	118.8	122.9	127.6	171.1	98.3	106.8	143.6	148.7	106.2	129.3	129.1	126.3
8월	116.9	120.9	125.6	166.7	99.4	108.4	133.5	136.0	99.2	120.2	119.6	116.7
9월	111.7	118.2	87.0	114.6	92.2	100.7	108.4	109.9	91.8	111.2	119.2	116.9
10월	127.0	136.1	93.9	125.7	107.1	117.5	126.1	126.2	169.4	205.6	133.6	131.1
11월	132.4	144.2	76.0	99.1	96.2	105.7	115.0	116.5	156.3	172.3	118.8	117.0
12월	124.3	136.9	49.1	60.7	97.5	107.3	139.8	144.4	127.3	138.4	121.7	119.9
19.1월	118.3	134.1	52.4	77.4	95.6	105.5	169.4	169.7	152.6	165.6	111.9	109.8
2월	98.8	114.8	41.6	54.3	70.9	78.0	114.0	117.7	99.1	108.7	95.2	93.3
3월	124.2	145.7	46.7	50.8	95.6	105.0	136.2	139.4	137.7	149.5	116.5	114.4
4월	128.4	153.4	47.0	50.8	91.2	100.4	127.1	131.3	137.1	154.8	127.7	125.7
5월	138.1	170.7	40.6	43.9	88.2	97.5	108.1	110.8	142.3	160.9	113.2	111.1
6월	121.9	152.3	24.0	25.7	89.5	99.0	99.8	103.9	124.3	142.1	111.7	110.1
7월	140.5	179.0	26.9	29.1	103.7	114.6	113.5	120.6	149.7	175.0	121.9	120.1
8월	121.3	157.6	27.0	30.3	103.4	114.5	103.3	109.8	138.0	161.3	119.6	117.9

자료 : 한국은행

“월간 ICT 산업 동향”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기술정책단 정책분석팀에서 수행하는 “ICT 동향분석 및 정책지원” 사업 결과의 일부로 산출된 것입니다.

- 사업 책임자 : 문형돈
- 과제 책임자 : 김현중
- 참여 연구원 : 강희일, 조성선, 정경찬, 최재원, 최규선
- 위촉 연구원 : 최경석, 김은비, 이유리

본 자료의 내용을 전재할 수 없으며,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TP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술정책단 정책분석팀

34054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
전화 : (042) 612-8230, 팩스 : (042) 612-8209